

1950년대 上海市 禁娼事業과 娼妓해방

연세대학교 대학원

사 학 과

장 수 지

1950년대 上海市 禁娼事業과 娼妓해방

지도 백 영 서 교수

이 논문을 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6년 7월 일

연세대학교 대학원

사 학 과

장 수 지

장수지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_____인

심사위원_____인

심사위원_____인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6년 7월 일

차 례

표 차례	ii
국문 요약	iii
I. 서론	1
II. 上海市 禁娼 정책의 전개	8
1. 公娼制 실시와 성매매 통제	9
2. 禁娼 집행 과정	28
III. 上海市 당국의 娼妓인식의 이중성	43
1. 기생충으로서의 창기	44
2. 피해자로서의 창기	52
IV. 결론	66
참고문헌	70
ABSTRACT	77

표 차례

<표1> 상하이시 기원과 기녀 숫자	12
<표2> 연도별 수용인원 통계	12
<표3> 상하이 부녀교화소 출소자 사회 복귀 현황	39

국 문 요 약

1950년대 上海市 禁娼事業과 娼妓해방

중화인민공화국은 건국 이후 1950년대 말까지 전국에서 금창 사업을 시행하였다. 공산당은 금창 사업이 부녀를 모욕하고 심신에 심각한 손상을 주는 야만적인 제도를 타파하는 것이라고 규정하였다. 모든 도시에서 각 정부들은 기원을 폐쇄하고 기원주들을 체포·처벌했으며, 창기들은 한 곳에 수용하여 성병 치료·노동 교육 등을 한 뒤 사회로 복귀시켰다.

중국에서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창기의 숫자가 많았던 상하이시의 금창 사업은 중국에서 가장 오랫동안, 1951년부터 1958년까지 8년이라는 기간에 걸쳐 이루어졌다. 상하이시는 1949년 해방 이후 2년 6개월간 공창제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공창제를 통해 성매매를 효과적으로 통제하여 성산업을 축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였다. 정부는 매춘객에 대한 교육과 같은 혁신적인 조치를 취하고, 창기들의 전업을 돕는다고 공언했으나 이러한 것들은 얼마나 실현되었는지는 분명치 않다. 그보다는 기원과 창기들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졌고, 이러한 단속 중심의 공창제 운영은 금창이 부녀정책이 아니라 사회정화 사업의 일부분이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1951년 11월 27일의 상하이시 전면적 금창 시행은 기원주와 기녀들만을 대상으로 행해졌고, 1958년까지 기녀들의 개조가 금창 사업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다. 공창제 운영 시기와 마찬가지로, 중국 정부는 ‘창기제도’를 성을 파는 축을 변화시킴으로써 해결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유민 계급에 속해있던 창기들은 수용소 내에서 교육을 통해 노동자가 됨으로써 공식적으로 ‘해방’되었는데, 이러한 방식의 해방은 중화인민공화국이 전 인구를 통제하고 여성들의 노동력을 조직화하는 커다란 흐름 속에서 가능했다.

기녀 개조사업이 금창 사업의 가장 큰 위치를 차지했던 것은, 당시 공산당의 창기들에 대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공산당은 창기들이 구사회·자본주의의 부패한 생활방식을 대표하는 기생층이자 가장 심각한 억압과 착취를 받은 피해자라고 여겼다.

성매매와 관련된 직업을 가진 자들은 모두 ‘유민’계급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창기와 창기를 착취하는 기원주는 모두 유민 계급이었다. 유민계급은 가장 게으르고, 노동할 줄 모르며, 기생생활의 습관을 가지고 사회적 풍기를 해치는 자들이라고 규정되었다. 기녀들을 수용하여 개조했던 이유는 이 여성들이 단지 노동할 줄 모르기 때문만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모든 유민에 대한 개조 사업이 행해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유민들은 사회적 계급으로 정의되었지만, 사회주의 국가가 들어선 이후에는 이들의 나태한 생활방식을 고치는 것이 가장 문제였다. 유민들에 대한 이러한 사고방식은, 성매매를 가능하게 하는 전반적인 사회적 인식이나 습관보다는 창기들의 ‘기생충적인 생활방식’을 고치는 데에 정부가 집중했던 이유였다.

창기들은 같은 유민 안에서도 기원주와의 관계에서 다시 피억압·피착취자가 되었다. 1951

년 11월 전면적 금창 이후 창기들의 피해자성이 명확해졌는데, 기녀들이 기원주들의 악행을 고발하는 과정에서 창기들이 피해자라고 하는 인식이 강화되었다. 그러나 창기들은 단지 기원주와의 관계에서 안에서만 피해자였고, 기원주들의 악행을 강조하는 가운데 창기가 된 여성들이 입는 피해는 모두 기원주로부터 받는 착취로 좁혀졌다. 공식적 담론 속에서 이 창기들은 피억압계급의 여성이었기 때문에 창기가 된 것이 아니라, 창기가 되어 기원주의 억압을 받기 때문에 피해자가 된 것이었고, 따라서 기녀들의 빈부 격차·출신 성분의 차이는 가려졌다. 성매매를 하는 과정에서 여성들이 겪는 피해, 남성들이 여성을 사는 관습에 대한 비판은 이 계급의 언어 속에서 사라졌다. 이렇게 중화인민공화국은 성매매를 폐지하면서도 여성에게는 엄격하고 남성에게는 관용적으로 적용되는 이중적인 성 관념에 대한 공격은 피해갔다.

중화인민공화국은 창기들을 기생충이자 피해자라고 계급적으로 정의함으로써 1949년 이전까지 ‘부녀문제’였던 창기제도를 계급문제로 변환시켰다. 이 변환 과정에서 ‘성’에 대한 언급이 사라짐으로써 기녀들에 대한 성적인 이미지가 사라지고, 여성의 가치를 정조의 유무로 판단하는 시각도 사라졌다. 그러나 이러한 관념을 구체적으로 비판한 것도 아니어서, 민간에 서는 여전히 창기들이 ‘성적으로 타락한’ 여성이라는 인식이 지속되고 있었다.

성별 불평등에 대한 인식이나 대책 없이 성매매를 폐지하고자 했기 때문에, 정부는 결국 가장 눈에 잘 띄고 통제하기 쉬운, 성을 파는 쪽을 단속하는 방식에 무게를 두었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이러한 성매매 폐지의 논리를 확장시켜 보면, 결국 ‘부녀해방’이라는 것도 성별로 구성된 사회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와 변혁을 회피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핵심용어: 성매매, 금창사업(禁娼事業), 娼妓[妓女], 계급 인식, 유민(游民), 기생충, 피해자, 부녀해방, 기원주, 매춘객

I. 서론

中華人民共和國는 건국 초부터 남녀가 평등하고 ‘婦女’가 해방된 국가를 표방했다.¹⁾ 특히 공산주의를 표방하는 국가로서 성별의 구분 없이 토지를 분배하고, 혼인 당사자의 의지에 따른 결혼과 이혼을 보장하며, 사회의 전 분야에 여성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하고자 하였다고 한다. 아울러 1950년대 중화인민공화국은 전국적으로 禁娼 사업을 벌여, 가장 고통 받는 여성이 없는 나라, 즉 ‘娼妓’가 없는 국가임을 내세웠다.²⁾

근현대사에서 한 국가가 계획적인 노력을 통해 성매매를 사라지게 한 경우는 매우 드물며, 그 사례 중 하나가 중화인민공화국이다. 중국 대륙에서는 금창사업 이후로 성매매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성매매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종결된 문제라고 여겨졌다. 따라서 중국 내에서는 금창사업에 관한 연구의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개혁개방 이후 성매매가 나타나고, 곧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만연하자 국가가 중심이 되어 1950년대의 금창에 대한 연구서들을 내기 시작하였다.³⁾ 중국 밖의 다른 나라에서는 오랫동안 이 금창사업이 단지

1) 中華人民共和國에서는 ‘婦女’로 ‘여성’이라는 집단을 나타낸다. 1920년대 五四運動시기 ‘新女性’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면서 한동안 ‘여성’·‘여자’가 여성이라는 젠더를 나타냈다.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 ‘여성’은 20년대의 성해방 풍조의 함의와 ‘여권주의’적 색채를 가지는 단어로 여겨지게 되었다. 공산당은 다시 ‘부녀’를 사용하여 국가에 헌신하며 사회주의적 가정을 이루어낼 수 있는 여성을 지칭하게 되었다(Tani E. Barlow, "Theorizing Woman: *Funü, Guojia, Jiating*(Chinese Women, Chinese State, Chinese Family)", Joan Wallach Scott ed., *Feminism & History*, Oxford-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6, 48-75쪽 참조).

2) 1940년대 말부터 1950년대 중반까지의 문헌자료에는 ‘妓女’·‘娼妓’ 등의 단어가 나타난다. 가장 많이 쓰이는 말은 ‘기녀’이나, 보통 妓院이라는 곳에 속해 있는 이들을 ‘기녀’로 지칭하고, 성매매를 행하는 여성들을 아우르는 표현은 ‘娼’이라고 볼 수 있다. 공개적인 곳(기원이나 각종 오락장)에서 일하지 않고 세금을 내지 않는 여성들은 대부분 ‘暗娼’이라고 부르고, 이에 반대되는 여성을 ‘明娼(娼)’라 부르기도 했다. 현재에는 ‘창’이라는 단어가 지니는 부정적이고 본질주의적인 함의 때문에 한국에서는 ‘성판매(성매매) 여성’, ‘매춘 여성’, ‘성노동자’ 등의 단어를 연구자의 입장에 따라 각기 다르게 사용하고 있다. 성판매 여성이나 매춘 여성이라는 단어가 성기 혹은 성행위만을 제공한다는 느낌을 주기 쉽고 ‘기녀’와 ‘창기’를 당시 하나의 직업을 나타내는 일종의 역사적 용어로 간주할 수 있다고 생각해 여기서는 ‘기녀’와 ‘창기’를 인용부호와 함께, 혹은 그대로 사용하기로 한다.

3) 《中國娼妓: 過去和現在》, 中國法律出版社, 1995와 같은 책이 그 결과물 중 하나인데, 필자가 이 논문을 완성할 때까지 입수하지 못하였다. 중국 대륙의 연구 경향에 대해서는 林紅, 〈毛澤東時代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과대 포장하고 선전한 것일 뿐이라는 의심이 있었으며,⁴⁾ 최근에 들어서야 연구의 중요한 장이 되었다.

1970년대에 급진적 페미니스트들이 등장하고, 세계적으로 각국의 페미니스트들이 성매매와 관련된 운동과 연구를 행하면서, 성매매는 한 사회에서 여성의 종속적인 지위를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임이 드러났다. 한 사회의 성매매의 양상은 그 사회에서 성별에 따라 주어지는 인신 자유의 정도, 경제적 능력의 정도, 법적 권리 수준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이다.⁵⁾ 이 논의를 고려하면,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성매매가 사라졌다는 것은 性(sexuality)을 매개로 하는 여성 억압이 줄어들었다는 의미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금창사업 과정 속에서 중국 정부가 보여준 여성해방의 관점과 실천 방식을 밝히는 것을 목표로 이 연구를 시작하였다.

최근까지 대륙에서 이루어진 연구는 대부분 사유재산제도가 ‘娼妓制度’를 만들어냈다고 하는 계급 갈등적 시각에 기반하여 금창을 설명하고자 한다.⁶⁾ 그러나 실제로 계급 중심적 시각이 금창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논리적으로 밝힌 연구는 없고,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금창을 성공시킨 줄거리만 반복하는 연구가 대부분이다. 이전까지의 반동적이었던 정부와는 달리, 공산당의 인민정부는 여성을 억압하는 妓院主들을 처리하고, 고통 받던 여성들에게 생산기술을 가르쳐주어 해방시켰다는 것이다. 유사 이래 한번도 없었던 창기제도의 폐지를 중화인민공화

의廢娼運動: その‘成功’と限界を検證する〉, 《愛和大學國際問題研究所紀要》108, 1997, 29-30쪽 참고; 林紅《中國における買売春根絶政策: 1950年代の福州市の實施過程を中心に》, お茶の水女子大學大學院人間文化研究科博士(社会科学)學位論文, 2005. 3-4쪽 참고.

4) 楊潔曾·賀宛男, 김하림 옮김, 《새로 태어난 여성: 중국 창녀개조사》, 한마당, 1990. 저자들은 여러 나라의 기자단이 上海의 기녀개조의 현실을 보기 위해 왔지만, 그들은 현실을 보기 이전에 이 사업 자체를 의심스럽게 여기고 있었다고 적고 있다.

5) 자세한 내용은 캐슬린 베리, 정금나·김은정 옮김, 《섹슈얼리티의 매춘화》, 삼인, 2002, 참고.

6) ‘娼妓制度’는 1950년대까지 중국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된 용어이다. ‘창기’라는 특정 직업을 가진 사람의 명칭을 제도로 표현함으로써, 금전을 매개로 성을 사고파는 것이, ‘창기’라는 사람의 인격에서 비롯된 것처럼 보이게 하는 용어인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禁娼’이라는 용어와도 연관되는데, ‘娼’이라는 사람들의 존재를 없애는 것이 곧 성을 사고파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라고 인식했던 것을 알 수 있다. 최근 한국에서는 ‘賣春’이라는 단어가 성을 파는 사람만을 문제 삼기 때문에 사고파는 양쪽을 뜻하는 ‘賣買春’이라는 용어를 도입했다가, ‘춘’이라는 글자가 여성의 성이나 신체를 남성적 시각에서 그리는 단어라는 판단에서 ‘性賣買’라는 표현을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에서 행한 ‘禁娼’은, 성을 사고파는 행위 및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를 금지하는 데 초점이 있었다는 면에서 ‘성매매 금지’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당하지만, 당시 정책의 시각을 그대로 드러내는 데 오히려 ‘금창’이라는 단어가 적절하다고 생각되어, 여기서는 ‘금창’이나 ‘창기제도 폐지’라는 당시의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도록 한다.

국 정부가 달성했다는 “정권의 우월성”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마치 금창사업이 공산당만이 생각해 낸 특별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서술한다.⁷⁾ 이 중에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악습인 도박·아편 등의 제거와 같은 분야로 금창을 연구하는 경우가 많다.⁸⁾ 그 외에는 성 문화나 妓女에 관한 연구에서 간략하게 다루고 있다.⁹⁾ 어느 쪽이든 크게 다른 내용 없이 중화인민공화국의 금창 성공을 찬양하는 태도를 보이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금창이 중화인민공화국의 양성관계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 밝힌 연구는 없었다.

여성사 연구에서도 금창은 아직 본격적으로 다뤄지지 않은 분야이다. 중화인민공화국에 관한 여성사 연구는 대부분 토지개혁이나 혼인법으로 여성과 남성이 동일한 경제적 지위·자유를 얻게 되고, 가족 제도 안에 갇혀 있던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사회활동 및 사회적 노동에 참여하게 된 변화를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다. 이 연구들은 성매매에 관한 것은 거의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 이른바 여성사의 통사라고 할 수 있는 연구들에서 성매매 분야가 빠져 있는 것은 중국 안팎의 여성사 연구에서 모두 마찬가지이다.¹⁰⁾

최근 10년 사이에 중국 외부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의 금창에 관하여 기존과는 다른 식의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이 연구들은 금창 과정 속에서 엿보이는 공산당의 성에 관한 인식을 밝히면서 기녀해방의 서사에 대해 의문을 던지고 있다.¹¹⁾ 즉 인민정부의 강력한 사회적 통제와 동원이 금창사업의 ‘성공’을 가져왔으

7) 上海市 금창에 관한 대표적인 중국 대륙의 연구인 楊潔曾·賀宛男, 김하림 옮김, 《새로 태어난 여성: 중국 창녀개조사》 한마당, 1990이 이러한 특징을 잘 보여준다.

8) 馬維綱 編, 《禁娼禁毒》, 警官教育出版社, 1993; 沈飛德 編, 《舊上海烟賭娼》, 百家出版社, 1988; 諸羽 編, 《割除毒瘤: 共和國首次禁毒禁娼述實》, 中央文獻出版社, 1999 등. 이 외에도 熊月之 主編의 《上海通史 第11卷 當代政治》와 《上海通史 第13卷 當代社會》(上海人民出版社, 1999)에서도 금창을 도박·아편 금지와 함께 사회 풍기를 정화하는 사업으로 보고 있다.

9) 孫國群의 《舊上海娼妓秘史》, 河南人民出版社, 1988; 石方, 《中國性文化史》, 黑龍江人民出版社, 1993; 武舟, 《中國妓女生活史》, 湖南文藝出版社, 1990; 談大正, 《性文化與法》, 上海人民出版社, 1998 등이 이러한 연구에 속한다. 이렇게 ‘성 문화’를 다루는 연구들은 문화사나 사회사의 흐름 속에서 나타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林紅, 2005, 3쪽 참고).

10) 대표적으로 중화전국부녀연합회 편, 박지훈·전동현·차경애 공역, 《중국여성운동사(상)(하)》, 한국여성개발원, 1992; 엘리자베스 크롤, 김미경·이연주 옮김, 《중국여성해방운동》, 사계절, 1985; 小野和子, 李東潤 譯, 《現代中國女性史》, 正宇社, 1984를 들 수 있다.

11) 금창사업에 대해 가장 비판적인 연구로는 Christian Henriot, "La Fermeture: The Abolition of Prostitution in Shanghai, 1949-1958," *The China Quarterly*, No. 142, June, 1995가 있다. 이 연구는 금창이 폭력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기녀들에 대한 개조도 감금-추방으로 보고 있다;

나, 정부는 여성의 성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있었으며, 기녀들을 개조하여 규범적인 여성으로 만들고자 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연구들은 대부분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집행 방식을 비판하면서, 계급의식을 기녀들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무리였다는 점을 지적한다. 본고에서 다룬 上海市 금창과 관련된 기존 연구에 한정하면, 기녀들을 수용한 이후 어떠한 ‘개조’를 행했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¹²⁾ 최근 한국에서도 행해진 연구들도 대부분 기녀 개조 과정에 중심을 두면서 시론적인 논의를 펼치고 있다.¹³⁾

이 연구들은 정부의 기녀 인식과 성 인식의 상관관계를 밝히기 시작했으며, 금창이 기녀들에게 해방을 가져다주었다는 기존의 단순한 시각을 교정하고 있다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 연구들은 정부 당국의 계급 인식이 금창사업이나 기녀 개조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는 밝히지 못하였다. 그래서 금창사업은 다른 정부 정책과 아무런 연관 없이 설명되거나,¹⁴⁾ 정부 측의 설명대로 여성해방 정책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기도 하였다.¹⁵⁾

금창사업을 시행하던 당시, 정부는 창기제도가 “부녀를 모욕하는 야만적인 제도”라고 규정하였기 때문에,¹⁶⁾ 이 사업이 부녀정책의 일환으로 행해졌다고 볼 수

Gail Hershat, *Dangerous Pleasures: Prostitution and Modernity in Twentieth-Century Shanghai*, Berkeley, Los Angeles & London: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9는 금창이 역사적으로 중국 사회에서 근대화를 위해 달성해야만 하는 과제로 여겨졌다는 맥락을 강조한다; 90년대 후반에서부터 이용이 가능해진 공문서를 재료로 福州市의 금창을 재구성한 林紅《中國における買春根絶政策：1950年代の福州市の實施過程を中心に》, お茶の水女子大學大学院人間文化研究科博士(社会科学)學位論文, 2005는 가장 최근의 연구로, 당시 기녀, 기원주, 매춘객 등에 대한 조치와 시각을 자세히 밝히고 있다.

12) 楊潔曾·賀宛男, 1990; Henriot, 1995; Hershat, 1999.

13) 이들 연구는 모두 2004년 9월 성매매특별법 시행을 의식하고 쓰여졌다. 임우경, 〈그 많던 창녀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1950년대 상하이의 창녀개조사업과 실천의 역설〉, 《여/성이론》 통권 12호, 도서출판 여이연, 2005년 여름. 이 연구는 성매매특별법에 저항한 매춘 여성들과, 상하이의 기녀 ‘개조’사업 당시의 저항적이었던 여성들의 행동을 연결지으며, 이 여성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선이, 〈전후 동아시아의 廢娼운동을 통해 본 근대국민국가의 성관리: 중국의 ‘창기개조사업’과 미군정기 한국의 공창제 폐지 비교분석〉, 《동아시아에 있어서 탈식민적(post colonial) 재편과 문화냉전/냉전문화의 전개(1940년대~1950년대)》, 성공회대학교동아시아연구소 2006년 4월 국제 컨퍼런스 발표. 이 논문은 근대 국가 권력이 여성의 성을 통제하는 것이 중국과 한국 폐창운동의 목표였음을 전제로 두 국가를 비교하고, 중국에서 통제가 성공했다라도 창기에 대한 멸시가 사라지지 않았던 점을 들면서 한국 사회의 반성매매 운동이 이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14) 楊潔曾·賀宛男, 1990; Henriot, 1995; Hershat, 1999.

15) 林紅, 2005.

도 있다. 그러나 이제까지 공개되지 않은 공문서를 살펴보면, 실제로는 다른 부녀 정책과 거의 관계가 없었음을 알 수 있다. 금창사업이 놓인 맥락은 기녀 및 성산업에 대한 계급적 정의에 따른 것이었고, 이 정의에서는 적어도 표면상으로는 성별 인식이나 부녀정책과는 연관성을 찾기 힘들다. 최근의 연구들은 금창사업을 통해 새로 등장한 근대적 국가가 성에 대해 가지는 태도를 규명하고자 시도하였으나, 금창사업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계급인식에 대한 구체적 고찰이 빠져 있었다. 금창사업의 바탕이 된 계급적 논리를 분석하지 않는다면, 왜 상하이시가 기녀개조에 오랜 시간을 들였으며, 성매매 폐지 자체가 아니라 창기해방만이 부각되었는지도 명확히 알 수 없다. 기녀 개조에만 중심을 둔 연구는 성매매의 원인은 성을 파는 측에 있다는 여성 차별적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보일 위험도 있다.¹⁷⁾ 이 연구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후 금창 종료까지 관찰된 계급인식과 그 작동방식을 살펴봄으로써 여성해방을 계급해방에 종속된 것으로 설명하는 중국 공산당의 논리도 엿볼 수 있을 것이다.¹⁸⁾

본 연구에서 중심으로 다룬 上海市는 세계적으로도 가장 성매매 인구가 많았으며, 19세기 말부터 제국주의 국가들의 조계지가 들어서 있었다.¹⁹⁾ 따라서 부패한 자본주의적인 문화가 만연하고, 이로 인해 창기제도가 창궐한 도시였다고 당시 사람들은 인식하고 있었다. 상하이시는 1951년에서 58년까지 8년에 걸쳐 금창사업을 행하면서 경제적으로도, 사업 수행 과정에서도, 사회적 인식 면에서도 어려

16) 京市二屆各界人民代表會議, <關於封閉妓院的決議>(1949.11.21), 北京市公安局 編, 《北京封閉妓院紀實》, 中國和平出版社, 1988, 290쪽에서 재인용.

17) Elaine Jeffreys, "The problem of prostitution and sex work in twentieth-century China"(A Review of *Dangerous Pleasures: Prostitution and Modernity in Twentieth-Century Shanghai* by Gail Hershatte), *China Journal*, 39, 1998, 217-218쪽.

18) 공산당의 언어에서 여성해방이 계급해방으로 환원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Harriet Evans, "The Language of Liberation: Gender and Liberation in Early CCP Discourse", *Twentieth-Century China: New Approaches*,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2003 참조; 레이 초우는 중화인민공화국이 국가라는 지배적인 위치에서 마이너리티를 대변한다는 전략을 사용함으로써 여성에 관한 말하기는 인민·피억압계급 등의 이름 아래 간혀 있었다고 논한다(레이 초우, 장수현·김우영 옮김, 《디아스포라의 지식인: 현대 문화연구에 있어서 개입의 전술》, 이산, 2005의 5장 <디아스포라의 유혹에 맞서서>).

19) 상하이시의 창기 숫자는 가장 많을 때에는 6-10만 명 정도로 추산한다(鮑祖寶, 《娼妓問題》, 上海女子書店, 1935, 81쪽). 이는 여성인구 20명당 1인의 비율로, 당시 전 세계의 도시 중 가장 높은 비율이다(楊潔曾·賀宛男, 1990, 15-16쪽).

움에 직면했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성산업의 실태를 대표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는 상하이시가 금창을 성공해야만 전 중국의 창기제도 폐지가 완성될 수 있었으며, 정부당국과 간부 등의 끈질긴 노력 끝에 이 금창사업은 마무리를 보게 되었다.

II 장에서는 上海市의 금창사업 전개를 전반적으로 개괄하면서, 공산주의 정부로서 가지는 특징을 밝히고자 한다. 이 장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잘 다루어지지 않은 건국 이후에서 금창 이전 시기인 1949년과 1951년 사이의 기간을 公娼制 시기로 정의하여 살펴보고, 그 이후의 금창 집행과 기녀들의 사회복지 방식을 재평가 할 것이다. 이 금창사업을 뒷받침하고 있는 정부의 인식과 사상을 III장에서 다룬다. 피해자이자 기생충이라는 기녀들에 대한 이중적 정의는, 기존 연구에서 언급은 되었으나, 실제로 이 인식이 공산당이 세운 계급 질서 중 어디에 포함되며, 집행 과정에서 어떻게 작동하였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이 이중적 인식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성매매에 대한 공식적 입장과, 계급투쟁의 시각에서 성매매를 해결하는 것의 특징을 보여준다. 계급의 언어로 성매매를 설명함으로써 정부가 의도하거나 얻게 된 효과와 사회적 반응도 살펴볼 것이다.

이미 언급했듯이, 필자는 상하이의 금창과 관련된 공문서들을 적극 활용하여 상하이 금창사업을 재구성하고자 한다. 필자가 활용한 공문서는 上海檔案館에서 공개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한 자료들이고, 일부는 당안관에서 관련 당안을 편집한 기사를 활용하기도 하였다.²⁰⁾ 아울러 상하이에서 오래 전부터 발행된, 두 상하이판 신문 《文彙報》와 《新民晚報》의 기사들을 분석할 것이다.²¹⁾ 이 신문들은 당시 정부의 선전방침을 보여주는 한편, 각 지역 위원회의 반응에 대한 보도·독자들의 편지 등 사회적 반응을 담고 있다.

한국 학계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여성 정책 관련 연구가 여전히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았고, 특히 성매매에 대한 정책의 특징과 그 실상은 알려지지 않았다. 중화인민공화국 금창의 역사는 사회주의적인 것이기도 했지만, 그 이전 시기 한국

20) <上海解放初期禁娼史料一組>, 上海檔案館 編, 《檔案與歷史》, 2000年 第4期, 29-35쪽. 이 기사는 上海檔案館의 邢建榕 선생님의 도움으로 입수할 수 있었다.

21) 이 두 신문은 모두 上海圖書館에 소장되어 있는 CD를 사용하여 검색하였다.

과 일본을 아우르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발전한 폐창론 및 폐창운동의 영향을 받았다. 이 점에서 같은 시기 아시아 전반의 폐창 운동과 실현 방식을 이해하는 데에도 좋은 참조점이 될 것이다. 최근 연구에서는 근현대시기의 공창제 확립이나 성병관리의 가장 중요한 행위자 중 하나가 국가임을 밝히고 있다.²²⁾ 중화인민공화국의 금창은 표면적으로 보기에 근대 국가들이 확립하고자 했던 공창제 및 모든 형태의 성매매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례였던 동시에, 성매매와 관련한 이념과 행동 모두 국가가 절대적인 주도권을 쥔 사례이다. 따라서 이 금창사업의 사례는 모든 근대 국가가 성매매 확대의 장본인인지, 혹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필연성이 있는지, 근대국가는 성매매에 대해 어떤 공통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 등, 국가와 성매매의 관계를 고찰할 때 빠뜨릴 수 없는 논의의 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성매매 뿐 아니라 다양한 여성 해방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페미니스트들은 국가와 어떤 식으로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를 오랫동안 고민해 왔다. 이러한 점에서 이 연구가 현재의 성매매 대한 논의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22) 후지메 유키(藤目ゆき), 김정자윤경원 옮김, 《성의 역사학: 근대국가는 성을 어떻게 관리하는가》, 삼인, 2004의 1장 <구미 공창제와 폐창운동> 참고.

II. 上海市 禁娼 정책의 전개

上海市는 개항 이래로 초고속으로 성장하여 1930년대에 이미 300만의 인구를 가진, 중국의 무역과 금융, 공업의 중심지가 되었다.²³⁾ 한편으로는 서구 열강과 일본의 지배를 차례로 받으면서 경제적으로 해외에 깊이 의존하고 있었다. 따라서 상하이로 어떻게 정비하느냐는 공산당 정권이 도시에서도 성공할 수 있는가, 외세에 의존하지 않고 자주적으로 경제를 부흥시킬 수 있는가를 증명하는 문제였다. 공산당은 제국주의에 의해 도시 문화가 타락하면서 창기제도도 창궐했다고 여겼기 때문에 새로 세워진 인민정부로서는 부패한 분위기를 청신하여 생산적인 공간으로 도시를 정비하기 위해 禁娼은 중요한 사업이었다.

상하이시 禁娼 사업의 주체는 상하이시 인민정부의 民政局과 公安局이었다. 구체적인 계획은 상하이시 인민정부 내의 공산당 조직인 黨組가 세웠다. 上海民主婦女聯合會(약칭 ‘민주부련’)와 家庭婦女聯合會는 금창 실시 즉시 환영 성명을 냈으나, 실질적인 행동은 정부의 요청으로 몇 명의 간부를 보내는 것 외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간부를 보낸 것도 비밀리에 이루어진 일로, 간부로 뽑힌 여성들은 자신들이 왜 뽑혔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개조 사업을 위한 교육에 투입되었다는 사실을 보아, 적극적으로 금창사업에 참여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²⁴⁾ 민주부련은 상하이시에서 가장 큰 여성단체였으며 정부조직의 하나였음에도, 이 시기 성매매와 관련된 활동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다.²⁵⁾ 민주부련의 활동 및 회의 결정 내용 등이 모두 담겨 있는 《現代婦女》잡지에는 상하이시의 ‘기녀’ 혹은 ‘창기’에 대한 기사가 전혀 눈에 띄지 않는다.²⁶⁾ 정부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기녀’·‘창기’는

23) 熊月之 主編, 承載, 《上海通史 第13卷 當代社會》, 上海人民出版社, 1999, 3쪽.

24) 楊潔曾·賀宛男, 1990, 47쪽.

25) 上海民主婦女聯合會는 총 30만 명에 육박하는 회원을 가진 상하이 최대 여성 조직이었다. 그 구성원 중 과반수인 162,000명이 전문직이나 노동자 여성이었고, 7만 명이 농민, 나머지는 학생, 공무원, 주부였다. 당시 상하이 부시장인 潘漢年은 “부련의 주된 임무는 생산이다”라고 규정했다 (Richard Gaulton, "Political Mobilization in Shanghai, 1949-1951", Christopher Howe ed., *SHANGHAI: Revolution and Development in an Asian Metropoli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1, 62쪽 및 주 133번 참조).

26) 이 잡지는 1949년부터 1951년 10월까지 상하이민주부련이 매달 펴낸 일종의 기관지이다. 비록 妓院이 폐쇄된 1951년 11월 바로 전 달인 1951년 10월에 停刊되긴 하였으나 신문 등에서는

당시 상하이 ‘부녀’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았고, ‘금창’ 역시 ‘부녀’사업에 속하지 않았음을 엿볼 수 있다.²⁷⁾

정부가 ‘부녀해방’을 실현하기 위한 연속선 속에서 금창을 시행했다고 보는 기존 연구도 있는데, 단지 금창사업을 개시할 때 공개적으로 표방한 것을 근거로 삼고 있다.²⁸⁾ 그러나 상하이시 정부가 건국 이후 성매매에 대처한 자세와 성매매를 설명한 방식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녀해방’의 이념과는 거리를 두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금창사업은 정부 정책의 어떠한 맥락 속에 있었는가를 이 장에서 정부 측의 공문서를 통해 짚어볼 것이다. 상하이시 해방 초기의 공창제 운영과 금창사업의 집행을 면밀히 살펴봄으로써, 사회주의 정부의 금창 정책의 특징을 알아보고자 한다.

1. 公娼制 실시와 성매매 통제

(1) 上海市 禁娼事業 개괄

중화인민공화국은 1949년 10월 건국 이후 각 도시에서 기원 폐쇄 조치를 단행했다.²⁹⁾ 중화인민공화국의 금창사업은 두 개의 중요한 축으로 구성되었는데, 그

1949년부터 1951년 말까지 자주 ‘기녀’·‘창기’에 관련한 기사를 볼 수 있는 데 반해 《現代婦女》는 지나치게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 잡지의 주된 내용은 ‘婦女工作’을 어떻게 할 것인가이다. 그 내용은 토지개혁, 抗美援朝, 여공사업, 혼인법관철, 소련과 북한의 부녀 소식, 아동교육, 가정부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필자가 2005년 11월 上海圖書館에 가서 이 잡지를 구할 때에는 사이트상에는 비소장 도서라고 되어 있었고, 도서관 직원도 아직 정리가 된 것 같지 않아 구할 수가 없다고 하여 보지 못했다. 당시 上海에서 만났던 성공회대학교의 김미란 선생님이 이후 12월에 上海圖書館에서 우연히 이 잡지를 찾아내 필자에게 전권 복사본을 보내주셨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표한다.)

27) Tani E. Barlow는 공산당은 단지 생식기의 차이에만 근거하여 양성을 구분했으며, 이러한 구분에 근거해 대부분의 부녀정책은 생리적인 것과 재생산에 관련된 것에 집중되어 있었다고 설명한다(Tani E. Barlow, *The Question of Women in Chinese Feminism*, Durham and London: Duke University Press, 2004, 61쪽).

28) 林紅, 2005, 38-39쪽. 중화인민공화국 임시헌법의 여성문제에 대한 정의와, 解放日報의 평론 등을 그 근거로 하고 있다.

29) 건국 이전에는 石家庄과 같은 작은 도시에서 1948년 1월에 금창이 행해졌고(武舟, 1990, 348쪽), 공산당이 이미 우세해진 1949년에는 哈爾濱에서 4월 21일, 吉林에서 7월에 금창이 실시되었다. 하얼빈시의 경험과 시행착오는 후에 베이징의 금창에 큰 참고가 되었다(林紅, 〈毛澤東時代の

첫 번째는 기원 폐쇄 및 기녀 해방을 중심으로 하는 ‘제도의 폐지’였고, 두 번째는 기녀들에 대한 개조사업 및 사회 복귀사업이었다. 금창을 행한 도시들은 이 두 가지 과정을 모두 거쳤다.³⁰⁾ 기존 연구들은 기원 폐쇄의 시기를 기준으로 금창 방식을 도시별로 다르게 구분한다.³¹⁾ 그러나 이 도시들이 금창을 개시하는 당일, 단 하루밤 사이에 모든 기원을 폐쇄하고 일거에 모든 妓院主 체포·기녀 수용을 집행했다는 점은 공통적이다. 갑자기 체포와 수용을 진행한 것은 기원주와 기녀들이 도망하거나 다른 직업으로 위장하여 음지에서 계속 성산업을 유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다. 수용된 기녀들은 모두 성병 치료와 글자 및 노동 교육 등을 거쳐 결혼이나 구직 등을 통해 사회로 되돌아갔다.

금창을 단행한 첫 번째 도시는 北京市로, 1949년 11월에 이 사업을 시작하여 수용되었던 여성들을 1950년 6월에 출소시킴으로써 마무리를 지었다.³²⁾ 베이징과 같이 건국 직후 재빠르게 단번에 금창을 행한 도시로는 南京(1949년 11월 29일)과 無錫(1950년 1월) 정도가 있다. 이 두 도시들은 기녀들의 숫자가 각각 41명, 300명 정도로 극히 적었기 때문에 곧 쉽게 베이징을 따라 금창을 시행할 수 있었다.³³⁾ 天津과 같은 도시들은 베이징과 달리 건국 이후 시간을 두고 성산업을 제한하면서 어느 정도 금창이 가능한 조건이 되었다고 생각될 때 전면 행동에 들어갔다. 이러한 방식을 채택한 도시들은 대체로 창기의 숫자가 많고, 따라서 성산업에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인구가 많았다는 특징이 있다.³⁴⁾

건국 초기 정부에서 파악 가능했던 베이징의 창기 숫자는 대체로 2000여명 정도였다.³⁵⁾ 이는 베이징보다 2년 늦게 금창을 실시한 上海市의 해방 직후 공창 숫

廢娼運動：その‘成功’と限界を検證する〉，《愛和大學國際問題研究所紀要》108，1997．38-39쪽，55-56쪽.).

30) 武舟，1990，347쪽.

31) 武舟，앞의 책，349-355쪽；談大正，《性文化與法》，上海人民出版社，1998，222쪽；林紅·湯山トミ子，〈賣買春-社會主義下の廢絶，市場經濟下の復活〉，中國女性史研究會 編，《中國女性の一〇〇年：史料にみる歩み》，青木書店，2004，204쪽.

32) 李潤山·毛殿良，〈北京市封閉妓院記實〉，馬維綱，《禁娼禁毒》，警官教育出版社，1993，72-93쪽.

33) 베이징 이전에 금창을 시행한 石家莊도 기녀가 72명，吉林省은 103명 정도였다(楊潔曾·賀宛男，1990，35쪽).

34) 談大正，1998，222쪽；楊潔曾·賀宛男，1990，39-39쪽. 텐진의 기녀들의 숫자는 해방 이전에는 2만여 명이었고，1950년 초반에 2천여 명으로 줄어들었다고 한다.

35) 中共北京市委，〈本市妓女情況和處置方針向中央華北局的報告〉 1949.11.7.，諸羽 編《割除毒瘤：

자인 2227명에 에 가까운 수준이며,³⁶⁾ 오히려 비슷한 시기 금창을 했던 南京·無錫의 기녀 숫자와는 1500여명 이상 차이가 난다. 따라서 건국 직후 금창을 행한 베이징의 사례는 기녀들의 수적 조건의 측면에서 보면 예외적인 것이었다. 이는 베이징에서 신속한 방식의 금창을 채택함으로써 국가가 새로운 시대를 만들 역량이 있음을 보여주면서, 전국에 모범을 보이게 한 것이었다.³⁷⁾ 1950년 1월 中央公安部에서는 <關於封閉妓院的經驗通報>를 각 도시에 전달하여, 각 도시의 금창 사업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베이징의 방식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그 중에서도 上海, 天津, 廣州 등의 대도시 등은 반드시 신중히 처리할 것을 특별히 지적하고 있다.³⁸⁾

상하이시도 텐진과 마찬가지로 기원과 기녀의 숫자가 많았다. 상하이시는 1949년 5월 ‘해방’을 맞은 반면, 전면적인 妓院 폐쇄는 1951년 11월로, 그 사이에는 약 2년 6개월의 공백이 있었다. 상하이시는 이 기간에 직접적으로는 성산업에 대해 제한과 轉業장려, 간접적으로는 반혁명 진압 운동을 통해 객관적 조건이 성숙하기를 기다렸다고 한다.³⁹⁾

여러 통계를 종합해 볼 때, 대체로 상하이시의 ‘公娼’의 숫자는 약 2천 명 정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표1>참조). 그러나 통계에 잡히지 않는 暗娼 및 유사 성판매 인구는 훨씬 많아서 3만에 달했다고 하는 연구자도 있다.⁴⁰⁾ 상하이시는 1951년에서 1958년까지 7513명의 기녀 및 암창을 수용하였는데,⁴¹⁾ 수용

共和國首次禁毒禁娼述實》，中央文獻出版社，1999，21쪽에서 재인용.

36) 楊潔曾·賀宛男，1990，46쪽.

37) Elaine Jeffreys, *China, Sex and Prostitution*, London & New York: RoutledgeCurzon, 2004, 163쪽.

38)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各中央局，分局社會部，直屬市公安局：

茲將北京市封閉妓院的工作及經驗通報如下：

(앞의 一에서 五항 생략)

(六) 北京這樣作，是由於各種條件均成熟，其辦法與經驗隻作各地各城市參考，不可機械搬用。(上海，天津，廣州等各大城市應更慎重處理)

中央公安部，<關於封閉妓院的經驗通報> 1950.1.7. 諸羽 編，1999，24-25쪽에서 재인용.

39) 楊潔曾·賀宛男，1990，11-12쪽(당시 上海市 民政局長 曹漫之의 서문)，40-47쪽.

40) 武舟，1990，352쪽.

41) 楊潔曾·賀宛男，1990，71쪽.

개조한 기녀들의 숫자가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⁴²⁾ 공창이 아닌 私娼이나 暗娼이 훨씬 많아, 상하이는 금창사업에서 텐진보다도 더 오랜 시간을 들었다. 텐진과 마찬가지로 전면적 금창을 행하기 이전까지 기녀들 스스로 전업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면적으로 기원을 폐쇄한 이후에는, 다 수용하지 못한 私娼이나 이후 적발되는 창기들을 때로는 집단적으로 때로는 산발적으로 수용하였다.⁴³⁾

<표1> 상하이시 기원과 기녀 숫자⁴⁴⁾

년도	1947	1947	1949.1.	1949.5.	1950. 5-6.	1951.11.16
기원	862	805	800	525(公娼院 264)	158	72
기녀	1307	2441	4천여 명	2227(公娼 1336)	662	181(+ 私娼1366)

상하이시에서 매년 수용한 여성들의 숫자는 다음 <표2>와 같다. 1955년의 수용 인원이 가장 많았고, 1956년 정도가 되어야 수용 인원이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수용 작업은 1958년이 되어서야 끝났으며, 상하이는 중화인민공화국에서 가장 오랜 시간 금창사업을 벌였다. 상하이시는 통계에 잡히지 않는 수천 명의 사창과 씨름해야만 했다.

<표2> 연도별 수용인원 통계⁴⁵⁾

년도	1951	1952	1953	1954	1955	1956	1957	1958	총계
인원	618	1115	964	1131	1724	875	807	216	7513

42) 林紅湯山トミ子, 2004, 204쪽.

43) 이렇게 수용을 여러 차례 계속 하는 방식을 다시 상하이 방식이라고 구분하기도 한다. 重慶, 武漢, 廣州와 같은 곳에서 이 방식을 채택했다(林紅湯山トミ子, 2004, 204쪽; 武舟, 1990, 352쪽.).

44) 1947년 통계는 上海市警察局統計室 編制, 《36年度 上海市警察局統計年報》중 上海市統計表49, 檔號Q1-18-177; 1948년 통계는 上海市警察局統計室 編制, 《37年度 上海市警察局統計年報》중 上海市統計表42, 檔號Q1-18-182; 1949년 1월은 《文彙報》 1951.11.23. 3면, <上海妓女從此脫離火坑>, 1951.11.24. 3면, <市協商會昨日決議/取締殘存妓院, 解放妓女>, 1951.11.27. 5면, <澈底消滅娼妓制度>; 《新民晚報》, 1951.11.23. 4면, <老閘區妓院‘營業’停止/新生婦女學習生產技能>; 1949년 5월 중 총 숫자는 楊潔曾·賀宛男, 앞의 책, 46쪽, 공창 숫자는 上海市府黨組, <關於本市禁娼的方案>(1951.11.16.) 上海市檔案館 檔號(이하 檔號)B1-2-46; 1950년과 51년 통계는 上海市府黨組, <關於本市禁娼的方案>(1951.11.16.) 檔號 B1-2-46에 근거했다.

45) 楊潔曾·賀宛男, 1990, 71쪽에서 재인용.

상하이시가 이렇게 뒤늦게, 오랜 시간을 들여서 금창을 했던 것은 상하이시의 복잡한 상황에 대한 공산당의 판단에 의한 것이었다. 건국 초 상하이시의 상황은 아래와 같았다. 상하이시는 1949년 당시 중국에서 가장 큰 상업·공업 도시로, 공산당과 인민해방군은 경제 복구를 상하이시의 최우선 사업으로 꼽았다. 다른 사회적 혁명을 성공하기 위해서라도 상하이시의 생산과 상업을 회복해야만 한다는 것이 당의 공식적인 입장이었다. 도시 환경에 그다지 익숙하지 못했던 상하이시 인민정부는 이전에 국민당 정권 아래에서 일했던, 사상적으로 문제가 없는 공무원과 자본가, 기술자, 지식인들은 정부에 협력하도록 하였다.⁴⁶⁾ 베이징이 평화롭게 점령되었던 데 반해 상하이에는 인민해방군이 들어오기까지 5월 12일에서 27일까지 약 보름간의 전투를 거쳤다.⁴⁷⁾ 또 6월에는 타이완 측에서 항구를 폭격했고, 태풍 피해도 있었다.⁴⁸⁾ 사회를 안정시키고 경제를 복구하는 데 공산당이 많은 힘을 쏟을 수밖에 없었으리라 짐작할 수 있다.⁴⁹⁾ 妓院의 상황과 직접적으로 관련해서는, 국민당 시절에 활동하던 폭력조직이 여전히 존재하면서, 많은 기원주나 私娼主와 결탁하고 있었고, 가장 큰 기원들은 폭력조직이 직접 운영하고 있었다. 과거에는 이 폭력조직이나 기원주들이 부패한 국민당 경찰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기녀가 도망을 치거나 주민이 신고하더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⁵⁰⁾ 사람들은 이들을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었다.⁵¹⁾ 따라서 금창사업을 행하기 전에 범죄조직의 뿌리를 뽑는 선행작업이 필요하다고 공산당은 판단하고 있었다.

또한 상하이에는 일정한 직업이나 거처가 없는 游民들이 잇따른 전란을 거치며 유입되어 있는 상태였고, 그 숫자는 정부로서 통제가 불가능한 정도로 많았다. 이들은 1949년 상하이가 갖 ‘해방’ 되었을 때, 전체 550만 인구 중 160만 명이나

46) Gaulton, 1981, 44-45쪽.

47) 《上海700年(修訂本)》, 上海人民出版社, 2000, 88-91쪽.

48) Gaulton, 1981, 45쪽.

49) 福州市와 같은 경우는 타이완과 해협을 끼고 마주보고 있는 위치였기 때문에 국민당 잔존세력을 소탕하고 사회적 불안감을 잠재우기까지 더 오랜 시간이 걸렸다. 푸저우시는 상하이보다 4년 더 늦은 1955년 12월에서야 ‘금창’을 시행했다(林紅, 2005. 3. 48-50쪽).

50) Hershatter, 1999, 292쪽; 1951년 11월 25일의 기원 폐쇄가 이루어진 후, 기녀들의 증언에서도 이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新民晚報》1951.11.27. <逼迫“養女”賣淫 “妓院主”施酷刑>).

51) 上海市公安局, <關於對屢教不改的私娼主處罰的報告>(1950.12.30.), <上海解放初期禁娼史料一組>, 上海檔案館 編《檔案與歷史》2000年 第4期, 중 30쪽에서 재인용.

되었다.⁵²⁾ 공장 가동률이 높아지고 상업이 점차 제자리를 찾아가고, 또한 피난민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캠페인이 전개되면서 1-2년 사이 이 숫자가 어느 정도 줄어들었으나 이 분산정책은 그다지 효과적이지 못했다고 한다.⁵³⁾ 정부는 이들이 ‘국가 경제 건설과 사회질서’를 세우는 데 부담을 준다고 파악했다.⁵⁴⁾ 이들을 수용하고 개조하기 위해 상하이시는 1951년 이후에도 계속 勞動敎養所나 난민수용소 등을 세우는 일을 하고 있었다.⁵⁵⁾ 고향에서 일자리를 찾기 위해 상하이로 왔으나 마땅한 직업을 구하지 못해 부랑자 생활을 하고 있던 유민들 중 많은 수의 여성이 창기가 될 잠재적인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으리라 쉽게 추측할 수 있다.

사회적 안정과 경제 복구를 추진하고 이끌어 나갈 책임을 진 공산당 정권에 대해 상하이 시민들은 오해나 불신을 가지고 있기도 하였으니, 민간의 협조 속에 금창사업을 추진하기까지에는 많은 노력이 필요했다. 1949년 5월 25일, 상하이에 인민정부가 세워진 이후에도 “공산당은 經費를 낭비하여 (돈이 필요해) 기녀를 잡아다 (사람들에게) 파는데, 어리고 예쁘면 1500원에 팔고, 못생기면 300원에도 판다”느니, “인민해방군이 타이완을 공격할 때 기녀들을 밧줄로 묶어서 전선에 내보내 지뢰를 밟아서 길을 내도록 할 것이다”는 등의 소문이 돌았고, 이로 인해 창기들 사이에 정부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다고 한다.⁵⁶⁾ 1951년에 이르기까지 기원주들은 인민정부가 기원을 폐쇄하겠다고 직접 통지를 했을 때에도, 여전히 국민당이 돌아올 것이라고 믿고 있는 자들도 있었고, 그래서 기녀들에게 어차피 국민당이 돌아올테니 轉業을 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⁵⁷⁾ 1950년부터 ‘抗美援朝’ 운동은 정치적 동원의 중요한 주제가 되었는데, 기녀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그녀들을 잡아서 조선으로 간 지원군을 위안하러 보낼 것이라는 유언비어도 돌았다.⁵⁸⁾

52) 《上海700年(修訂本)》，上海人民出版社，2000，90쪽.

53) Gaulton, 1981, 46-47쪽.

54) 上海市人民政府民政局，〈一九五五年收容改造游民工作計劃要點〉(1955. 3.) 檔號 B2-2-27.

55) 上海市人民政府民政局，〈呈送通州路勞動生產敎養所編制表乙份請審核批覆由〉(1951.1.27.) 檔號 B24-2-124; 上海市人民政府民政局 〈爲成立第三第四勞動生產敎養所，請予核准由〉(1951.4.21.) 檔號 B24-2-124; 그 밖에 신문기사 《新民晚報》1951.2.26. 4면, 〈久隳風塵瀕絕境/妓女得救慶更生〉; 《文彙報》1951.1.27일 3면 〈妓女翻身 雙目復明 夫婦失和 賭博害人〉. 이 두 건을 보면 1951년 초에 南市的 新橋路에 亂胞病民收容所가 개설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56) 叢繼禹·陳關福，〈舊上海的娼妓制度和解放后的禁娼〉，馬維綱 編，《禁娼禁毒》，警官教育出版社，1993，20쪽.

57) 《文彙報》1951.11.23. 3면, 〈妓女們跳出了千年苦海〉.

심지어는 기원을 폐쇄하던 1951년 11월 25일 밤에 길에 있는 暗娼들을 트럭에 실어 수용소로 데려오자, 금창을 위한 조치인 줄 모르는 어떤 사람들은 이를 보고 공산당들은 외국 군대처럼 기원을 데리고 다니지 않고 아무데서나 부녀들을 잡아서 軍妓로 쓴다고 욕하기까지 했다고 한다.⁵⁹⁾

경제회복과 사회 질서 유지, 시민들의 불신 극복 등의 과제를 안고 있던 상하이시는 금창 이전 2년여 간 계속 기원과 ‘기녀’들에게 영업허가증을 발급하고 세금도 받는, 公娼制를 유지했다. 공안국은 《管理妓院妓女暫行規則》에 의거하여 기원영업허가증을 발부했다. 이 허가증에는 기원주의 성명과 연령, 본적, 주소를 적고, 또한 기원의 명칭, 주소, 등급 등을 적게 되어 있다. 증의 유효 기간도 있어, 정기적으로 재등록이 이루어졌다.⁶⁰⁾ 공문서에서도 여전히 ‘공창’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공창’을 ‘사창’과 분명히 구분하여 사창에 대한 대책은 따로 세웠다.⁶¹⁾ 일본이 전쟁에서 패한 뒤 1945년 상하이로 돌아온 국민당 정부가 일종의 공창제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1949년 5월 25일 세워진 인민정부는 공창이었던 기원과 기녀들을 그대로 공창으로 유지시킨 것으로 보인다. 이 당시 일부 간부들은 즉시 금창을 행하지 않고 기원과 기녀들을 그대로 두는 것에 대해 심한 불만을 갖고 있었다.⁶²⁾

기존 연구에서 인민정부하의 공창제는 단지 기원의 숫자를 줄이기 위한 ‘과도기’로만 다루어지고 있다. “기원은 곧 구 통치자들이 부녀의 정신과 육체를 손상시키고 부녀의 인격을 모욕하는 야만적인 제도의 잔여”라고 규정했던 중국 정부로서 창기제도는 반드시 없애야 하는 것이었다.⁶³⁾ 따라서 정부가 기원 운영을 합

58) 上海市政府黨組, 〈關於禁娼工作初步情況彙報(草稿)〉(1951.12.) 上海檔案館 編 앞의 기사 33쪽에서 재인용.

59) Hershatter, 1999, 312쪽, 주 20번의 曹漫之 당시 민정국장의 회상.

60) 필자가 2005년 10월 30일 상하이시 公安博物館에 방문했을 때, 상하이 해방 후 상하이시정부에서 기원과 기녀들에게 발급한 허가증을 전시한 것을 볼 수 있었다. 전시된 허가증의 유효기간은 1949년 10월 1일부터 1950년 4월 30일까지였다.

61) 上海市公安局, 〈關於目前處理私娼辦法的報告〉(1950.12.2)와 上海市公安局, 〈關於對屢教不改的私娼主處罰的報告〉(1950.12.30.). 문서 제목에 이미 ‘사창’과 ‘사창주’가 명시되어 있다. 上海檔案館 編, 2000年 第4期, 29-30쪽 에서 재인용.

62) Hershatter, 1999, 307-308쪽; 楊潔曾·賀宛男, 1990, 11쪽.

63) 北京市第二屆各界人民代表會議, 〈關於封閉妓院的決議〉(1949.11.21.), 諸羽 編, 1999, 20쪽에서 재인용.

리화하는 공창제도를 2년 반이나 운영했다는 것은 인정하고 싶지 않은 사실이며, 정부의 노력으로 모든 창고가 사라졌다고 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었다. 이제까지의 연구는 이 공창제 유지기간 동안 기녀의 숫자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중심으로 서술하면서, 공창제를 어떻게 운영·지속했는가에 대해서는 살피지 않고 있다.⁶⁴⁾ 중국에서 1920년대부터 생겨난 공창제의 양상을 살펴보면, 인민정부가 운영한 공창제가 이전 시기의 공창제와 분명한 연속선상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1949년 이전 중국의 공창제

중국에서는 1924년, 北京정부가 전국적 범위의 기원에 대한 영업증을 발부하겠다고 한 이후 근대국가에 의한 공창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⁶⁵⁾ 중국에서 공창이란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며, 세금을 납부하는 기원이나 기녀를 일컫는 것이었다. 서구에서는 19세기 초반 제국주의 군대가 식민지에서 성 구매를 하고, 이 군인들에게 성병이 없는 여성들을 제공하기 위해 국가에서 군인들을 상대하는 매춘 여성들에 대해 성병검진을 하면서 공창제도가 생겨났다.⁶⁶⁾ 이러한 서구 국가의 성매매 관리는 나중에는 식민지로 확대되었다.⁶⁷⁾ 그 이후 일본에서도 국가에 의해 유곽이 세워지고 강제 성병 검진이 이루어지는 공창제가 생겨났다. 중국의 공창제는 군인 보호나 성병 통제를 위한 것이었다기보다는 이미 민간에 의해 세워진 기원에서 세금을 걷고, 세금을 내지 않는 私娼을 단속하는 형태였다.⁶⁸⁾ 이 점에서 중국의 공창제는 군대위안과 성병관리를 기축으로 하는 제국주의 국가의 공창제와는 달리 稅收 확보를 위한 것이었다고 보는 연구도 있다.⁶⁹⁾

성병 관리에 대해서는 1930년대 중국의 위생행정에 관한 최근 연구를 참조해볼

64) 叢繼禹·陳關福, 1993; 楊潔曾·賀宛男, 1990.

65) Hershatter, 1999, 253쪽.

66) 캐슬린 배리, 2002, 123-124쪽.

67) 후지메 유키(藤目ゆき), 2004의 1장 <구미 공창제와 폐창운동> 참고.

68) 武舟, 1990, 305-310쪽.

69) 林紅, 2005, 3-5쪽.

수 있는데, 1920년대 후반부터 이미 北平市 정부에서 기녀들의 성병 검진을 하기 시작하였으며, 이것이 1930년대 후반까지 지속되면서, 강제 검진과 검진을 따르지 않는 기원에 대한 불이익 조치도 취하고 있었던 점이 밝혀졌다.⁷⁰⁾ 이러한 강제 검진은 베이핑만의 사례이긴 하나, 정부가 성매매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성병 통제에 개입하고 있었다는 점을 보면, 당시 유럽이나 일본의 공창제도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수십 년간 전쟁이 그치지 않았던 중국의 상황에서 유럽과 일본의 근대적 공창제의 특징인 군대위안과 성병관리라는 점이 중국의 공창제에서도 중요한 측면으로 떠오르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상하이에서는 유럽 열강이 머물렀던 공동조계지역에서 1920년대에 이미 성병검진을 시작하였다. 이 성병검진 및 기원 등록 조치는 당시 상하이에 있던 서구도덕 운동가들의 주도하에 폐창운동이 진행되면서 등장한 것으로, 국가가 기원과 기녀들을 통제하길 요구함으로써 폐창운동이 사실상 공창제를 만들어낸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공창화 방안이 실시되자, 공동조계의 기녀들과 기원들이 프랑스 조계나 조계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으로 이주하거나 暗娼化하면서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⁷¹⁾ 1929년부터는 국민당도 상하이의 기원에 대한 징세를 시작하였다. 1928년 南京정부가 성립되고, 정부는 江蘇, 浙江, 安徽 세 성에서 금창을 실시하였고 이어 南京, 蘇州, 鎮江에서도 금창이 이루어져 이 지역의 기녀들이 상하이로 이동해 오게 되었다. 상하이의 조계지는 성정부의 관할이 아니었음에도 국민당 정부가 기녀들에게 납세를 요구하였는데, 기녀들은 다른 지역의 금창에 자극받아 오히려 세금을 자진해서 냈다고 한다.⁷²⁾

1945년 일본의 패전 이후 상하이에 돌아온 국민당 정권은 궁극적으로는 폐창을 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실질적으로는 폐창도 통제도 어느 것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국민당 정부는 폐창을 위한 준비단계로 다음 세 가지 방안을 마련했다. 사창들을 모두 공창화, 즉 등록하는 것[化私爲公], 각종 성매매 형태를 기원이라는 한 가지

70) 辛圭煥, 《1930년대 북평시정부의 위생행정과 ‘국가의료’》, 연세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박사학위 논문, 2005, 제3장 北平市政府의 傳染病對策과 空間統制, 113-146쪽.

71) Hershatte, 1999, 321쪽; [法]安克強(Christian Henriot), 袁燮銘·夏俊霞 譯, 《上海妓女: 19-20世紀中國的賣淫與性》, 上海古籍出版社, 2004, 323-335쪽.

72) Hershatte, 1999, 287-288쪽.

형태로 간략화하는 것[化繁爲簡], 성매매 집결지를 만드는 것[化零爲整]이다. 허가증을 받은 기원과 기녀에게 세금을 물리고, 기녀들로 하여금 성병 검진을 받게 하자, 무허가 기원과 기녀들이 생겨났다. 또한 “예술을 팔지 몸은 팔지 않는다”는 고급 기녀인 ‘書寓’들은 자신들에게까지 성병검진을 의무화하는 것에 대해 항의하는 편지를 보냈다. 성매매 지정 구역으로 정해진 곳에 사는 주민들은 거주지 근처의 밤거리가 소란해지는 것에 대해 분노하여 수많은 편지를 경찰에 보냈다. 성병 검진도 시행되었으나 강제할만한 방법이 없었고, 성병에 걸린 기녀들을 치료할 수 있는 역량도 없었다. 나중에 기녀들을 위한 구제시설인 “上海市救濟院婦女教養所”가 경찰 측의 책임 아래 문을 열었다. 단 64명의 기녀들을 수용할 수 있었는데, 수용된 여성들이 도망가거나 불량배들이 찾아와 자신들이 그 여성들의 친척이라고 속여서 데리고 나가는 등의 일이 벌어졌고, 시설도 매우 낙후했다.⁷³⁾ 이렇게 명실상부한 공창제 운영은 불가능했지만, 정부의 정책 아래 공식적으로 상하이에 주둔한 미군들을 상대로 하는 기원들이 존재했으며, 성매매 영업 제한 구역을 세우고 성병 검진을 위해 性病防治所를 세워 위생국 직원들을 배치하고 있었던 것이다. 중국에서 20세기 초반에는 稅收를 중심으로 공창제가 만들어졌으나 점차 성병 검진이 공창제의 중요한 측면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19년 五四運動시기부터 시작된 창기문제에 관하여 신문이나 잡지 상에 실린 논쟁은 대부분 구체적인 해결방법을 모색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중국의 낙후성과 사회적 병폐를 창기제도와 연결시켜 설명하는 것이었다. 이런 논쟁들은 점차 발전하여 정부를 통해 창기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움직임이 생겨나게 되었다. 1930년대에는 국민당이 실시하는 공창제도에 대한 논쟁과 저항이 그치지 않고 일어났다. 한 예로 1933년에서 34년까지 南京婦女協會는 공창을 없앨 것을 시장에게 청원하였다. 그러나 시장은 기녀들이 방탕해서 창기제도가 생겨나는 것이고, 이것은 세계 어디나 마찬가지라며 거절했다.⁷⁴⁾ 1947년 3월에는 난징시의 參議會에서 금창과 사창에 관한 격론이 벌어졌다. 창기제도를 인정하는 쪽과 반대하

73) 이상의 1945-1949년 상하이의 상황에 대해서는 Hershatte, 1999, 288-303쪽 및 [法]安克强 (Christian Henriot), 2004, 357-364쪽 참고.

74) Hershatte, 1999, 263-264쪽.

는 쪽이 맞붙었는데, 이 자리에서 창기제도를 인정하고자 하는 쪽 조차도 함부로 “公娼”이라는 단어를 꺼내지 못하여, 공창제를 유지하자는 말을 시기를 두고 조금씩 도태시키자고 돌려서 말했다고 한다.⁷⁵⁾ 신문지상에는 정부가 공창을 만들어 姦通을 장려한다는 비판,⁷⁶⁾ 국민당의 고관대작들이 기원에 드나들면서 기원 영업이 날이 갈수록 번영하고 있다는 비판 등이 실리곤 했다.⁷⁷⁾

1920년대부터 시작된 공창제와 이를 둘러싼 폐창론은 모두 궁극적인 목표를 창기제도의 폐지로 내세우고 있었으나, 실제로 창기제도를 폐지하는 구체적인 방식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특히 국민당 정권은 기원과 기녀들에게서 계속 세금을 거두는 데 노력하고, 성병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등, 도리어 공창제를 확립하는 데 더 힘을 쏟고 있었다. 게다가 국민당 관료나 경찰들이 기원주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기원의 주된 고객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정부의 창기제도 폐지를 향한 의지나 실제로 폐지할 수 있는 능력을 민간에서는 계속 의심스럽게 여겼다.

1949년 5월 인민해방군이 상하이시에 들어와 인민정부가 수립된 이후, 계속 공창제가 유지되고 있던 것에 대해서는 민간의 강한 부정적 반응을 찾기는 쉽지 않다. 베이징과 난징 등지에서 금창이 이루어졌다는 소식이 들려온 이후 《新民晚報》에는 상하이시가 수도의 금창을 본받아 기원폐쇄 사업을 서둘러야 하는가에 대한 논쟁이 실렸다. 금창을 서둘러야 한다는 측은, 상하이의 식민지화가 전국에서도 가장 심하여 각종 반동분자들이 향락을 즐기고, 기녀들의 숫자도 가장 많았으며, 따라서 기원 안에서 이루어지는 기녀들에 대한 착취도 가장 끔찍하기 때문에 하루빨리 금창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⁷⁸⁾ 한편 이에 반대하는 사람은 아직 구체적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금창을 하는 것은 결국 공창을 줄여 사창을 늘리는 셈이 된다고 반박하였다.

...(전략) 따라서 나의 이 문제에 대한 의견은 이러하다 : 첫째로, 우리는 전력을 다

75) 《新民晚報》1947.3.31. <首都市參議會 對娼妓兩派意見>.

76) 《新民晚報》1947.10.3. <娼妓制度下的通姦>.

77) 《新民晚報》1946.5.20. <娼妓的保障者是誰>.

78) 《新民晚報》1949.11.24. 牧英, <趁早禁娼吧>.

해 새로운 상하이로 건설하고 생산을 증가시키고 실업을 감소시켜, 다시는 실업(혹은 농촌에서 온) 부녀들이 악의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두 번째로, 전적으로 선전교육을 행하여 사회적 분위기를 변화시킴으로써 사람들이 돈을 사용해 여성의 육체를 사는 이러한 행위를 크나큰 치욕으로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 세 번째로, 더욱 급박한 것은 사회 전체의 역량을 동원하여 돈을 모아 창기들의 훈련반과 공장 등을 열어, 정부가 금창을 위한 준비 공작을 완성하도록 협조하는 것이다. 만일 이러한 것들이 미리 준비되지 않는다면, ‘하루 빨리’라는 호언장담은 반동과 시대의 금창이라는 전철을 똑같이 밟을 큰 위험이 있다.⁷⁹⁾

위에 인용한 의견은 상하이 정부의 입장과 거의 일치한다. 정부의 공창제 유지 정책에 대해 커다란 저항이 없는 것은 단지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당시 상하이에 그러한 의견을 낼만한 단체나 개인이 없었는지, 그것도 아니라면 정부 정책에 비판을 가할 자유가 없었기 때문인지는 지금으로서는 확인할 수 없다. 그러나 적어도 창기제도를 정부가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이 있는 상태에서 공산당은 상하이시를 접수하였고, 그 여론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었다는 점은 분명하다.

(3) 공창제의 실시

상하이시의 공창제는 1949년 6월 전 시의 기원에 대한 등록과 심사로부터 시작되었다. 이 당시 정부가 처음으로 내린 규칙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기원에 받을 들여놓는 모든 매춘객들은 반드시 성명, 직업, 주소를 기록해야만 함, 매일 공안국 기관에 이를 보내 비치한다.
- (2) 공무원과 신분이 불명확한 자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 (3) 성병이 있는 기녀는 객을 접대해선 안 된다.
- (4) 길거리에서 기녀들의 호객행위를 금지한다.
- (5) 규정을 위반한 사람은 누구든지 누범이면 가중 처벌을 하는 엄격한 처벌 조치

79) 《新民晚報》1949.11.29. 佩芝, 〈禁娼的條件〉.

를 실행한다. 즉, 처음으로 규정을 위반하면, 기원주와 기녀에 대해서는 따로따로 경고와 교육을 하고, 두 번째 수색하여 적발되면 벌금을 가하는데, 기원주에 대해서는 기녀의 3배의 벌금을 내게 하고, 매번 적발될 때마다 앞 번의 금액에 더하여 벌금을 내게 한다.⁸⁰⁾

(2)-(4)번 조항은 국민당 정부가 공식적으로 취했던 조치와 큰 차이가 없다.⁸¹⁾ 공산당 정부의 가장 큰 특징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첫 번째 규정으로, 곧 소위 “매춘객 귀찮게 하기[麻煩嫖客]” 방법이다. 몇몇 중국의 연구들은 금창 과정에서 “매춘객 귀찮게 하기”로 매춘의 수요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었으며, 이것이 창기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식이었다고 설명한다.⁸²⁾ 이 조치는 기원의 주인들에게 기원에 머무르는 손님들의 이름, 직업, 연령, 주소 등을 적게 한 후, 이것을 파출소에 정기적으로 넘겨주어 신상을 확인하며, 소속되어 있는 직장이나 학교에 알림으로써 매춘객들을 교육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때로는 경찰 측에서 직접 교육을 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매춘객들이 부끄럽고 번거롭게 느끼도록 만들어 기원에 발길을 끊게 만드는 것이 정부의 의도였다.

이 방법은 이전까지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매춘객들의 행위를 성매매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 가시화시켰다는 점에서 획기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III장 2절에서 자세히 소개하겠지만, 20세기 초반부터 중국에서는 창기제도를 축첩과 같은 ‘남성들의 악습’ 중 하나로 비판해온 목소리가 존재했다. 공산당은 이러한 비판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정책에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고를 확장해본다면, 정부가 ‘남녀평등’이나 ‘부녀해방’을 위해 남성들의 행동의 변화도 중시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인민정부가 기원과 관련해 첫 번째로 정한 규칙 중에서도 첫 번째 조항이 매춘객에 관한 것이었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해 준다.

그러나 위의 조치에 이어 1949년 7월에 공안국이 제정한 《管理妓女妓院暫行規則》에는 매춘객 관련 조항이 빠져 있다. 그 내용을 보면 기원(주)과 기녀들의 행

80) 叢繼禹, 陳關福, 1993, 20쪽.

81) 국민당 정부의 기원 관련 조치들은 [法]安克強(Christian Henriot), 2004, 358-359쪽 참고.

82) 馬維綱 編, 《禁娼禁毒》, 警官教育出版社, 1993, 9쪽; 張峰, 〈武漢市取締娼妓的鬭爭〉, 《武漢文史資料》, 1999. 1, 43쪽. ‘매춘객 귀찮게하기’ 방법은 중국 내 다른 모든 도시에서도 금창을 위해 취했던 방법이다.

위를 제한하는 내용이 상세하게 추가되었고, 그 외에는 기녀들이 언제든지 자유롭게 기원을 떠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조항이 추가되었다. 다음은 이 규칙의 내용이다.

- (1) 일체의 군인·정치국원 및 공무원들에게 대한 접대 유혹을 금지한다.
- (2) 나이가 만 20세 이하인 자 혹은 심신이 불건전한 방탕한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을 금지한다.
- (3) 아편이나 기타 마약류를 판매·보존·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 (4) 신원불명자나 위조신분증을 소지한 자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 ((5)-(8)조 기원 내 금지 사항 생략)
- (9) 기녀들이 손님과 외박하는 것을 금지한다.
- (10) 병든 기녀가 손님을 받는 것을 금지한다.
- (11) 유괴 및 인신매매를 금하며, 18세 미만의 기녀가 손님을 받는 것을 엄금한다.
- (12) 기녀가 길에 서서 손님을 끌어서는 안 된다
- (13) 기원주는 기녀들이 손님을 받도록 학대하거나 강제하면 안 된다
- (14) 기원주와 기녀 사이의 일체의 계약을 파기한다. 만일 기녀가 기원에서 나가고자 한다면 기원주는 무조건 그 자유를 허가해야 한다.⁸³⁾

(1), (2), (4)와 같은 조항들은 어떤 매춘객은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함으로써 부적절한 성 구매의 책임을 도리어 기원주나 기녀들에게 돌리고 있다. 그 밖의 (9)에서 (12)번까지의 조항들은 국민당 정부에서도 규정했던 것이다.⁸⁴⁾ 이 규칙에 따르면, 기녀들이 길에서 손님을 끌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기녀들은 단지 기원으로 찾아오는 손님만을 받을 수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성매매의 가장 적극적인 행위자는 기원으로 찾아가는 행위를 하는 매춘객이 된다. 그런데 이 조항들은 매춘객의 신분에 대한 책임까지, 수동적인 위치에 있는 기원이나 기녀들에게 지우고 있다. “매춘객 귀찮게 하기” 관련 조항은 이 규칙에서는 사라졌지만, 1950년 9월

83) 楊潔曾·賀宛男, 1990, 41-42쪽.

84) 상하이시인민정부가 성병 관리를 했는지 필자가 확인할 수 있는 문서도 없었고, 이에 대한 기존의 연구도 없기 때문에, 성병이 있는 기녀가 손님을 받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 어떤 방식으로 관철되었는지는 확인 할 수 없다.

에 제정된 《目前處理私娼辦法》에서 다시 비슷한 조치를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춘객의 행위를 제한하고자 하는 노력이 이미 인민정부 수립 초기부터 흔들리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규칙에는 기원의 기녀에 대한 인신 구속 완화를 추구하는 (13)번 (14)번 조항이 추가되었다. 그러나 이 조항이 있다고 해서 바로 기녀들에게 기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유나 경제적 조건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었다. 국민당 역시 기녀 학대를 금지한다고 했지만, 실제로 기녀들의 안전을 보장하지 않았다. 인민정부는 기본적으로 전업을 장려한다는 태도는 갖고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장려했는지 알 수 없다. 정부의 관리에서 벗어난 사창의 경우에는 많은 수가 10대 후반으로 어렸고, 포주나 기생어미와 양부모의 관계를 맺은 상태에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혼 할 상대자를 만나거나 정부의 단속에 걸리지 않는 한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독립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⁸⁵⁾ 정부가 기녀들의 轉業을 지지한다고 하더라도 기녀들이 곧바로 전업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⁸⁶⁾

이렇듯 매춘객에 대한 교육이나, 기녀들의 전업을 돕기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했는지는 미지수이지만, 적어도 기원과 창기들에 대한 단속을 시행하고 있었음은 알 수 있다. 이러한 단속은 기녀들을 해방하거나 성매매를 근본적으로 근절하기 위한 조치라기보다는 기녀들을 눈에 보이지 않는 곳으로 몰아내고 체포하는, 범죄자를 대하는 것과 같은 태도를 보여준다. 1949년 7월 하루는 老閘區의 公安分局에서 하룻밤사이에 백 명에 이르는 기녀와 손님 끄는 것을 돕는 부녀들을 붙잡았다고 한다.⁸⁷⁾ 嵩山지역에서는 사창들이 증가하고 작은 여관들이 많아 지역 공안분국은 1949년 말, 사창들의 사진을 찍어서 각 유곽에 배포하기로 결정하였다. 유곽

85) 기녀들과 기원주 사이의 관계는 1951년 11월 기원 폐쇄·기녀 수용 이후에도 끊어지지 않아서, 서로 몰래 계속 연락을 취하거나 자식을 양부모(곧 기생어미·포주)에게 맡겨두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Hershatzer, 1999, 315-316쪽).

86) 楊潔曾·賀宛男에 따르면, 1949년 7월 9일 상하이시 인민법원이 설립된 후 창기들이 기원에서 나가 결혼하거나 다른 직업을 찾고자 한다면 기원주는 몸값을 요구할 권리가 없고, 그들의 물건도 모두 내주어야 하며, 포주가 창기들의 갱생을 방해하면 의법 처리를 할 수 있다고 신문지상에 발표하였다(楊潔曾·賀宛男, 1990, 40-41쪽). 2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후, 일부 기녀들은 이러한 정부의 태도 아래에서 성매매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되었다. 그 예는 다음 절에서 볼 것이다.

87) 《新民晚報》1949.7.11. 2면 〈妓女街頭拉客 昨有百人被拘〉. 이 기사에 따르면 이전에는 잡힌 기녀에게 초보적인 훈계와 교육을 하고 돌려보냈던 데 반해, 이제는 새로 생긴 규칙으로 기원주도 소환하여 교육하고, 벌금을 물리고 그 벌금을 기녀에게 전가하지 않도록 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나 여관에서 그 여성들이 사창인 줄 몰랐다고 발뺌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행한 조치였다. 이 사진 찍는 비용은 遊客들이 부담하게 하고, 만일 사창이 또 다시 활동할 경우, 그 사진을 공공장소에 걸어두기로 하였다.⁸⁸⁾ 이러한 조치는, 기원주·台基主나 매춘객보다는 ‘기녀’·‘창기’에 대한 처벌과 낙인의 성격이 강하다.⁸⁹⁾ 비록 적발된 사창이 공안국의 교육을 거쳐 다른 직업을 찾고자 하더라도 이미 자신의 사진이 ‘사창’이라는 이름으로 배포가 되었다는 것은 그 여성들에게 위축감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으리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사창들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은 공창제 운영기간 내내 이루어졌으며, 근본적으로 성매매를 감소시키기보다는 가시적인 효과만을 추구한 것이었다.

창기들에 대한 수용도 일부 행해졌다. 1949년 11월에는 民政局이 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받아 太興路 601호에 ‘부녀생산교양소’를 설립했다. 규모는 크지 않아 주로 갈 곳이 없이 길에서 유동하는 사창들 400명을 수용하였다.⁹⁰⁾ 상하이시에는 이 생산교양소 외에도 游民을 수용하는 여러 개의 수용소가 세워졌다. 길에서 구걸하거나 손님을 끌다가 공안국 요원에 의해 수용소로 보내진 여성들에 대한 기사들이 가끔 보이는 것을 보면, 이러한 수용소들이 간헐적으로 체포된 여성들이나, 기원에서 도망쳐 나온 여성들을 1951년 11월까지 받아들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수용의 경험은 1951년 11월 이후 정부의 대규모 기녀 수용에 도움이 되었다.

상하이시는 공창들이 계속 정부로부터 영업증을 발부받게 하여 정부의 통제권 아래 두는 상태에서 성산업을 축소시키고자 했다. 1946-49년 사이에 국민당이 공창제를 추진했던 것도 같은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국민당은 공창이 사창화되는 것을 막지 못하였고, 이는 정부의 무능력으로 비춰졌다.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인민정부의 공안국은 까다로운 심사를 거쳤다고 한다.

88) 《新民晚報》1949.12.20. 4면 <嵩山分局取締私娼 如果再犯公布照片>.

89) 태기주는 여관 등을 개설하여 기녀와 매춘객이 머무를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는 사람이다. 이들은 보통 장소만을 제공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몇몇 ‘기녀’·‘창기’와 계약을 맺어 고정적으로 영업을 하며 수입을 나누었다. 林紅, 〈建國初期の社會再編における賣買春の實態: 中國福州市で逮捕された, ある「台基主」に對する聞き取り調査〉《中國研究月報》57(10), 2003. 10 참고, 상하이 공안국은 이 태기주들도 기원주나 마찬가지로 보아 이들에 대한 단속에 적극적이었다.

90) 上海市府黨組, <關於本市禁娼的方案>(1951.11.16.) 檔號B1-2-46; 叢繼禹·陳關福, 앞의 책, 21-22쪽.

공안국은 기녀와 기원이 영업증을 반납하는 것에 대해 절대 무조건 동의하지는 않고, 조건에 맞춰서 심사하여 결정한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녀의 영업증 반납은 반드시 서류를 발행하여 증명한다. 결혼하는 사람은 반드시 실제로 상대를 찾은 것이 확실하여야 하며 매독 등의 성병이 없어야 하고, 동시에 약혼자가 직접 증명해야 한다. 만일 전업한다고 하면 반드시 전업 증명서가 있어야 한다. 고향에 돌아가는 사람은 또한 반드시 문건과 보증인으로 증명해야 한다. 기원의 경우에는 첫째, 반드시 기원 안에 기녀가 없어야 하며(즉 모든 기녀들은 영업증 반납 수속을 마쳐야 한다), 둘째, 보증인을 구해서 영업증 반납 이후에 절대로 다시는 남몰래 사창기원 영업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기녀가 영업증을 반납한 후에 다시 사창으로 전락하지 않고 기원이 영업증을 반납한 후에 몰래 사창의 교역소로 변하지 않도록 보증한다.⁹¹⁾

정부가 가장 염두에 두고 통제하고자 했던 이들은 기원주나 인신매매업자들이었다. 공안국은 1950년 9월, 기원주와 태기주를 중점적으로 공격하는 <目前處理私娼辦法>을 정하였다. 시정부의 비준을 얻은 후, 사창주와 태기주, 사창과 매춘객 각각의 상황을 조사하여 알아내어, 교육, 잘못을 뉘우치는 서약서 제출, 벌금, 구류, 수용 후 교양 등으로 처리하였다. 1950년 말에는 연인원 627명의 사설 기원주 및 태기주를 처리하였고, 연인원 7667인의 사창과 매춘객을 처리하였다고 한다.⁹²⁾

<目前處理私娼辦法>을 통해 공안국은 가장 우선적으로는 ‘창기’가 길에서 고객을 끌지 못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사설기원주, 태기주, 중개자(심부름꾼이나 망보는 사람 등을 포함), 사창, 매춘객들을 각각 나누어 다른 기준으로 처리하였다.⁹³⁾

91) 《文叢報》1949.11.27. 2면, <在進步健康社會里枯萎了/上海的妓院和妓女>.

92) 叢繼禹·陳關福, 1993, 22쪽. 사창과 매춘객이 각각 몇 명이었는지는 알 수 없다.

93) 上海市公安局, <關於目前處理私娼辦法的報告> (1950. 12. 2) 중 일부 내용을 여기에 소개한다 (<上海解放初期禁娼史料一組>, 上海檔案館 編《檔案與歷史》2000年 第4期, 29-30쪽에서 재인용).

(2) 당장의 사창처리 방법

甲. 거리에 서 있는 창기를 단속한다.

거리에 서 있는 창기가 집중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큰 길에서 고객을 끄는 현상을 단호

자세히 살펴보면, 적발된 기원주와 태기주에게 구류나 벌금을 매기고, 중개자나 심부름꾼 등에도 가벼운 처벌을 내렸다. 특히 기원주에 대해서는 사정이 심각한 자를 노동교양소로 보내 개조하는 방안까지 적용하였다. 사창에 대해서는 처벌보다는 교육과 설득이 우선했고, 눈에 띄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다. 매춘객에 대해서도 교육을 하고 소속 단위에 통지하는, 앞서 보았던 “매춘객 귀찮게 하

히 일소하고 길거리의 창기들이 비교적 적은 지역에서도 주의를 기울인다.

乙. 중점을 두고 처벌

1) 사설기원원주(사창 막후의 주재자)

- ① 초범은 교육하여 서약서를 제출하거나 보석하는데, 더불어 사정을 참작하여 사창을 고향으로 돌려보낼 수 있다.
- ② 재범은 3일 이상 10일 이하의 구류 혹은 3만 원 이상 1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 ③ 상습범으로 고치지 않으면서 그 정황이 심각한 자는 자료를 모아 민정국의 윤허를 얻어 노동교양소로 보내 개조한다.

2) 사창을 머무르게 하는 자(전문적으로 경영하는 台基主를 가리킴)

- ① 초범은 교육하여 서약서를 제출하여 보석하고, 더불어 사정을 참작하여 사창을 고향으로 돌려보낼 수 있다.
- ② 재범은 이틀 이상 7일 이하의 구류에 처하거나 2만 원 이상 7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더불어 사정을 참작하여 사창이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협조하게 한다.
- ③ 누범으로 개선되지 않으나 정황이 경미한 자는 사정을 참작하여 3일 이상 10일 이하의 구류에 처하거나 3만 원 이상 1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정황이 심각한 자는 자료를 모아 민정국의 허락을 얻어 노동교양소로 보내 개조한다.
- ④ 여관에서 사창을 유숙하게 한 자로서 본 조항에 적용할 수 없는 경우는 旅館業暫行罰法規定의 경찰범으로 처벌한다.

3) 사창 媒合(중개)자(螞蝗, 손님 데려오는 하녀, 망보는 심부름꾼 등을 포함함)

- ① 상황이 경미한 자는 교육하여 석방한다.
- ② 상황이 비교적 중한 자는 정상을 참작하여 1일 이상 3일 이하의 구류에 처하거나 1만 원 이상 3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 ③ 여관의 망보는 일꾼이나 중개자는 職工會를 통하여 조직 교육을 진행할 수 있다.

4) 사창

- ① 집안 형편이 비교적 좋은 사창은 최대한 설득 교육하며, 가족이 있는 자는 상황을 참작하여 그 가족에게 통지하고 보증서를 받는다.
- ② 매음을 하지 [않으면] 확실히 생활이 불가능한 사창은 ‘다그치는’ 방법을 사용하여 길가에서 손님을 끄는 것을 단호히 금지한다.
- ③ 집에 살면서 길거리에서 손님을 끌지 않는 자는 일반적으로 잠시 관리를 멈추고 개별 시민 고발을 거친 자는 정상을 참작하여 경고하거나 처벌한다.

5) 사창과 간음하고 자는 자(사창 매춘객)

- ① 일하는 곳이 있는 자나 어떠한 단체에 속해 있는 자는 그 증명문서를 떼껴 써서 처벌하면 교육하고 보증서를 받는다.
- ② 재범은 사정을 보아 서면으로 그 일하는 처나 속한 단체에 통지하여서 교육회개의 목적에 다다르도록 한다.
- ③ 공창원 내에 사창이 손님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원주를 처벌하나 고객은 처벌하지 않는다.

기” 조치로 처리했다. 매춘객에 대한 조항 중 마지막에는 “③公娼院 내에서 사창이 손님을 받은 경우, 그 기원주는 처벌하나 고객은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였다. 이것을 보면, ‘공창’과 상대하는 매춘객에 대해서는 제재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곧, ‘매춘객 방해’ 조치는 상하이에 아직 ‘공창’이 존재하고 있을 때에는, ‘사창’과 관계한 매춘객에게만 적용됐다.

기원주에 대한 처벌은 점차 강화되고 있었다. 한 공문서에 따르면, 공안국은 사회적으로 경제가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문적으로 사기와 유괴를 하여 소녀들을 사창으로 만드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사창이 줄지 않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다. 그리하여 앞의 기원주에 대한 벌금과 구류 처벌에 더하여, 여러 차례 적발된 기원주·태기주 및 막후 조종자들을 노동교양소로 보내 장기 노동개조를 시키기로 하였다. 1950년 12월 30일 현재 이 노동개조 대상자는 50명이었다.⁹⁴⁾

이제까지 살펴본 공창제 시기는 공산당의 인민정부가 상하이를 해방하고 나서 창기들을 ‘해방’하지도 내버려두지도 못하는 상태의 혼란스러움을 잘 보여준다. Hershatter는 20세기에 중국인들이 성매매를 통제하는 능력을 정부의 근대화를 판단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으로 보고 있었다고 주장한다.⁹⁵⁾ 이런 맥락에서 이해하면, 국민당과는 달리 강력하고 근대화된 중국을 세울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 고자 했던 공산당은 시민들이 창기들에 대해 드러내는 불만에 단속이라는 방식으로 응했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⁹⁶⁾ 신문기사에서 창기단속에 대한 내용이 자주 드러나는 것은 공산당 정부가 잘 대처하고 있음을 선전하기 위한 것으로도 보인다. 다른 한편으로는 매춘객에 대한 교육, 길거리 사창의 철폐가 아닌 수용, 기원주나 인신매매업자들에 대한 진지한 대처와 같은 국민당 시기에는 볼 수 없던 조치들도 시행하고 있었다. 국민당과 뚜렷한 차이를 보인 부분은, 사창주나 인신매매업자 철폐 및 처벌과 매춘객 교육 두 가지이다. 다음 절에서 볼 수 있듯, 상하이시 인민정부는 기원주에 대한 처벌과 기녀들의 수용 쪽으로 금창의 중심을 옮겨가게

94) 上海市公安局, 〈關於對屢教不改的私娼主處罰的報告〉(1950.12. 30), 〈上海解放初期禁娼史料一組〉, 上海檔案館編《檔案與歷史》2000年 第4期, 30쪽에서 재인용.

95) Hershatter, 1999, 10장-12장의 내용 참조.

96) 시민들이 사창이 증가함에 따라 공안국과 신문사 등으로 단속을 요구하는 편지를 보내곤 했다. 上海市公安局, 〈關於目前處理私娼辦法的報告〉(1950. 12. 2), 앞의 문서.

된다.

기녀나 기원주에 대한 처벌보다도 가벼웠던 매춘객에 대한 조치가 그나마도 금창이 본격화 되면서 사라지게 된 것은, 금창사업이 부녀해방 사업이 아니라 游民 계급에 대한 개조사업의 성격을 갖게 될 것임을 암시한다. 공안국은 불특정한 계급의, 기녀보다도 훨씬 많은 수의 매춘객들을 교육하기보다는, 성매매를 직업으로 삼고 있는 특정하고 제한된 숫자의 기원주와 기녀들을 통제하는 것이 쉽게 가시적인 효과를 거둘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던 것이다.

창기제도가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사라져야만 하는 제도라고 이미 공언한 상태에서 상하이시는 계속 공창제를 운영하고 있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던지 간에 정부는 ‘공창제’라고 공공연히 표현하는 것을 정부는 꺼렸다. 상하이시 기원 폐쇄 계획에 대한 공문서에는, 금창을 반드시 신문지상에서 보도하되 ‘영업증(執照)’, ‘기녀세(花捐)’, ‘공창’ 등의 단어를 사용하여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하고 있다.⁹⁷⁾ 1951년 11월 27일, 상하이는 가장 먼저 공창들이 있는 기원을 폐쇄하고 등록되어 있는 모든 공창들을 수용함으로써 공창제도를 폐지하고 전면적인 금창에 나서게 된다.

2. 禁娼 집행 과정

정부가 2년 반이라는 기간 동안 임시적인 규칙을 제정하고, 사창 단속을 벌이는 동안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가? 공문서와 신문은 모두 ‘사창이 늘어나고 있다’는 판단과, 공안당국의 조치로 사창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모순된 판단을 동시에 내리고 있다. 이러한 모순된 판단은 몇몇 연구서에서도 보이는데,⁹⁸⁾ 이는 매번 새로운 규칙을 제정하고, 조치를 취할 때마다 신문 등에서 이 규칙이 효

97) 中共上海市委 〈關於本市處置娼妓的計劃〉 (1951.11.26) 3절 檔號 B1-2-46. 이 ‘오해’란 공창제가 기녀들에게 세금을 받아내기 위한 제도, 또는 군인들에게 위안거리를 주기 위한 제도라고 많은 사람들이 국민당을 비판했던 것을 의식하여, 인민정부는 그런 목적으로 공창제를 유지하지 않았음을 나타내는 말로 생각된다.

98) 叢繼禹, 陳關福, 1993, 21-23쪽; 楊潔曾·賀宛男, 1990, 43, 46-47쪽.

과를 보고 있다고 보도한 것을 그대로 사실로 판단했기 때문일 수도 있고, 실제 영업허가를 유지하고 있는 ‘공창’이 줄어들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이제까지 살펴보았듯이 정부는 기녀들에 대한 단속과 악덕 기원주들에 대한 처벌을 행하면서 또 동시에 공개적으로는 기녀들의 전업을 돕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인민정부의 태도 아래서, 기녀들의 상황은 다양하게 변화했다. 어떤 기녀들은 처벌대상이 되거나 수용되기도 하였고, 기원이 망하여 갈 곳이 없게 되기도 하고, 또 어떤 기녀들은 적극적으로 새로운 길을 찾기도 하였다.

한 예로, 廣西路에 10년 정도 개설되어 있던 상하이에서 가장 규모가 컸던 “陶陶社”의 경우를 볼 수 있다. 신문 기사는 “해방된 이후로 소비와 부패의 옛 상하이가 점차로 사라지고 생산적이고, 정상적이고, 번영하는 새로운 상하이 사회가 이미 성장했고, 농촌토지개혁이 점차로 진행되면서 사람들의 생산노동에 대한 관심이 일반적으로 점점 고양되었다”고 판단하면서,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陶陶社”에는 “轉業하는 기녀들이 날로 많아져 이제 기녀들이 겨우 18명만 남아, 매일의 소득으로 방대한 지출을 지탱할 수 없는 고로 영업자는 최근(1951년 3월 5일) 스스로 영업 정지를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⁹⁹⁾ 그래서 이 ‘陶陶社’는 약간씩의 解散金을 주고 기녀들을 모두 돌려보냈는데, 이 기녀들은 그 돈을 다 쓴 다음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결국은 모두 원래 하던 일을 다시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¹⁰⁰⁾

한편, 어떤 기녀들은 적극적으로 자기주장을 하거나 살 길을 찾기 시작하였다. 《文彙報》의 한 기사는 <妓女們跳出了千年苦海(기녀들이 천년의 고난의 바다에서 뛰어나왔다)>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스스로 살 길을 찾는 기녀들에 대한 소식을 전하고 있다.

夜都會의 자매 열두 명은 구사회가 그녀들에게 끼친 피해를 분명히 인식하여 앞으로의 길을 선택했다. 올해(1951년) 6월에 이미 그녀들 자신의 힘으로 작은 조직을 만들어서 양말기계를 사들이고 양말 짜는 기술을 학습했다. 群玉坊의 자매들 역시

99) 《新民晚報》1951.3.19. 4면, <陶陶社停業/烟花女兒翻身>.

100) 《新民晚報》1951.11.23. 4면, <老閘區妓院‘營業’停止/新生婦女學習生產技能>.

10월에 작은 양말공장을 만들어냈다. 아침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열 명의 자매들은 전심으로 생산기능을 배우고 자기 자신의 앞길을 위해 열심히 기초를 닦는다.

...(중략)...

群玉坊의 자매들 열 명은 10월 19일 작은 조직을 만들어 기원주에게 다섯 가지 요구를 제시하고, 다음을 행하길 요구했다. 자매들의 질병을 치료할 것, 자매들이 전업하는 것을 도울 것, 그녀들이 조직한 양말공장의 원료 곤란을 해결하도록 도울 것. 그러나 그녀들은 기원주의 거절에 맞닥뜨렸다. 그녀들은 과거에는 기원주를 보고 한마디 말도 못했지만 오늘날에는 어찌서 그들을 향해 요구할 수 있게 되었는가(를 생각하니), 이것은 바로 해방되었기 때문이고, 인민정부는 우리들의 합리적인 행동을 지지할 수 있을 것이니, 이것이 우리가 오늘날 단결한 힘이 된 것인 아닌가 하는 생각에 이르렀다. 그래서 그녀들은 다시금 기원주를 향해 요구를 제출했다. 자매들이 열심히 싸운 끝에 결국 기원주는 자매들이 제출한 “질병을 치료하라”는 조건을 받아들였다.¹⁰¹⁾

이렇게 일부 기녀들이 스스로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게 된 것을 보면, 상하이시 정부가 적어도 기원주나 폭력조직과 한 패가 되었던 국민당과는 다른 면모를 보이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해방 후 2년이 넘는 시간이 지나면서 공창의 숫자는 점차 줄어들고 있었다. 1949년 5월 기원은 264개소, 기녀는 1336명이었던 것이 2년여가 지난 후인 1951년 11월 16일 현재, 기원은 72개소, 기녀는 181명으로 줄었다(<표1> 상하이시 기원과 기녀 숫자 참조).¹⁰²⁾ 공창들과 사창들의 숫자를 더하면 약 1500여명으로, 2년 사이에 700명 정도가 줄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했듯이, 통계에 잡히지 않는 상하이의 기녀 및 암창은 상하이 시가 개조 사업을 마치는 1958년까지 계속 존재했고, 그 숫자도 공창에 비해 훨씬 많았다.

상하이는 기녀에 대한 수용과 개조를 해야 했지만, 너무 많은 숫자를 수용하기에는 벅찼다. 기녀들에 대한 수용이 이루어진지 1년이 지난 1952년 婦女教養所에 대한 한 보고서에서는 “작년 11월 제1차 수용은 공안국 자료를 이해한 바에

101) 《文彙報》 1951.11.23. 3면.

102) 1951년 11월, 181명의 공창 외에 사창이 1366명 더 있었다. 上海市府黨組, <關於本市禁娼的方案>(1951.11.16.) 檔號 B1-2-46.

의하면 2천명을 수용해야만 했으나, 결과는 공간의 제한으로 5백여 명을 수용했을 뿐”이며, 임시로 초막 등을 지어 응급 수요에 대처는 하고 있으나 건물을 더 많이 지어야 한다고 특별 예산을 청하고 있다.¹⁰³⁾

본격적 금창의 시작은 1951년 11월 13일, 상하이시 공안국이 전 시의 기원 주인들을 불러 빠른 시일 내에 轉業하고 기녀들의 병을 치료하며 생계를 책임질 것을 명령한 것에서 시작되었다. 공안국은 22일에는 기녀들을 불러 정부가 곧 기원을 폐쇄하고 모든 ‘기녀’·‘창기’의 영업을 금지할 것이라고 알렸다. 기원 주인들을 소집한 자리에서 공안국 치안행정처의邵健처장은 그들에게 즉시 ‘영업’을 정지할 것을 통지했다고 한다. 아울러 그들이 ‘장사’를 정지한 후 기녀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성병을 모두 치료하며 생계를 해결할 방안을 찾도록 돕고, 방임한 채로 두거나 강압, 속임수 등의 수단으로 기원에서 강제로 나가게 하면 안 되고, 다시는 기녀들에게 비밀리에 매음을 시키지 않겠다고 보증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만일 이 사항들을 위반할 경우 반드시 처벌하겠다고 통보했다.¹⁰⁴⁾ 그러나 기원 주인들은 기원으로 돌아가서 단지 정부가 곧 이 일을 금지할 것이라고 말만 하고 관망하는 자세로 있었으며, 심지어 어떤 기원주는 유연비어를 만들어내서는 “너희들은 정부의 말을 들어서 좋을 게 하나도 없다. 정부는 너희를 東北지방으로 보내어 돌을 치고 개황을 하게 할 것이다. 너희들은 이제 해방되었다고 생각하지 말라. 국민당은 곧 돌아올 것이다. 조심해라! 너희들이 돌아가고 싶으면 돌아가라. 난 돈 없다!” 라며 위협했다.¹⁰⁵⁾ 기원주들이 명령을 듣고 돌아가 들은 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안 공안국에서는 이번에는 180명의 기녀들(숫자상 모두 공창)을 22일 직접 소집하여, 담화를 발표하였는데, 그 자리에서는 몇몇 기녀들이 자신들이 구 사회에서 겪은 고통에 대해 고발을 하기도 하였다.¹⁰⁶⁾

이러한 과정을 거쳐 공안국은 이제까지의 정황을 상하이시 각계인민대표회의에서 보고하였다. 23일 상하이시 각계인민대표회의는 ‘잔존 기원을 단속하고 기녀들

103) 上海市人民政府民政局, <爲新建翻修婦女所隊員宿舍各一幢,請速指撥專款以便動工由>(1952.9.25.) 檔號 B1-2 -705.

104) 《文彙報》1951.11.23. 3면, <上海妓女從此脫離火坑>.

105) 《文彙報》1951.11.23. 3면, <妓女們跳出了千年苦海>.

106) 《文彙報》앞의 기사.

을 해방'하기로 결정을 내린 동시에 시 정부에 집행을 명령했고, 아울러 暗娼들에 대한 단속도 차츰 해 나가기를 건의했다.¹⁰⁷⁾ 신문기사에 따르면 그 회의를 참관한 상하이시 부시장 盛丕華는 즉석에서 협상회의의 명령과 건의를 받아들였다. 이를 후인 25일 저녁 바로 집행에 들어갔는데, 이러한 진행은 겉으로 보기엔 매우 급하게 이루어진 것 같다. 그러나 상하이시 정부는 사실상 정부 내 黨組를 중심으로 이미 준비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각계인민대표회의의 승인은 일종의 형식적 절차였을 뿐이다. 위에서 보았듯이 공안국에서는 상하이시 기원주들과 기녀들을 소집하여 곧 기원 폐쇄가 있을 것이라는 통지도 한 상태였다.

몇몇 공문서들에 따르면, 기녀들을 대규모로 수용할 계획이 1951년 11월 5일에 이미 서 있었고, 이에 따라 11월 14일에 민정국은 상하이시 노동교양소를 부녀교양소로 바꾸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으며, 상하이 민주부련에 개조공작에 참여할 간부 50명을 파견하도록 할 것도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¹⁰⁸⁾ 11월 16일에는 黨組에서 초보적으로 <關於本市禁娼的方案>을 세워, 이미 금창을 실행할 날짜와 교양소에 수용할 인원까지(공창 약 200명, 사창 약 300명) 모두 계획해 두고 있었다.¹⁰⁹⁾ 이에 대해 華東軍政委員會 공안부에서 11월 17일에 상하이시 인민정부 부시장인 潘漢年에게 찬성하는 문서를 보내었다.

이러한 사전 준비작업은 하였지만, 기녀들을 수용할만한 장소가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단 500여명을 수용했을 뿐이었다. 교양소의 준비 외에도, 수용 직후에도 여전히 기녀들이 부양하는 부모나 아이들의 생활은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기원에 있는 기녀들의 재산이나 물품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등의 문제에 대한 대비가 잘 되어있지 않은 상황이었다.¹¹⁰⁾ 그러나 당조는 상하이 시의 공창제도 폐지가 제3계 인민대표회의 이전에 완료되도록 일정을 짚으며, 공안국과 민정국은 그 일정을 그대로 따랐다.

23일, 상하이시 각계인민대표 협상회의의 결정이 내려진 이후, 상하이시 民主婦

107) 《新民晚報》1951.11.23. 기사와 《文彙報》1951.11.24. 기사.

108) 上海市人民政府民政局報告, <爲本局附屬機構三個教養所適當合併調整成立婦女教養所,並吸收有組織人員五十名請示由.>(1951.11.14.), 檔號 B24-2-124.

109) 1951년11월16일, 市府黨組, 檔號 B1-2-46.

110) 上海市府黨組, <關於本市禁娼初步情況報告>(1951. 11. 28), 檔號 B1-2-46.

聯에서는 환영 성명을 냈고,¹¹¹⁾ 신문사에는 이를 환영하는 독자 편지가 여러 통 도착했으며,¹¹²⁾ 기원이 많은 지역의 里弄(상하이의 좁은 골목을 가리킴)의 주민위원회는 칠판신문(黑板報)을 이용해 소식을 전함과 동시에 토론을 열기도 하였다고 한다.¹¹³⁾

1951년 11월 25일 저녁, 상하이시 정부는 본격적인 기원 폐쇄 및 기녀 수용을 시작하였다.¹¹⁴⁾ 25일 저녁에는 老閘, 嵩山, 新成, 提籃橋, 北站, 虹口 여섯 개 구에서 중점 암창 단속 및 기원 폐쇄를 행하였다. 오락장소(大世界, 先施樂園, 大新公司)의 암창을 주된 목표로 삼았는데, 시민들과 오락장의 유객들을 놀라게 하지 않는다는 원칙 아래 경찰이 가장하고 사복을 입고 매춘객이 하는 식으로 암창들을 여관으로 유인하거나 오락장소와 떨어진 곳으로 유인하여 수용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방법은, 커다란 동요를 일으키지 않고 비밀리에 수용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이었다. 여섯 개 구에서 모두 기녀 301명을 수용했는데, 老閘와 嵩山이 가장 많아 약 301명의 3분의 2를 점하였다. 한 사람도 잘못 잡아들이지 않는다는 원칙 하에서公安요원들은 사전에 조사를 했을 뿐 아니라 수용 후에도 區別로 단위를 지어 公安국에 모이게 한 후 사진과 대조하고, 기녀들에게 잘못 수용되지 않았는가를 물어보는 교정 작업을 하였다. 보고에 따르면 老閘區에서 네 명이 잘못 수용되어(그 중 두 명은 연극을 공연하는 자였다) 그 자리에서 사과하고 즉시 석방하는 일이 있었다.¹¹⁵⁾

이렇게 상하이시는 기원에 속한 기녀들과 암창 502명을 수용하였다. 체포하여 법에 따라 처리하거나 강제 노동을 하게 될 기원주, 암창주, 포주는 모두 358명이었고 그 중 법에 따라 처리할 자가 45명, 강제 노동을 할 자가 294명(노동개조는

111) 《文彙報》1951.11.24. 3면, 〈市民主婦聯及家庭婦聯 擁護取締妓院的措施〉.

112) 《文彙報》1951.11.25. 6면 독자 편지 摘要, 〈希望翻身的妓女做一個真正的人!〉; 《新民晚報》1951년 11월 24일 1면 讀者來信 〈塘沽路讀者來信/擁護政府取締妓院〉.

113) 《新民晚報》1951.11.24. 4면, 〈政府取締殘存妓院措施 各區里弄居民熱烈擁護〉.

114) 몇 시에 시작되었는가는 명확하지 않다. 楊潔曾·賀宛男, 1990에 따르면 25일 오후 7시부터 그 다음 날 새벽까지 폐쇄가 이루어졌다고 하였고, 《文彙報》의 1951년 11월 27일 기사에는 25일 오후 8시부터 그 다음 날 오전 10시까지 금창작업을 행했다고 하고 있다. 그런데 중앙상하이시위원회의 〈關於本市處置娼妓的計劃〉은 1951년 11월 26일 관련부서로 전달되었다. 그렇다면 이 계획서는 계획서가 아니라 사후 통지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일 수 있다.

115) 上海市府黨組, 〈關於禁娼工作初步情況彙報(草稿)〉(1951.12.), 上海檔案館 編, 앞의 문서, 33-34 쪽에서 재인용.

남자 139명, 여자 55명)이었다.¹¹⁶⁾ 이 외에 매춘객들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아, 기원 폐쇄 시 매춘객에 대한 조치는 없었거나, 무언가 조치를 했더라도 비중이 비교적 가벼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미 수용 가능한 인원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상하이시 위원회에서는 정부에서 통제하기 힘든 정도의 군중 운동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있었다. 1951년 11월 26일 상하이시 위원회에서 작성한 문서에는,

그러나 사창문제는 복잡한 사회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계획적으로 절차를 갖추어 중점을 두고, 나누어서 진행해야 한다. 현재의 객관적인 정황 및 주관적인 역량에 비추어 보면 기원을 금지하고 일부 私娼을 타격하는 것은 가능한 일이며 필요한 일이다. 기타 매음행위를 하는 빈곤한 가정부녀는 생산의 발전과 함께 천천히 해결될 수밖에 없고, 당장은 여전히 禁絶이 어렵다. 따라서 처리방침에 있어서는, 반드시 행정 역량을 이용하고 지도력을 발휘해 군중을 발동하는 것과 서로 결합시키고, 최악을 행한 기원주에 대한 타격과 일반적인 기녀들에 대한 교육·개조를 결합하는 방법을 채용해야 한다. 반드시 주의해야 하는 것은, 현재의 금창은 일반적으로 공개적인 창기에만 한정되는 것으로, 모든 창기 및 기타 변용 매음자들까지 철저하게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따라서 군중역량을 발동할 때에는 반드시 주동적으로 장악해, 전면적인 군중의 철저한 금창운동이 일어나 정부가 피동적이 되는 상황을 피해야 한다.¹¹⁷⁾

고 적고 있다. 상하이시 정부의 물적·인적 한계로 이 첫 번째 금창 행동은 공안국과 민정국이 계획한 인원과 장소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이 공문서에서는, 대대적 군중 운동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기타 매음행위를 하는 가정부녀’ 나 온갖 ‘창기 및 기타 변용 매음자’들에 대한 고발·신고와 같은 행동들이 일어날 것을 염려하고 있다. 그렇다면, 당시 일반적인 상하이 시민들 사이에는, 정부가 중점적으로 ‘타격’하고자 하는 기원주나 인신매매업자보다는 성을 파는 여성들에 대해 더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다는 것도 미루어 짐작해볼 수 있다.

116) 上海市府黨組, 앞의 문서.

117) 中共上海市委, <關於本市處置娼妓的計劃>(1951.11.26.), 檔號 B1-2-46.

정부는 수용하기 이전에 반드시 기녀들에게 미리 금창을 할 것을 알려, 출로를 고려할 기회를 주어야만 수용할 때 그녀들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 것이라고 판단하고, 사전 통지를 계획하였다.¹¹⁸⁾ 11월 22일 기녀들을 모아 담화회를 연 것도 이 계획에 따른 것이었다. 그러나 22일에서 25일 사이에는 단지 23, 24일 이틀간의 짧은 시간이 있었을 뿐이었으니, 이 사이에 기녀들이 갑자기 전업을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22일 담화회에 모인 인원은 180명뿐으로, 26일 수용한 500명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인원이었다. 따라서 수용 이후 기원주나 ‘기녀’·‘창기’ 중에는 반발하고 소란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었다. 상하이 정부는 앞 절에서 보았듯 2년 6개월간 공창제를 유지하고 있었다. 11월 13일에 기원주들에게 이제 기원이 불법이라고 선언한 후, 기원 폐쇄에 나선 25일까지 불과 열흘 남짓한 시간이 있었을 뿐이니, 이러한 소란은 이미 예정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어떤 기원주는 “기원은 합법인데 왜 우리를 잡아 가두느냐”고 항의하기도 하였다.¹¹⁹⁾

수용된 기녀들의 일반적인 반응에 대해 상하이시 정부 당조가 한 보고를 보면, 다음과 같다.

(2) 기녀방면: 공창 201명, 사창 289명

창기들이 교양소에 들어간 첫 날, 일반적인 사상 상황: (1) 주인들이 지어낸 유언 비어와 위협을 끝이듣고 東北나 조선에 배치되거나 蘇北에 개간을 위해 보내질 것으로 여긴다. (2) 아직 나이가 어릴 때 결혼 상대를 찾을 수 있는데, 이 안에 오랫동안 갇혀 있으면 어떻게 하나 하고 생각한다. (3) 극히 드문 현상으로 다음 주 월요일에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그들은 인민정부가 그들을 떼어놓았다고 하며 약혼자와 만나게 해 준다면 죽어도 좋겠다고 말한다. (4) 부모나 남편이 동의해서 娼이 되었는데, 이 안에만 갇혀 지내면 식구들이 어떻게 생활하겠느냐고 한다. (5) 옷과 장신구들을 친구의 집에 부쳐놓았고 또 기한이 다 되어가는 수표가 있으니 자기가 직접 나가서 가져오길 요청하면서 “당신들이 내가 달아날까봐 두려우면 사람을 보내 쫓아오면 된다.”고 한다. 이 중 어떤 사람들은 물건을 부친 곳의 주소를 감히

118) 上海市府黨組, <關於本市禁娼的方案>(1951.11.16.), 檔號 B1-2-46; 中共上海市委, 앞의 문서.

119) 上海市府黨組, <關於本市禁娼初步情況報告>(1951.11.28), 檔號 B1-2-46.

말하려 하지 않으면서 자기가 직접 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한다(이런 현상은 매우 보편적임). (6) 고향에 남편이 있고, 그와 잘 얘기한 뒤 상해에 와서 노동하게 되었다며 자기의 이름을 신문에 신지 말라고 요구한다. (7) 일반적으로 간식과 담배를 사게 해달라고 요구하며 우리의 간부들을 ‘하녀’ 취급한다. (8) 비교적 성품이 나쁜 경우, 세숫물을 끓는 물 통으로 쏟아 부어 고의로 소란을 피우고 앞장서서 울어서 모든 사람들을 울게 한다. 더욱 나쁜 경우 다른 사람에게 욕을 하고 사람을 때린다.

두 번째 날에는 마약을 하는 사람이 중독으로 발작을 일으켜 구토하고, 매독에 걸린 사람은 불결하기가 너무 심하여 다른 사람들의 반감을 일으켰다. 서로 도둑질하는 자, 편지를 쓰고 전화를 해서 식구들과 연락하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자도 하나둘씩 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좋은 반응도 있다: (1) 여기는 좋고, 집에 있는 것보다도 편안하니 앞으로 꼭 열심히 배우겠다. (2) 인민정부는 정말 우리들의 큰 구세주다. 어떤 사람은 자발적으로 다른 사람을 대신해 설거지를 하고, 어떤 사람은 자발적으로 기원 내의 상황을 보고하며 또 남편은 반혁명분자이니 고소를 요구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다. 또한 몇몇 적극적인 사람들도 발견되었는데, 이들은 신속하게 신체검사를 하고 전문 기술을 학습하길 요구한다.

일반적으로 사창들의 생활은 어려워져서, 집안에 아이가 있거나 불구가 된 노모가 있는 사람도 있고, 16세에 할 수 없이娼이 된 자도 있어, 대부분 감격을 표시하고, 교양소 안에서 언행도 비교적 괜찮다. 몇몇 공장들은 상하이의 소위 1등 기녀로 집안에서 매우 사치스러운 생활을 보냈고 그 언행도 가장 나쁘다. 그래서 현재 교양소안의 기녀들은 빈부가 다르고 과거의 생활 습관도 다르므로 이로 인해 그들의 정치각오 수준도 또한 다르다.¹²⁰⁾

이 보고를 통해, 기녀들이 갑작스러운 수용으로 인해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낮은 환경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공안국의 사전 통지에도 불구하고 수용된 것에 대한 기녀들의 반응은 각양각색으로, 수용조치가 어떤 것인지에 관해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수용된 기녀들 중에는 앞에서 보았던, 양말 공장을 차린 夜都會 기원의 여성들도 있었다. 이들은 교양소 안에서 자주 무리를 지어 시끄럽게 떠들며, “인민정부는 公道를 지키지 않는다. 우리는 이미 직업을 바꾸었고 200대의 양말기계도 있

120) 上海市府黨組, <關於本市禁娼初步情況報告>(1951.11.28.), 檔號 B1-2-46.

어서 생산에 종사하고 있고, 애국 공약도 정하였다. 그런데도 왜 잡아넣었느냐?” 하고 따졌다고 한다. 이들은 자신들의 대표도 따로 뽑아 교양소 내의 질서에 영향을 미쳤다. 이 문제는 정부의 조사 이후, 야도회의 작업 공간을 교양소의 일부로 하여 정부의 관리 및 교육 아래 생산을 즉시 재개하는 방향으로 처리되었다. 체포로 인한 손실은 모두 정부가 책임지고 배상하도록 했다.¹²¹⁾ 이 야도회 기원의 양말 공장은 이미 생겨난 지 2개월이 되었고, 지역 주민들의 도움 하에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신문에도 여러 차례 기사가 실렸음에도 불구하고, 공안국이나 민정국에서는 이러한 정황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은 이들의 전업에 정부가 직접 개입하거나 도움을 주지 않았으며, 상하이의 수용 사업이 다소 성급하게 이루어진 것임을 암시한다. 기녀들의 전업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구체적인 기록이 보이지 않고, 금창 집행 담당자들이 이런 집단적 전업에 대해서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은, 정부의 창기제도 폐지 방식이 체포나 수용과 같은 대규모의 물리적 행동 방식으로 집중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수용된 여성들에 대한 기본적인 개조 방침을 당조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五, 금후 공작 방침:

첫째, 기녀들에 대해서는 가장 먼저 생산노동교육을 강화하고, 그들 스스로가 개조를 받아들이도록 한다.

둘째, 집이 있는 자는 돌려보내고, 직업이 있는 자는 취업할 수 있도록 하고, 배우자가 있는 자는 보석방할 수 있지만 보석방하는 자는 반드시 다음을 보장해야 한다.

- ①책임지고 성병을 치료한다.
- ②옛날에 했던 일을 다시 하지 않는다.
- ③생활이 보장되어야 한다.

셋째, 큰 힘을 기울여 성병을 치료하여 건강을 회복해서 조직적으로 생산하고, 직업을 소개할 수 있도록 한다.¹²²⁾

121) 上海市府黨組, <關於本市禁娼初步情況報告>(1951.11.28.), 檔號B1-2-46.

122) 上海市府黨組, <關於禁娼工作初步情況彙報(草稿)>(1951.12.), 上海檔案館編, 앞의 기사, 33-34 쪽에서 재인용.

이 여성들이 스스로 노동할 줄 아는 사람이 되도록 한다는 목표 아래, 수용소 안에서는 크게 세 가지 일을 행했다. 성병치료와 문화교육, 노동교육이다.¹²³⁾ 성병치료에 대해서는 수용된 여성들의 대부분이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으며, 거절하는 자는 없었다고 한다.¹²⁴⁾ 문화교육은 글자를 익히게 하는 것과 사상교육 및 문화생활을 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 사상교육에는 이제까지 기녀들을 꺾박한 기원주들의 죄를 고발함으로써 계급의식을 갖도록 하는 ‘고통을 털어놓는’ 교육이 포함되었다. 노동교육은 출소 뒤 앞길을 찾을 수 있게 하며, “놀이 좋아하는 나쁜 습관을 버리고 노동의 기쁨을 알게 한다”는 목표로 진행되었다.

1년에서 2년 정도 수용소에서 집단생활을 하면서 성병을 완치하고 문화 교육과 노동 교육을 무리 없이 받은 여성들은 출소할 수 있었다. 1953년부터 교양소는 분기별로 나누어 여성들을 출소시켰다. 1953년 6월 현재 교화소의 출소와 관련하여 민정국은 다음과 같이 보고하고 있다.

본국에 속한 기녀교양소는 1951년 11월부터 기녀들을 수용한 이래, 전 기간 동안 모두 1900여명을 수용하였고, 차례로 석방하고 고향으로 돌려보낸 140명 및 기타 기관으로 보낸 130여명 외에 현재 아직 1600여명이 있고, 최근에 집중적으로 조사하여 그 중 350여명의 가족의 생활 조건을 파악한 바, 그 가족들이 절실히 그녀들이 돌아가서 집안일 혹은 노동생산에 참가하기를 요구하며, 그 본인 역시 출소하기를 희망한다. 그 중 다수가 교양소에서 교양 개조를 한 시간이 1년 8개월인데, 일반적으로도 8, 9개월 지내고 출소 후 농촌으로 돌아간 대다수가 대개는 다시 옛날일(기녀일: 畝간이 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300여명을 곧 출소 처리하고자 한다. 그 집이 본 시에 있는 자는 가족들에게 보증서를 받고 돌려보내고, 그 소속 공안국에 통지하여 관리한다. 그 집이 타 도시에 있는 자는 고향으로 돌려보내되 현지의 정부에 통지하여 관리한다. 그 외에 채소 수용된 기녀들은 계속해서 조사하고 파악하여 상술한 조건에 부합하는 자는 출소 처리하는데, 타당한지 즉시 심사하고 검토하여 지시하길 바랍.¹²⁵⁾

123) 武舟, 1990, 363-371쪽; 楊潔曾·賀宛男, 1990, 76-101쪽.

124) 上海市府黨組, <關於禁娼工作初步情況彙報(草稿)>, 上海檔案館編, 앞의 기사, 33-34쪽에서 재인용.

이 보고에 대하여 상하이시 정치법률위원회는, 출소하는 여성들은 ‘신체가 건강하고, 인식 상에 현저한 변화가 있고, 성병이 이미 다 나아야 한다.’는 조건을 한 가지 더 붙여서 그대로 처리할 것을 지시하였다.¹²⁶⁾

상하이 부녀교화소에 수용되었던 전체 인원 7513명 가운데 상하이 출신은 673명에 불과했다. 여성들은 출소 후 대부분 상하이시 밖의 국영농장이나 농업생산협작사로 취업이 앞선되었다. 다음은 출소 후 여성들의 취업 현황이다.

<표3> 상하이 부녀교화소 출소자 사회 복귀 현황¹²⁷⁾

구분	국영농장	귀향 후 현지농업생산 협작사	건설공사장	上海 소재 각 기업	귀가	교화소 잔류	계
인원 (약,명)	2500	1500	2000	500	500	300	7300

베이징이나 상하이 모두, 처음 금창을 시행할 때에는, “돌아갈 집이 있는 자는 집으로 돌려보내고, 결혼할 대상이 있는 자는 결혼을 도우며, 의지할 곳 없는 자는 취업을 돕는다”고 하였다. 楊潔曾·賀宛男도 간부들이 수용된 여성들의 결혼을 성실히 주선했고, 이후에는 가족과의 생활에 문제가 없는지 살피기까지 했음을 자세히 쓰고 있다.¹²⁸⁾ 베이징의 경우에는 총 수용되었던 인원 1316명 중, 출소하면서 결혼하거나 가족에게 돌아간 인원이 975명으로, 기녀들이 가족을 이룸으로써 사회에 복귀하는 비율이 매우 높았다.

중국 정부가 기녀들을 가장 우선적으로는 집으로 돌려보낸다고 했기 때문에 당시 정부가 “상하이 기녀들을 다시금 현모양처의 대열에 합류하도록 만들”었고, 이로써 “다시금 가족제도를 세우고, 여성들이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게 하는

125) 上海市民政局, <關於處理妓女出所意見的報告>(1953.6.30.), 上海檔案館編, 앞의 기사, 35쪽에서 재인용.

126) 上海市政府法律委員會, <關於妓女出所的函>(1953.7.9.), 上海檔案館編, 앞의 기사, 35쪽에서 재인용.

127) 楊潔曾·賀宛男, 1990, 126쪽을 바탕으로 작성.

128) 楊潔曾·賀宛男, 1990, 134-140쪽.

커다란 기획의 일부분”을 완성했다고 보는 연구자도 있다.¹²⁹⁾ 중화인민공화국에서 가족은 곧 국가적 혁명을 완수하기 위한 단위이며, 국가적 이익에 종속되는 곳으로 변화했기 때문에 이 여성들이 돌아가야 하는 가족은 그 이전시기의 가족과는 전혀 다른 의미를 지녔다.¹³⁰⁾ 이 가족은 또한 새로운 혼인법에 기반하여 일부일처제가 강력하게 유지되는 공간이었고, 수용소 간부들은 수용된 기녀들에게 혼인법을 가르쳤다.¹³¹⁾

그러나 사실 상하이에서는 가족으로 돌아간 여성들은 얼마 되지 않았다. 6500여명이 농장이나 공장 노동자가 된 것에 비하면 가족으로 돌아간 숫자는 500여명으로 겨우 1/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숫자이다. 이렇게 숫자의 차이가 나는 것은, 당시 정부가 이 여성들을 모두 혼인시키거나 가족에게 돌려보낼 수 있는 역량이 없어서일 수도 있으나, 필자는 상하이 교양소에서 출소가 시작된 1953년 이후로 적어도 상하이시라는 지방 정부 범위의 정책상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으로 판단한다. 1953년 가족에게 보내진 여성들이 앞에서 본 문서에서처럼 350명이라면, 그 이후 58년까지 단 150명 정도의 여성들만 귀가조치 되고 나머지는 모두 노동자가 되었던 것이다.

1955년 유민공작계획에 따르면 기녀들이 수용되었던 부녀교양소의 인원들과, 다른 유민교양소에 있는 부녀들 중 개조가 잘 된 인원들은 공장으로 출소시킨다는 계획이 서 있었고 다른 방식의 출소는 언급되지 않았다.¹³²⁾ 같은 해, 상하이 교양소는 新疆 民政廳으로부터 개조가 된 기녀들 천 1,500명 정도를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¹³³⁾ 상하이시 측에서는 보낼 여성들에게 新疆지역의 개발이 매우 중대한 국가적 사업이며, 자신의 앞길을 위해서도 더없이 좋은 선택임을 교육시켜 그 곳으로 간 이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였다. 이 교육에서는 “개인의 발전은 국가의 발전과 직결되어 있는 것”이라는 점이 강조되었다. 약 두 달에 걸친 교육 이후 많은 여성들이 新疆에 자발적으로 간다는 태도를 갖게 되었다고 한다. 애

129) Hershatter, 1999, 323-324쪽.

130) Barlow, 2004, 57-59쪽.

131) 楊潔曾·賀宛男, 1990, 135쪽.

132) 上海市人民政府民政局, <一九五五年收容改造游民工作計劃要點>(1955. 3), 檔號B2-2-27.

133) 上海市人民政府民政局, <遣送女收容人員及改造好的妓女去新疆的初步計劃>(1955.3.3.), 檔號B2-2-27.

초의 계획은 돌아갈 집이나 남편이 없는 여성들을 훈련을 시켜 보내고자 했지만, 이 교육과정에서 어떤 여성은 오빠와 어머니가 훈련장소에 일곱 차례나 와서 방해하며 말리는데도 자신은 新疆으로 가겠다고 결정을 내렸다. 어떤 여성은 新疆에 가서 기필코 열심히 노동하여 조국의 미래를 위해 복무하겠다고 혈서까지 썼다고 한다.¹³⁴⁾ 이러한 과정을 보면, 기녀들의 개조와 사회 복귀는 전 국가적인 유민들의 사회 재배치 사업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진 것이었고, 기녀 출신이라는 점이 다른 유민들과 구분되는 점으로 작용하지도 않았다.

상하이시는 기녀였던 여성들이 ‘기생충’적 생활방식에서 벗어나 자력갱생할 수 있는 노동자가 되기를 바랐고, 실제로 노동자가 됨으로써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여성들이 결혼을 하게 된 여성들보다도 훨씬 많았다. 공산당은 이들이 현모양처가 되기보다는 새로운 중국에서 건전한 노동자가 되는 것이 해방되는 길이라고 여겼던 것이다. 이는 곧, 유민계급의 여성들이 노동자계급의 여성으로 다시 태어나는 과정이기도 하였다. 상하이시의 기녀 개조에서는 前기녀들이 ‘여성’으로서 사회에 복귀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 ‘계급’으로서 사회에 복귀하였다. 정부에서 제시한 방식의 轉業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여성들도 많았다. 이렇게 여성들이 노동자 계급의 일부가 되는 것은 중국의 경제 체제가 개편되며 전국적으로 여성의 노동력이 농업과 공업에 진출하게 된 것과 맞물리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¹³⁵⁾ 중화인민공화국은 여성의 가장 중요한 임무를 ‘생산노동’이라고 규정하면서, ‘부녀’라는 범주를 노동자 ‘계급’의 일부로 만들고자 했던 것이다.¹³⁶⁾

이렇게 모든 기녀들을 노동자로 개조한다면 중국에서 창기‘제도’가 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정부는 믿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기녀들의 전업 이후의 출로까지 계속해서 책임을 졌다. 정부는 이미 노동자가 되어 다른 지역으로 옮겨간 여성들에 대한 관리도 계속 했다. 노동할 기회를 주고, 한편으로는 다시 예전 일을 하지

134) 上海市人民政府民政局 〈動員選送各教養單位婦女去新疆參與生產建設的報告〉 1955. 5. 23, 檔號 B2-2-27.

135) 1920년대 말 국민당 정부는 창기들에게 어떤 직업훈련도 잘 먹혀들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는 결국은 기녀들을 개조할 가장 좋은 방법은 결혼이라고 여겼다고 한다. 그래서 기녀들에 대한 교육 방안은 자수, 회화(그림 그리기), 요리 정도에 그쳤다([法]安克強(Christian Henriot), 2004, 352 쪽).

136) 8페이지 각주 25번 참조.

않도록 통제함으로써 이 여성들이 성매매로 돌아가지 않도록 했다.¹³⁷⁾

중화인민공화국의 금창사업은 기원주에 대한 처벌과 창기들에 대한 재교육이 중심이 되었고, 선전이나 교육과 같은 전반적인 인식을 바꾸기 위한 사업은 미미했다. 기원이나 창기들은 당시 성매매를 일컫는 창기‘제도’의 가장 눈에 잘 띄는 일부분이었다. 성을 돈을 주고 사는 행위와 생계를 위해 딸이나 부인을 기원에 파는 행위 등을 방지하거나, 여성 실업 인구가 성매매 시장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는 것 등은 신속한 창기제도 실행을 위해 뒷전으로 밀려났다. 국가는 보다 가시적이고 명확한 효과를 단시간 내에 거둘 수 있는 방법에 역량을 집중했으며, 이 과정에서 집행의 대상이 되었던 사람들의 혼란과 불만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혼란과 불만은 매춘객과 같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교육하거나 처벌하는 것이 불러일으킬 혼란과 불만보다는 통제가 가능한 정도라고 정부는 판단했을 것이다.

137) 그러나 1954년까지는 교양소에서 한 번 출소했던 여성들 중 일부가 다시 매춘을 하여 재수용되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1954년 말부터 개조 사업이 좀 더 엄격해졌다(楊潔曾·賀宛男, 1990, 113쪽).

Ⅲ. 上海市 당국의 娼妓인식의 이중성

중화인민공화국은 ‘금창’사업을 진행하며 ‘기녀’·‘창기’에 대해 줄곧 이중적인 태도를 가졌다. 정부에게 있어 이들은 해방시켜야 하는 피해자적 존재이자 새로운 국가의 질서와 윤리관을 침해할 수 있는 ‘기생충’적 존재였다. 이러한 이중적 성격 때문에, 정부는 이들을 제국주의와 반동 통치 속에서 피해를 입은 노동자나 농민과 마찬가지로 대할 수도 없으면서, 다른 ‘문제집단’-예컨대 국민당 잔존세력이나 폭력배들-과 똑같이 대할 수도 없었다.

중화인민공화국에서의 이 금창사업에 대해 언급하는 연구의 대다수는 창기를 ‘피해자’와 ‘기생충’의 이중적 존재로 보는 정부의 관점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妓院主로 대표되는 창기들의 억압자들을 처분함으로써 이들을 해방하는 동시에 창기들이 기생적인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改造’를 해주었다는 것이 그 주요 골자이다. 개조를 통해 생산노동자로 다시 태어난 부녀들이 영광된 앞길을 걸어 나간다고 하는 서사는 당시 신문과 이후 연구들에서 계속 반복되었다.

상하이의 사례를 통해 보면, 창기가 이중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는 인식은 ‘금창’사업에서 모순을 발생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의 능력을 극대화시켜 보여주는 효과를 가져왔다. 상하이 인민 정부는 제국주의 열강과 일본, 그리고 국민당 반동통치의 지배를 받은 ‘피해자’인 이들을 해방시켰다. 동시에 구사회의 악습을 몸에 지니고 있는 이들을 개조함으로써 사회주의 건설에 문제가 되는 어떠한 과거의 잔존물이라도 지워낼 수 있다는 정부의 능력을 드러냈다. 특히 상하이에서 ‘금창’사업이 이루어진 시기는 반혁명 진압 운동이 한 차례 일어난 후로, 새로운 사회를 세우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강력하게 발현되고 있던 시기였다.¹³⁸⁾

138) 1950년 10월, 中共中央은 <關於鎮壓反革命活動的指示>를 내렸다. 이 지시에 따라 반혁명 분자에 대해 관대한 편향에서 벗어나 반혁명 분자들을 체포하고 재판하는 운동이 일어났다. 상하이는 이에 따라 반혁명분자들의 등록 및 체포를 시작하였고, 이 중에는 비적 두목, 강도, 악질 지주, 공장·부두 깡패, 국민당 특무요원, 반동 군관, 비밀결사 두목, 부랑자 두목 및 기원 등 오락장의 보스 등이 포함되었다(熊月之 主編《上海通史 第11卷 當代政治》上海人民出版社, 1999년, 42-48

‘기녀’·‘창기’에 대한 이중적인 인식은 공문서와 신문 모두에서 찾아볼 수 있다. 1951년 11월 26일에는 이 ‘금창’ 사업에 대한 기사를 신문지상에 신도록 상하이 시 측에서 강제하고 있으며, 그 내용까지 규정하고 있었다.¹³⁹⁾ 신문이나 공문서에서 드러나는 이 인식은 정부의 계급 구분에 의해 비롯된 것이었고, 구체적인 정책 실현과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기생충’이나 ‘피해자’라는 말은 기녀들을 지칭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성매매 전반에 대한 공산당의 인식과 대처 방식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1. 기생충으로서의 창기

‘기녀’·‘창기’는 ‘游民’이라는 계급에 속한다.¹⁴⁰⁾ 이 분류는 1939년의 毛澤東의 계급 구분에 따른 것으로, 유민 계급은 반동 계급에 매수될 수도, 혁명에 참여할 수도 있는 ‘동요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¹⁴¹⁾ 1955년 7월 2일 작성한 民政局의 <一九五五年六月至一九五六年六月游民與社會渣滓收容改造方案>에도 이들은 계속 유민에 속해 있다. 유민들은 성격에 따라 여섯 개의 집단으로 나뉘는데, 그 첫 번째 집단이 “기녀들의 여종이나 방을 빌려주는 台基主 및 ‘賣淫’과 얼굴을 파는 것으로 생계를 꾸리는 집단으로서 사회도덕을 파괴하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다. 두 번째는 결식하거나 밥을 빌어먹는 사람들, 세 번째는 소매치기, 장물팔이 등 형법으로는 처리하기에는 죄가 미약한 자들로 우발범죄자를 제외한 자들, 네 번째는 직업이 일정치 않고 도박을 하거나 오락도구(당구 등) 등으로 먹고 사는 자, 다섯 번째는 가짜 돈으로 사취하고 신분이나 이름으로 사기 치는 자 등, 여섯 번째는

쪽).

139) 中共上海市委, <關於本市處置娼妓的計劃>(1951. 11. 26.), 檔號 B1-2-46 이 문서를 받는 기관 중 하나로 ‘解放日報’가 있으며, 기원이 감소한 것을 드러내는 숫자, 기녀들의 비참한 신세에 대한 내용 등을 적어야 한다고 적시하며, 공창이라는 표현과 공창에 관련된 단어는 쓰지 말아야 한다고 지정하고 있다.

140) 上海市政法律委員會<關於對於妓女的處理方針>, 1953.5.25. 上海檔案館編, 앞의 기사 35쪽에서 재인용; 楊潔曾·賀宛男, 1990, 45쪽. 여기서는 1949년 12월 24일의 《解放日報》 기사를 인용하고 있다.

141) 毛澤東, <중국혁명과 중국 공산당>, 1939, 池田誠, 韓善模 譯, 《중국현대혁명사》, 靑史, 1985, 38-39쪽에서 재인용.

하는 일 없고 정당한 직업도 없이 게으른 이류 건달이다.

정부에서 이렇게 유민들을 구분한 것을 보면, ‘기녀’들의 노동에 기생하여 살고 있는 심부름꾼이나 호객꾼, 방 빌려주는 이 등은 ‘매음하는 자’와 같은 범주에 묶여 있다. 그러나 창기들은 그 외의 이들과 금창사업 기간 완전히 계급적으로 구분되어 창기들은 ‘해방’되고, 다른 이들은 ‘죄값’을 치렀다. 같은 유민 계급임에도 불구하고 기생어미·포주 등은 모두 징역이나 노동개조 등의 처벌을 당하였고, 기녀들은 유민 생활에서 벗어나도록 인민정부에서 해방을 시켜줬다.

유민과 함께 수용개조의 대상이 되는 다른 집단들은 ‘사회 찌꺼기(渣滓)’ 집단인데, 이에 속하는 부류는 국민당 아래 일하던 사람들 중에서도 일정한 직업이 없고 사상이 불온한 자, 반혁명 분자의 家屬, 지주계급 중 직업이 없는 자, 이전에 도둑질이나 사기를 했거나 기생어미를 했거나 장물을 다루거나 마약류를 운반하는 등의 행동을 했던 사람 중 현재 직업이 없어서 생활이 곤란한 자들이다.¹⁴²⁾

창기는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세워지기 이전부터 항상 눈에 보이지 않는 곳으로 옮기는 등의 관리 혹은 처리를 해야 하는 존재였다. 상하이에 인민해방군이 들어선 1949년 5월 이후에도 신문사에는 창기제도 폐지 혹은 창기 단속을 바라는 투고가 들어왔다.¹⁴³⁾ 상하이시정부 公安局에서도 이런 상황을 파악하고 있어서, 공안국에서 작성한 <關於目前處理私娼辦法的報告>¹⁴⁴⁾에서는 “본 시의 私娼이 최근 대량 증가하고 그 상황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음을 보고 시민들이 하나둘씩 신문사나 본 국에 取締하길 청하는 편지를 보내온다.”고 적고 있다. 1949년 11월 베이징에서 전면적인 妓院폐쇄와 창기수용이 이루어지자 신문지상에는 이에 대한 보도와 함께 상하이의 기원도 같은 운명을 맞게 될 것인지, 창기제도를 상하이도 바로 폐지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담은 기사가 대량 실렸다.¹⁴⁵⁾

142) 이상의 ‘유민’과 ‘찌꺼기’계급에 대한 설명은 모두 上海市人民政府民政局, <一九五五年六月至一九五六年六月游民與社會渣滓收容改造方案>, 檔號 B2-2-27에 따른 것이다.

143) 《文彙報》1950.7.2. 4쪽, <私娼接客必須禁止>.

144) 上海市公安局, <關於目前處理私娼辦法的報告>(1950.12.2.), <上海解放初期禁娼史料一組>, 上海檔案館 編《檔案與歷史》2000年 第4期, 29쪽에서 재인용.

145) 《新民晚報》1949.11.22. 1면 <京市代表會決議禁娼/沒收妓院財產>, 1949.11.26. 1면, <清算妓院老品罪惡 京公安局開始審理>, 같은 해 12.3. 1면, <南京妓女大會 揮淚請求新生>, 1950.4.10. 2면, <怎樣審判妓女領家>; 《文彙報》1949.11.27. 2면, <在進步健康社會里枯萎了/上海的妓院和妓女>, 1950.4.5. 6면, <天津妓女新生的道路>.

신문지상에 나타나는 인식을 살펴보면, ‘기녀’나 ‘창기’ 개개인과 문제집단들을 단속·체포해야 하는 것인지, 성을 사고파는 것이 가능하게 하는 제도를 사라지게 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저자들에 따라 제각각이다. 이는 창기들이 사라지는 것과 창기제도라는 구조의 타파가 사실상 잘 구분이 되지 않고 있음을 뜻한다. 혹은 사회의 전반적인 변혁의 관점에서 ‘창기제도’를 신사회에서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는 상하이의 경제를 발전시키고, 여성의 몸을 사는 것이 치욕인 줄 모르는 사회적 기풍을 변혁하고, 부녀가 전면적으로 해방돼야 한다는 등의 주장을 펼치는 의견도 보인다.¹⁴⁶⁾

앞 장에서 이미 본 것처럼 공식적인 정책 수행에 있어서는 창기 개개인들을 처리하는 것에 비중이 더 많이 가 있는 것 같다. 공문서의 몇몇 제목들은 ‘금창’ 사업이 곧 창기들을 처리함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關於目前處理私娼辦法的報告> (공안국, 1950.12.2.), <關於本市處置娼妓的計劃> (상하이시위원회, 1951.11.26)과 같은 것이 있다. 실제로 행했던 조치들을 보면, 1951년 11월의 대대적 기원 폐쇄 이전에는 창기들을 단속하고, 눈에 보이지 않도록 만드는 것들이 있었다. 《新民晚報》의 1949년 9월 3일의 기사를 보면, 길에서 손님을 끌면 안된다는 법규를 기녀들이 위반하여, 老閘 公安分局에서는 거리를 청소하는 벌을 내렸다. 이런 벌을 내리는 것은 “그녀들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였다. 이러한 공식적 표현 속에서, “창기제도”의 문제가 법규를 위반한 “창기들”의 문제처럼 혼동됨을 알 수 있다.

창기들이 수용되고, 노동개조 되어야 하는 이유는, 이들이 일종의 타락한 처지에 있기 때문이다. 그녀들을 타락시킨 것은 “구 사회의 죄악”으로, 이 때문에 그녀들은 “향락만을 즐기는 사람”이 되어버렸다.¹⁴⁷⁾ 이런 부패한 생활은 “진정한 노동인민의 휴식”과 거리가 먼 것이다.¹⁴⁸⁾ 이들은 자기 손으로 노동하는 근면한 태도가 부족하고,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생활 수단을 삼는다고 비난받았다. 그러

146) 《新民晚報》1949.11.29. <禁娼的條件>; 《文彙報》1949.11.27. 2면, <在進步健康社會里枯萎了/上海的妓院和妓女>, 1951.11.27. 5면, <澈底消滅娼妓制度>.

147) 《新民晚報》1951.11.23. 4면, <老閘區妓院‘營業’停止/新生婦女學習生產技能> 기사 중 기녀들이 자아비판을 한 내용.

148) 《新民晚報》1951.11.26. 4면, <限制暗娼在遊藝場活動> 기사에서 정부의 기원폐쇄 조치를 환영하는 내용 중.

나 실제로는, 창기들은 돈을 벌기 위해 손님들의 휴식을 돕는 존재이지 기원에 가서 향락을 즐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손님들에게는 향락인 것이 기녀들에게는 ‘억지웃음’과 ‘모욕’이었다.¹⁴⁹⁾ 창기제도를 비난하는 모든 언어들이 곧 창기들의 생활 습관을 비판하는 방식으로 혼란스럽게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창기집단의 성격을 집약한 ‘寄生蟲’이라는 단어도 모순을 일으키면서 사용되고 있었다.¹⁵⁰⁾ ‘기생충’이라는 단어는 그녀들이 (기원 주인이나 매춘객을 막론하고 그들에게서) 착취와 학대를 받으며 일을 하여 돈을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정당한 생산물들을 부정한 방법으로 얻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뜻이다. 따라서 이들을 관리하고, 장사를 시키는 기원 주인이나 領家(기원 여주인이나 기원 안에서의 여성 중간관리자)도 ‘기생충’이라고 불리는 것은 당연했다.¹⁵¹⁾ 착취하는 자나 착취를 당하는 자나 모두 똑같은 기생충이었던 것이다.

정부는 창기들이 “부패되고 타락하여 고생하기 싫어하고 노동하기 싫어하는 습관 및 流氓(부랑자)의 기풍”을 가지고 있다고 여겼다.¹⁵²⁾ 즉, 기녀들의 ‘기생충’적 성격은 游民계급의 성격이었다. 유민들은 노동교육을 통하여 “나태한 습성을 바꾸고 노동에 대한 정확한 관점을 세워”, “점차로 그들의 자존심을 배양하고 사상에서부터 행동까지 스스로의 힘으로 먹고 사는 공민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는 집단이다. 또한 그들은 “사회질서를 해치고 사회도덕풍기에 위해를 가하는 부정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로, “의존하고, 요행을 바라고, 부정적인 파괴, 기회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등의 부정한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¹⁵³⁾ 따라서 이들을 위해 이미 앞 장에서 보았듯이, 정부는 노동교양소를 세우고, 수용과 노동교육을 행했으며, 창기들도 그 재교육의 대열에 포함되었던 것이다.

게다가 공안당국은 기녀들이 길거리에서 고객을 끌어 거리의 분위기를 해치고

149) 《文叢報》1950.4.5. 6면, 〈天津妓女新生的道路〉; 《新民晚報》1951.12.18. 2면, 〈妓女新生曲〉.

150) 다음 기사들은 기원이나 기녀들을 가리키면서 직접적으로 ‘기생충’ 혹은 ‘기생계급’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文叢報》1949.8.4. 〈糜爛洋場開始蛻變/妓女在轉生途中〉; 《文叢報》1949.8.17. 〈寄生階級在淘汰中 妓院停業達六十家〉

151) 《新民晚報》1950.4.10. 2면, 〈怎樣審判妓女領家〉.

152) 上海市政治法律委員會, 〈關於對於妓女的處理方針〉(1953.5.25.), 上海檔案館編, 앞의 기사 35쪽에서 재인용.

153) 上海市人民政府民政局, 〈一九五五年收容改造游民工作計劃要點〉(1955.3.), 檔號 B2-2-27.

도시의 면모를 흉하게 만든다고 생각했다. 인민정부의 공창제 시기에 처음부터 끝까지 관철됐던 조치가 바로 창기들이 길에서 손님을 끌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었다.¹⁵⁴⁾ 공개적인 오락장이나 기원들은 놔두고 길에서 손님을 끄는 것만 금지한 것은 가장 가난하고 기댈 곳이 없는 열악한 환경의 ‘기녀’들을 더 취약한 위치로 만드는 것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상하이 시는 이들에 대한 어떤 생활 방편도 제시하지 않은 채 ‘단속’을 통해 도시의 면모를 보기 좋게 만드는 작업을 먼저 행했다.

‘寄生生活’에 대한 비판은 사실 유민들에 대해서만 행해진 것은 아니었다. 상하이시 해방 초기인 1949년 8월 25일의 《經濟周報》에서는 상하이가 “비생산적이고, 기생도시이고, 범죄도시이며 난민 도시”라고 설명했다.¹⁵⁵⁾ 상하이시의 조계지역은 특히 제국주의 세력의 악영향이 남아있기 때문에, “부패로 썩어가는 지역”이라고 표현된다.¹⁵⁶⁾ 유민들, 그리고 그 계급의 주된 구성원인 창기들은 이러한 상하이의 어두운 면을 가장 잘 드러내는 대표적 집단들이었다고 볼 수 있다.

창기를 비롯한 유민 전반에 대한 수용 및 개조 작업은 공산주의 정부가 독창적으로 만들어낸 방법은 아니었다. 사회적 질서를 교란시키는, 직업이 없는 사람들에게 대한 수용과 노동교육의 방법은 국민당 정권 시기, 1930년대에도 상하이에서 이미 이루어진 바 있다. 국민 정부는 游民習勤所를 세워 이 유민들이 근면함을 갖추고, 일정한 기술을 익혀 사회에 나가 직업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랐다. 유민들이惡習을 고치고, 규율에 맞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매일매일의 일정을 짜고, 엄격한 관리감독체계를 세웠다. 그러나 당시 상하이의 경제가 이미 파탄이 난 상태였기 때문에, 그들이 그 훈련소를 나오고 나서도 다른 삶을 사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했다.¹⁵⁷⁾ 창기들에만 한정시켜 보면, 1920년대 상하이 공동조계에서 외국인들의 기독교계열 반매춘운동단체가 ‘희망의 문(the Door of Hope)’이라는 시설을 세워 기녀들을 수용하고 재교육하였다.¹⁵⁸⁾ 그리고 앞 장에서 보았듯이 국민당

154) 上海市公安局, <關於目前處理私娼辦法的報告>(1950. 12. 2.), 上海檔案館編, 앞의 기사 29쪽에서 재인용.

155) Gaulton, 1981, 46쪽 《經濟周報》기사 인용에서 재인용.

156) 《文彙報》1949.8.4. <廢爛洋場開始蛻變/妓女在轉生途中>.

157) 金泰丞, <紀律과 更生 : 1930年代 上海 游民勤習所의 游民管理>, 《동양사학연구》第85輯, 동양사학회, 2003년 참고.

도 잠시나마 기녀들의 재교육을 위한 수용시설 운영을 시도했었다. 유민이나 ‘기녀’·‘창기’들을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집단으로 상정하고, 재교육을 문제해결의 한 방법으로 삼고 있다는 면은 1950년대 상하이 정부의 입장파도 일치한다. 그러나 1950년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유민들을 하나의 분명한 계급적 집단으로 규정하고, 유민 개조 사업을 국가 경제 건설 및 도시 정비 사업의 연장선에서 시행했다.¹⁵⁹⁾ 따라서 전 사회의 재편과 유민 계급의 소멸을 동시에 꾀하는, 국민당과는 분명한 차별점이 보이는 정책을 추진했다.

武舟는 기녀들을 한 곳에 수용하고 성병을 치료하고 글자 및 기술을 가르치고 결혼하도록 도운 것은 소련이 금창을 하던 시기에 취했던 조치에서 영향 받은 것이라고 쓰고 있다.¹⁶⁰⁾ 이 논의를 참조하면, 공산당의 기녀 개조사업은 외국인들이나 국민당이 세웠던 기녀 구제 기구의 연속선에 있다기보다는 사회주의 사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중화인민공화국이 생각한 유민들과 기녀들의 바람직한 존재 방식은 노동자 ‘계급’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당 정부와 소련,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모두가 유민들이 일정한 훈육의 과정을 거친다면 사회나 국가의 바람직한 구성원이 될 것이라고 믿었던 것은 공통점이었다.

창기들은 좋지 못한 생활습관을 가진, 사회의 골칫거리로 여겨졌지만, 이 시기 기녀들에 대한 평가 혹은 이미지에서 특이한 점은 이들을 성적인 위험성을 가진 인물로 언급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기녀’·‘창기’는 ‘사회 풍기’나 ‘도덕’에 영향을 끼친다고 모호하게 표현되기도 하지만, 이것이 반드시 성적인 의미로 쓰였다고는 보기 힘들다. 특히 정부 입장의 발언에서는 이들이 행하는 성적인 서비스에 대해서도 어떤 판단이나 평가도 볼 수 없고, 기녀에 대한 비판이 있더라도 ‘貞操’를 중시하는 시각은 보이지 않는다. 1949년에서 1951년 사이 ‘기녀’·‘창기’는 성적인 것

158) Hershatter, 1999, 320쪽.

159) 上海市民政局, <一九五五年收容改造游民工作計劃要點>(1955.3.), 檔號B2-2-27. 이 문서에 따르면, 1955년까지도 상하이는 매년 만여 명의 유민들을 수용하고 있었는데, 유민개조사업의 부담이 커 지속적으로 일정 개조 과정을 거친 유민들을 타 省이나 농촌으로 이송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160) 武舟, 1990, 350쪽.

과 연관시켜 언급되는 일이 거의 없다. 이 점은 그 이전시대와 비교했을 때 커다란 차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상 50년대 금창사업 속에서는 기녀나 매춘객의 성, 매춘업과 성욕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¹⁶¹⁾

금창에서 성에 대한 이야기가 삭제되고, 그와 함께 기녀들의 정조에 대한 언급이 사라지는 것은 당시로서는 매우 큰 변화였으며, 특히 중국 사회의 여성에 대한 인식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반영한다. 여성들의 가치가 정조만을 기준으로 매겨지는 사회에서 여성은 단지 창녀 아니면 정숙한 여성, 단 둘 중 하나가 될 뿐이다. 이러한 사회에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정조를 잃은 여성, 한 번 ‘창녀’가 된 여성은 그 낙인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중국에서 정조를 기준으로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는 것은 오로지 여성들에게만 적용되어 왔다. ‘창녀 아니면 정숙한 여성’이라고 여성을 나누는 이분법과, 남성과 여성에게 이중적인 성의 잣대를 대는 것은 성차별주의가 성매매를 정당화 해 온 기본적인 논리이다. 중화인민공화국은 이러한 인식에서 벗어나 창기문제를 타락한 여성의 정조 문제가 아닌 일종의 사회 문제로 보고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여기서 공산당이 규정한 ‘사회문제’는 결국 계급의 문제였다. 창기의 성적인 낙인이 사라지는 과정에서, 성에 관한 이야기, 성별에 관한 문제의식도 사라졌다. 즉 공산당은 성매매를 계급적으로 구성된 문제라고 파악하였다. 이 점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그러나 상하이시가 금창사업을 시행 할 때, 창기들을 성적인 존재, 혹은 정조를 잃은 존재로 보지 않고자 하는 정부의 입장을 상하이 시민들이 충분히 이해하거나 동조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정부의 금창 조치에 대한 반응 중에는 기녀들이 과연 개조 될 수 있는지 의심하는 의견도 있었다. 한 신문 기사를 보자.

기원을 폐쇄하고 기녀들을 개조하는 때, 일부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생각한다. ‘기녀도 개조할 수 있나?’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 “그녀들은 아주 오랫동안 썩어빠진 생활을 하고, 화장을 더덕더덕 하고 담배를 피우고 트럼프를 하는데, 개조를 하려 해도 어렵지 않겠는가?”¹⁶²⁾

161) Hershtatter, 1999, 323쪽.

이러한 반응은 ‘기녀’·‘창기’의 성적으로 타락한 이미지를 그대로 재현하고 있다. 지속적인 ‘기녀’·‘창기’수용이 이루어질 때, 지역 주민들이 신고한 자 중에는 단지 여러 명의 남자와 성관계를 갖는 여성도 있었다.¹⁶³⁾ 창기들을 소재로 한 당시의 소설이나 시 등이 기녀들의 피해를 잘 보여주지 보다는 필요 없는 선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오락거리로 삼고 있다고 지적하는 글이 신문에 실리기도 하였다.¹⁶⁴⁾

개조를 위해 수용되었던 한 여성의 남편은, 자신의 부인이 기녀였다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어서 부인이 수용되었음을 알면서도 찾으러 오지 않았다고 한다. 또 개조 후에 집으로 돌아가자 남편이나 다른 식구로부터 기녀 일을 했었다고 구박과 멸시를 당하는 사례들도 있었다.¹⁶⁵⁾ 기녀 수용개조를 담당 한 사람들은 이러한 편견으로 인해 가족으로 돌아갈 수 없는 여성들을 대신하여 가족들을 찾아가 수차례 설득하였다고 한다.

다른 언론 매체보다 정부와 더 가까운 입장에 서 있던 신문에서는 기녀들에 대한 성적인 재현이 보이지 않는다. 정부는 그녀들의 정조를 문제 삼지 않았고, 나아가 결혼을 주선하기도 하였으니, 결혼과 가족에 관한 인식에서 정부는 여성의 정조를 중시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¹⁶⁶⁾ 위에서 논했듯 금창 과정 속에 ‘성’에 대한 담론 자체가 사라짐으로써 창기들의 성적인 면은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았다. 같은 시기 일본의 폐창운동이 순결주의적 지향을 가지고 있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양상이며, 이는 모든 사회 문제에서 계급이 가장 중요시되는 사회주의 국가의 특색이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¹⁶⁷⁾

162) 《文叢報》1951.11.28. 6면 <誰說妓女無法改造>.

163) 楊潔曾·賀宛男, 1990, 65쪽.

164) 《新民晚報》1950.3.23. <關於描寫妓女>.

165) 楊潔曾·賀宛男, 1990, 202쪽과 131쪽.

166) 몇몇 남성들은 상하이 부녀교양소로 편지를 보내 결혼하기에 적당한 여성을 소개시켜달라고 요청하기도 하였다(楊潔曾·賀宛男, 1990, 137-139쪽). 이런 남성들 역시 정부와 마찬가지로 여성의 정조에 구애받지 않는 시각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67) 藤目ゆきは 전후 일본의 폐창운동이 순결주의에 빠져서 창기들에 대한 ‘醜業婦’ 낙인을 찍었다고 논한다(藤目ゆき, <女性史研究と性暴力パラダイム>, 大月愛子/志水紀代子/持田季未子/井桁碧/藤目ゆき, 《フェミニズムの轉回：ジェンダー・クリティークの可能性》, 白澤社, 2001, 200-203쪽).

2. 피해자로서의 창기

다른 유민들과 ‘기녀’·‘창기’가 다른 점은 이들이 피해를 입는 존재라는 것이다. 기녀들은 피해자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노동개조의 과정에서 다른 유민들에게는 강조되지 않았던, 기원주라는 명백한 억압자들로부터 착취당하는 피억압 계급인 점이 강조되었다.¹⁶⁸⁾ 이들이 누구에게 피해를 입었는가에 대한 인식은 곧 인민정부가 그녀들을 ‘해방’하는 방식이 어떠한가로 이어진다.

정부는 1951년 11월, 전면적인 기원 폐쇄를 단행하면서, 신문지상에 그녀들의 고통이 가득한 생활과, 창기제도가 생겨난 근본적인 원인 등을 자세히 서술할 것을 요구했다. 기원 폐쇄 다음날인 1951년 11월 27일부터 12월까지 연일 기원 폐쇄 및 수용된 기녀들, 그동안 기녀들이 겪은 비참한 생활에 관련한 기사들이 실렸다. 몇몇 악독한 기원주들의 죄행에 대한 자세한 보도, 국민당 시절의 위선적 금창 정책을 비판하며 인민정부의 금창을 역사적으로 돌아보는 기사, 기녀들이 ‘해방’을 통해 어떻게 변화하였는가를 보도하는 기사들은 12월 초반까지 계속 이어졌다. 신문 외에도 몇몇 기원이 있는 里弄이나 오락장에서도 기원폐쇄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¹⁶⁹⁾ 금창이 행해지고 기원에서의 생활에 대한 창기들의 증언이 입수되자, 곧 창기들은 착취에 대한 생생한 묘사 속에서 피해자로 모습을 드러냈다.

기원 폐쇄 이전에는 北京이나 南京과 같은 타도시에서 금창이 이루어져 그것을 보도할 때를 제외하고는 피해자로서의 창기가 두드러지게 표출되는 경우가 거의 없으며, 설사 그렇게 등장하더라도 매우 추상적이다. 대개의 기사에서는 평소에는 단지 그녀들이 무언가에서 해방되어 정당한 직업을 얻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것이 막연히 그려질 뿐이고, 창기로서의 삶이 극단적인 착취나 고통을 당한다고는 잘 그려지지 않는다. 다음의 기사를 보자.

168) 유민에 대한 정치 교육은 愛國守法를 중심 내용으로 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국가 발전과 개인의 전도는 일치하기 때문에, 국가 개발에 헌신하는 노동자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上海市民政局, <一九五五年收容改造游民工作計劃要點>(1955.3.) 檔號 B2-2-27).

169) 《文彙報》1951.11.27. 3면 <取締妓院·大家擁護>; 《新民晚報》1951.11.26. <限制暗娼在游藝場活動> 등.

상하이의 해방은 모든 선량한 인민들에게 감격과 희열을 가져다주었다. 나는 한 기녀와 우연히 마주친 기회가 있었는데, 그녀는 내게 수많은 고통과 그녀가 인민정부에 바라는 희망을 간곡히 말했다. “선생님, 나는 정말 너무 기뻐요! 우리는 상하이가 해방되는 것을 보았어요. 우리 기녀 일을 하는 사람들도 해방될 수 있겠죠! 그 나쁜 놈들의 통치 아래 있던 상하이에서는 그런 병졸 나리들이 오로지 우리들을 업신여기고 우리를 압박하여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조심하지 않으면 바로 그들에게 따귀를 맞았어요. 나는 우리 주인들이 말하는 걸 들었는데, 우리는 앞으로 이러한 일을 할 수 없게 된다고, 그들이 우리들에게 공장에 가서 일을 하거나, 노동자가 되라고 해요. 사실 누가 이런 하류의 일거리를 맡고 싶겠어요. 그래도 살아나가지 않을 수가 없는데 할 만한 일거리가 없어요. 다른 共產區에서는 모두 이러한 하류의 직업이 없어졌다고 들었어요. 나는 하루빨리 여공이 되고 싶어요. 가서 할 줄 모르는 일을 배우고, 배운 다음에는 나는 꼭 근면하게 할 거예요! 열심히! 선생님! 당신은 언제쯤 우리가 공장에 가서 일을 할 수 있을지 아나요? 그 날이 가까울까요?”

“그 날이 멀지 않았어요!” 라고 나는 말했다.

그녀는 웃었다! 그것은 새로 태어난 미소였다! 우리 새로운 중국을 만드는 대오에, 동반자가 하나 더 늘었다! 우리는 반드시 전심전력으로 그녀들을 구해내고 그녀들을 교육해야한다!¹⁷⁰⁾

이 기사는 1949년 7월, 상하이 해방 후 2개월 후에 쓰인 기사인데, 기자는 이 기녀의 밝은 태도와, 새로운 사회에 대한 희망을 중심으로 그리고 있다. 여기에는 기녀들의 고생하는 처지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은 없으며, 중요하지도 않다.

공산당이 보기에 상하이의 ‘기녀’·‘창기’들을 고통에 빠뜨리는 첫 번째는 ‘제국주의 통치’와 ‘반동 통치’였다. 이러한 판단은 공산당의 혁명 과정에서 체계적으로 발전한 것이기보다는 도시지역을 점령하기 시작하면서 생겨난 것으로 보인다. 1940년대 공산당과 관련된 여성단체들 관련 문건에는 성매매나 기녀에 관한 내용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간혹 여성단체가 여러 개의 결의사항을 내세울 때 축첩·민머느리 현상과 함께 인신매매를 타파해야 한다는 주장이 보이기도 한다.¹⁷¹⁾

170) 《新民晚報》1949.7.10. 3면. 魯靜子, 〈我們翻身了!(記一個妓女的話)〉.

171) 〈華中解放區 第一次婦女代表大會決議〉(1946.3.), 中華全國婦女聯合會婦女運動歷史研究室 編,

1946년에 成仿吾는 한 글에서는 반봉건·반식민의 상태가 중국 부녀들을 고통에 빠지게 한다면서, 제국주의가 “곳곳에서 중국 부녀를 모욕한다. 예를 들어 일본인들은 ‘花姑娘’ 요구하고, 미국인들은 ‘吉普女郎’을 요구한다.”고 적고 있다.¹⁷²⁾

상하이에서 제국주의와 반동 통치는 경제를 파탄내고, 인민을 착취하여 이 여성들을 妓院이라는 최악의 상황으로 몰고 가는 첫 번째 장본인이다. 상하이시, 그중에서도 조계지역은 자본주의와 제국주의로 인해 가장 ‘썩어 문드러진’ 곳이었다. 창기들은 이 부패의 상징이자, 부패로 인해 억압받는 자였다. ‘제국주의의 주구’인 국민당과 일본 괴뢰 ‘반동 통치’는 구사회의 악을 유지하고, 지배계급의 이익만을 추구한 정권으로 그려졌다.¹⁷³⁾ ‘창기제도’나 ‘기녀제도’의 연원을 돌아보는 기사에는 어김없이, 漢武帝 시기부터 시작된 역대 왕조 통치체제부터 국민당 통치까지가 모두 ‘반동통치’ 하나로 묶여서 표현된다.¹⁷⁴⁾ 이 통치자들은 神權·政權·族權·父權의 4대 족쇄로 부녀들을 옭아매는 구 사회의 폐해를 그대로 지속시켜 왔다. 부녀들 중에서도 가장 처참하고 극단적인 피해를 입었던 자들이 바로 창기들이다.

문: (전략)하지만 고서 상에 한무제 시대에서부터 소위 營妓가 있었다는데 이렇게 천 년 이상 전부터 창기가 있었는가?

답: 조금도 틀리지 않다. 창기제도는 중국에서 이미 천 년 넘는 역사가 있어서 한 조부터 시작하여 역조 역대의 반동통치자들은 한편으로는 기원을 개설하여 향락을 추구하고 한편으로는 통치 받는 부녀들을 강제로 매음을 하게 하였다. 근대에 들어와서는 반동통치자들은 더욱 직접적으로 기원을 경영하여 기녀들로부터 세금을 뽑아 내고 세금을 내는 기녀들을 법률적으로 보호해주고, 그녀들의 매음을 합법적으로 만들었다. 이로부터 알 수 있듯이, 창기제도는 오랜 기간 구 중국사회에 존재한 것으로 반동통치의 결과물이다.¹⁷⁵⁾

《中國婦女運動歷史資料 1945.10-1949.9》, 中國婦女出版社, 1991, 36쪽에서 재인용; 〈中國婦女聯誼會對當前政治意見書〉(1946.1.30.), 中華全國婦女聯合會婦女運動歷史研究室 編, 1991, 87쪽에서 재인용.

172) 成仿吾, 〈中國共產黨與中國婦女解放〉(1946.7.7), 《時代婦女》 창간호, 中華全國婦女聯合會婦女運動歷史研究室 編, 1991, 107쪽에서 재인용. 花姑娘은 기녀 혹은 품행이 방정치 못한 여자를 가리키는 말이고, 吉普女郎의 吉普는 jeep의 음차어, 女郎은 소녀나 여성을 가리키는 말이다.

173) 《文彙報》 1951.11.28. 6면 〈消滅殘存妓院具有積極意義〉.

174) 《文彙報》 1951.11.27. 5면 〈澈底消滅娼妓制度〉; 《新民晚報》 1951.12.3. 3면 〈新上海今年一件大事 全市妓女獲得解放〉.

제국주의와 반동통치가 구조적으로 부녀들을 ‘불구덩이’에 빠뜨리고 간접적으로 이들을 착취한다면, 직접적으로 이들을 착취하고 괴롭히는 자들은 ‘기원주’, ‘領家’, ‘老鴇(기생어미)’ 등이다.¹⁷⁶⁾ 기원 단속 및 폐쇄를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할 때 이들은 ‘자매들’을 잔인하고 포악하게 착취하고 때리고 고문하고 죽이는 자들로 그려진다. 상하이에서 기녀들의 수용 사업이 이루어진지 정확히 한 달이 되는 1951년 12월 27일에는 기원주들의 악행을 고발하는 기녀들의 투쟁대회가 열렸다. 여기서 기녀들은 기원주들이 얼마나 자신들을 착취하고 잔인한 일을 많이 저질렀는지 폭로했으며, 그 내용은 《新民晚報》와 《文彙報》와 같은 신문에 사진과 함께 매우 자세히 실렸다.

‘자매들’을 괴롭히는 이들 중에는 기원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토박이 깡패, 폭력 조직의 보스 등도 있지만, 양어머니나 예전에 기녀 생활을 하다가 이제는 관리자의 위치가 된 여성들인 ‘領家’와 ‘기생어미’들도 많다. 이들은 금창 시행 과정에서 ‘자매들’의 원수이자 ‘자매들’의 계급투쟁의 대상으로 변한다. 이들이 젊었을 때에는 기녀로 지냈거나, 착취를 당했더라도 이들은 ‘자매’안에 들어갈 수 없는 여성들이었다. 이들은 앞 절에서 이미 살펴본 것과 같이 유민 계급으로 분류 될 때에는 ‘자매들’과 같은 범주에 속하는 부류의 사람들이다. 기원 폐쇄 이후 《新民晚報》에는 여성 기원주에 관한 두 개의 기사가 실렸는데, 이 기사는 둘 다 이 여성들을 ‘암사자(雌老虎)’라고 표현하고, 그 어떤 다른 기원주보다도 포악했다고 고발하고 있다.¹⁷⁷⁾ “과격한 기질의 여자”라는 의미인 암사자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 여성들이 오히려 더 지독했다고 하는 서술은, 권력을 가진 여성에 대한 거부감과 비하를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175) 《新民晚報》1951.12.1. 1면 <關於取締妓女的幾個問題> 신문독자의 편지.

176) ‘불구덩이’는 한자로 火坑인데, 이 말은 지극히 비참한 생활 환경을 비유하는 말이기도 하고, 妓院을 비유하는 말이기도 하다. 당시 신문기사에는 이 ‘불구덩이’의 비유가 기원 생활을 묘사할 때마다 등장했다; 老鴇는 늙은 기녀나 적은 수의 창기를 데리고 있는 기생어미를 뜻한다. 중국에서는 기생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맥상 어색하긴 하나, 마땅한 번역어가 없어 기생어미라는 말을 쓰도록 한다.

177) 《新民晚報》1951.11.27. 4면 <不許治療性病 妓女自諱身死>와 <“雌老虎”陳金弟 虐待妓女尤凶惡>.

창기들을 억압하는 마지막 집단은 ‘고객’들이다. 금창 시기에 억압적인 매춘객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남성들은 국민당 특무요원이나 고위 관료에 한정된다. 이 고객들은 ‘기녀’와 ‘창기’들을 찾아와 모욕하고, 폭력을 휘두르고 인간적인 대우를 하지 않았던 존재들이며, 마음대로 향락을 즐기던 부패한 존재들이다. 그러나 이 국민당 관련자들은 상하이 ‘해방’ 혹은 반혁명 진압 운동 중에 이미 사라진 자들이고, 이들 외의 매춘객들은 ‘기녀’들의 수난사에 전혀 보이지 않는다. 다음 《文彙報》의 기사를 보자.

(전략)……일반적으로 말해서 해방이후 기녀영업의 형세는 “清淡(한가함)” 두 글자로 요약할 수 있다. 長三堂子도 이렇고, 幺二堂子도 이러하며, 韓庄 또한 예외가 아니다.¹⁷⁸⁾ 이 삼자를 비교해보면 장삼당자의 상태가 더욱 처참하다. 기원영업이 한가해진 원인은, 주로 정치가 이미 제 궤도에 올라 공무원들은 청렴하고 자중하기 때문에, 반동과시기에 관원들이 독직과 횡령으로 얻은 나쁜 돈을 “교제”며 “접대”의 비용으로 쓰는 것과 같은 일이 없기 때문이다. 상인들도 또한 더 이상 폭리를 취하고자 하지 않고, 남은 자본금을 자극적인 사업의 자본으로 쓰고자 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회가 안정되고, 사회의 기풍이 소박하고 근검절약하는 쪽으로 선회했다. 장삼당자의 별이가 더 비참한 것은 또한 여기에 그 연원이 있다. 장삼당자는 원래 고관대작과 大商인들이 가는 곳이었다. 해방군의 포성은 일찍이 그러한 관리들이 놀라 당황하며 타이완과 홍콩, 미국으로 도망치게 만들었다.…(후략)¹⁷⁹⁾

이 인용문에서 창기의 고객이 되는 사람들은 이미 타이완과 홍콩, 미국으로 도망간 반동과 시기의 관원들뿐이다. 그러나 상하이시의 ‘기녀’ 수용이 1950년대 중반까지 이어졌다는 점을 볼 때, 성을 사는 매춘객들은 상하이에 인민정부가 세워진 이후에도, ‘기녀해방’ 이후에도 꾸준히 존재했다는 것은 분명하다. 특히 1951년 11월 모든 기원을 폐쇄한 이후, 비밀리에 기원이 차려져 있지 않는 한 성매매를 성립시키는 데 누구보다 중요한 행위자는 ‘손님’이 된다. 그러나 그들은 ‘기녀 해

178) 長三堂子, 幺二堂子, 韓庄는 앞부터 차례로 고급 기녀에서 하급 기녀(혹은 그런 기녀들이 일하는 장소)를 일컫는 대표적 호칭이다.

179) 《文彙報》1949.11.27. 2면, <在進步健康社會里枯萎了/上海的妓院和妓女>.

방’ 혹은 금창 서사에서 삭제되었다. 기녀와 고객의 관계는 ‘길에서 손님을 끄는’ 법규를 지키지 않는 사창과 그 유혹에 끌려가는 자의 구도 안에서만 나타났다.

상하이부녀연합은 이 금창사업이 혼인법을 관철시키는 데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성명서에서 밝혔다.¹⁸⁰⁾ 중화인민공화국의 혼인법은 일부일처제와 혼인 당사자의 자유를 극히 중시하는 법이었다. 창기제도는 엄격한 일부일처제를 위협하는 제도로 여겨졌기 때문에, 혼인법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 금창사업은 중요했던 것이다. 그러나 기녀들의 고통을 묘사하는 공식적인 이야기 속에서 ‘창기제도’라는 ‘万惡’의 제도를 유지시키고 있는 것은 ‘반동정권’과 기원주들 뿐이고, 혼인의 신성함을 무시하고 기원에서 즐기는 ‘손님’들, 즉 악습을 행하는 중요한 행위자 중 하나는 사라졌다.

1949년 이전의 신문기사에서는 성을 사는 행동에 대한 비판이나 매춘객들에 대한 언급을 종종 볼 수 있다. 창기제도에 관심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 창기와 고객에게 똑같이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찍이 1910년대 중국의 기독교계 열의 논자들은 남성들의 성욕이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도덕심이 낮기 때문에 성을 사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남성들이 성을 사는 이유에 대해서는 생물학 등을 근거로 한 복잡한 논의가 있었지만, 그 가운데 축첩이나 매춘 등은 남성들의 나쁜 습관이며, 이 악습이 타파되어야 부녀들의 지위가 존중될 수 있고, 여성과 남성에게 다른 성적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 항상 존재했다.¹⁸¹⁾ 국민당 시기에는 적발된 기녀에게는 구류를 살게 하고 손님에게는 하룻밤을 지내는 값의 1/10밖에 안되는 벌금을 내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 신문에 실렸다.¹⁸²⁾ 어떤 사람은 이 나라에 기녀들이 존재하는 것은 부녀의 지위가 존중되지 않는다는 것과 매춘객들이 기녀들을 이용해 성욕을 해소한다는 것,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하였다.¹⁸³⁾

초기 중국 공산당의 지도자 중 한 사람이었던李大釗도 <廢娼問題>라는 글에서 폐창을 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로, 연애의 “자유와 신성함, 순결함, 숭고함

180) 《文彙報》1951.11.24. 3면, <市民主婦聯及家庭婦聯 擁護取締妓院的措施>.

181) Gail Hershat, 1999, 249-262쪽.

182) 《新民晚報》1946.5.16. <優待嫖客>.

183) 《新民晚報》1946.10.15. 仲冬, <談談妓女問題>.

을 유지해야” 하는데 공장을 승인한다면 연애생활의 가치가 하락하면서 금수와 다름없이 연애를 하고자 하여 인권을 모욕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와 함께 “부녀가 사회상 인격의 존엄을 상실하여 남자들이 여성을 경시하고 부녀의 마음을 가지고” 노는 현상이 중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¹⁸⁴⁾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이전의 ‘창기제도’에 관한 이야기 속에는 성을 사는 행위의 의미와 그 행위자들이 뚜렷하게 드러난다. 그러나 중화인민공화국의 ‘금창’ 재현에서 이야기의 중심은 ‘악질 기원주’와 ‘기녀’ 사이의 계급 갈등이 되었고, 성을 사는 사람의 존재는 사라진다. II장에서 보았듯이 정부가 분명 매춘객에 대한 공식적인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신문에서 이러한 사실을 보도하거나 평가하는 기사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성을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삭제된 것은 이후 연구서들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쳤다. 매춘객들에 대한 중국 정부의 조치가 어떠했는가, 혹은 매춘객이 생겨나지 않도록 노력했는지 구체적으로 따져본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당시 공산당은 여성을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삼는 것을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규정한 상태였다. 건국 이후 영화와 같은 공적인 장에서는 계급의 적들만이 여성을 욕망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존재로 재현되었다.¹⁸⁵⁾ 이미 국민당 세력이 타이완으로 물러갔고 한차례 반혁명 진압운동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매춘객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지금으로서는 매춘객들의 신분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지만, 당시 상하이에서 지속적으로 벌어진 정치적 운동의 흐름 속에서 매춘객 중 ‘계급의 적’에 해당되는 경우가 더욱 드물어져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¹⁸⁶⁾ 기녀들보다 훨씬 많은 수의 매춘객들을 ‘타격’(공문서에서 사창은 ‘타격’의 대상이 되었다)하는 것은 계급으로 구분되지 않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에게 대한 공격처럼 여겨질 수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기녀와 대립되는 매춘객의 존재가 전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성매

184)李大釗, <廢娼問題>, 1919.4.27, 《李大釗全集》3, 河北教育出版社, 1999(《每週評論》제19호에 발표한 것. 서명 常).

185) 다이진후아(戴錦華), <성과 내러티브 : 현대 중국 영화에서 재현되는 여성>, 한국여성연구원 편, 《동아시아의 근대성과 성의 정치학》, 푸른사상, 2002. 225쪽.

186) 반혁명 진압운동이 진행된 후 1951년 말에는 三反·五反운동 등이 일어나, 부패나 자본주의적 행동방식 등에 대한 공격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계급의 적’들이 매춘객이 될 가능성은 점점 더 줄어들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熊月之 主編, 1999, 54-77쪽 참고.).

매의 문제를 양성 불평등의 문제로, 나아가 성별간의 갈등으로 보게 하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중화인민공화국에서는 성차를 중시하는 논의들은 이루어질 수 없었다.¹⁸⁷⁾ 금창과 기녀 개조 사업은 계급 해방의 수사 아래 진행되었고, 기녀들의 계급적 위치는 유민이면서도 다른 유민과는 달리 피해자라고 하는 복잡한 지점에 있었다.

중화인민공화국의 금창에서는 창기와 손님의 관계가 사라지면서 성매매의 ‘성’의 측면에 대한 담론이 줄어들었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대로 창기들에게 씌워져 있던 성적인 더러움이라는 낙인이 사라지는 과정이기도 했다. 그러나 그녀들이 성을 판매하는 ‘일’을 한다는 것조차 아무도 이야기 하지 않게 되면서, 그녀들이 기원주 뿐 아니라 자신의 가족들을 먹여 살린다고 하더라도 그녀들은 향락을 즐기는 ‘기생충’적인 존재로 계속 남게 되는 것이다. 신문지상에 나타나는 창기들의 고통에 대한 묘사는, 그녀들이 임신을 하거나 성병에 걸리더라도 이러한 사실들이 매춘객들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일이 없다. 임신이나 성병은 이렇게 육체적으로 힘든 기녀들을 기원주들이 어떻게 잔인하게 착취했는가를 보여주는 더 좋은 소재가 될 뿐이다.

이렇게 상하이 정부가 기녀들을 수용하여 정치적 의식화를 이룬 이후, 기녀들의 이야기는 기원주와의 관계에 집중되었다. 이전에는 기녀들을 함부로 대하는 매춘객들, 기녀일을 업신여기는 사람들, 가진 기술이 없어 전업도 할 수 없는 창기들의 상황 등이 성매매를 둘러싼 이야기에서 자주 드러났다. 반면 이제는 귀엽게 자란 딸을 유괴하거나 속여서 기원에 팔아넘기는 인신매매업자와, 강제로 손님을 받게 하고 구타와 고문을 하고 경제적으로 착취하며 성병에 걸려도 치료해주지 않고 오히려 덧나게 하거나 죽음으로 몰아넣는 기원주, 이 양자의 악행이 가장 큰 문제로 등장하고, 그 밖의 이야기들은 자취를 감추었다.

1951년 ‘금창’사업 개시 이전의 창기들에 관한 기사들을 보면, 창기들이 손님을 접대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들이 가끔 나온다. 다음의 기사들을 살펴보자.

187) 공산당 내에서 계급적 인식에 기반하지 않은 여성문제의 언급은 반동적인 것으로 여겨졌다는 것을 드러내는 한 예로 丁玲의 <부인절에 드는 감상>에 대한 당 내의 비판은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선이, <延安整風運動에 대한 知識人의 對應: 王實味와 丁玲을 中心으로>, 《中國史研究》第24輯, 2003. 6. 참고.).

그녀는 양 손을 에이프런에 깨끗이 닦으면서 흥분해서 말했다. “비록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좀 힘들지만 정신적으로는 훨씬 통쾌하고, 더 이상은 주인들의 욕이나 유객들의 모욕을 듣지 않아도 된다!”¹⁸⁸⁾

전족의 한 중년부인은 온종일 어두운 작은 문 앞에 서서는 손님을 대접하길 기다린다. 그녀의 남편은 원래 베이징 성 바깥의 소작인이었는데, 일본 침략군과 괴뢰정권과 지주의 억압과 착취로 가난하고 병들어 죽자 그녀는 할 수 없이 텐진에 와서 옷을 팔아 생계를 꾸렸다. 그녀는 매일 손님을 접대하는 것 외에도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6살 된 아이의 옷을 수선해야 한다. 그녀는 이렇게 말한다: 아이를 보면서 나의 생활을 생각하면 심산한 기분을 억누를 수가 없다…….¹⁸⁹⁾

그런데 기녀들의 수용이 이루어지자, 모든 신문기사들은 기원주들이 얼마나 기녀들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사람들인가를 실감나게 보도하는 데 치중했다. 예를 들면 《新民晚報》에서는 1927년 11월 27일 하루에 <不許治療性病 妓女自諱身死(성병치료를 허락하지 않아 기녀가 스스로 물에 빠져 죽어)>, <“雌老虎”陳金弟 虐待妓女尤凶惡(“암사자” 陳金弟, 기녀를 학대함이 더욱 흉포)>, <解放了的妓女悲憤控訴惡霸“妓院主”血腥罪(해방된 기녀들이 비분강개하여 악당 “기원주”의 괴비린내 나는 죄악을 고발한다)>, <逼迫“養女”賣淫 “妓院主”施酷刑(“양녀”를 핍박하여 매음시킨 “기원주” 흑형에 처해져)> 네 개의 기사를 실었다. 여기서 기자들은 여성들을 유괴한 것, 성병을 고쳐주지 않은 것, 기녀들을 고문하거나 죽인 사실들을 자세히 묘사했다. 《文彙報》는 11월 28일, <站起來的姊妹們, 控訴吧!(자매들아 일어나자, 고발하자!)>라는 기사에 기녀들이 네 명의 기원주들을 고발한 내용을 상세히 담고 있다. 다음은 11월 25일의 기원 폐쇄 소식이 전해진 이후 《文彙報》에 실린 기사이다.

기녀의 생활은 여러 말로 설명할 필요도 없는 것으로, 그녀들은 사람의 도리로

188) 《新民晚報》1950.3.30. 2면, <娼妓轉業勞動生產> 중 전업한 기녀의 말.

189) 《文彙報》1950.4. 5. 6면, <天津妓女新生的道路>.

서는 가장 할 수 없는 몸을 파는 일을 하며 구사회의 천시를 받았다. 게다가 기원 주인은 또한 가장 처참하고 가장 흉악한 수단으로 그녀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니, 체적으로 때리고 불로 지지고 굶게 하고 무릎을 꿇게 하고……이런 것들이 모두 일상 다반사이다. 그녀들이 기원으로 들어가는 것은 마치 무기 징역의 감옥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고, 마지막의 결과는 항상 성병을 얻고 비참하게 죽는 것이다.¹⁹⁰⁾

위와 같이 잔인한 기원주의 죄행과 그 밑에서 지내는 기녀들의 고통스러운 삶을 담은 기사들은 베이징이나 난징과 같은 타도시의 금창 소식을 알릴 때마다 이미 반복된 바 있다. 기녀들의 피해가 자세한 묘사를 통해 극대화될수록 정부가 기녀들을 처참한 기원주의 ‘마수’에서 구해냈다는 것이 더욱 두드러지게 된다.

기원주의 비인간적인 대우를 깨닫고 그것을 토로하도록 하는 것은, 수용된 여성들에 대한 부녀교양소의 의식화 교육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었다.¹⁹¹⁾ 수용된 여성들이 그 동안 얼마나 비참한 생활을 했는지를 토로하고 자신들을 박해한 기원주를 규탄하는 규탄대회는 기녀와 기원주의 계급적 갈등을 가장 효과적으로 보여주는 장이었다. 이 규탄대회는 애초부터 기원주들의 악행을 고발하는 장으로서 고안되었다. 정부는 교양소 광장에 죄가 가장 엄중한 다섯 명의 대표적인 기원주들을 포박하여 호송해 나와, 그들에게 피해를 입은 여성들에게 직접 기원주들의 죄상을 밝힐 시간을 주었다. 따라서 당시 수용되었던 창기들의 처참했던 삶에 대한 이야기는 곧 기원주들의 악행으로 수렴될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¹⁹²⁾ 이는 창기제도의 문제가 단지 기원주와 기녀라는 두 계급의 문제일 뿐인 것처럼 보이게 만든다.

190) 《文彙報》1951.11.27. 5면, <澈底消滅娼妓制度>.

191) 楊潔曾·賀宛男, 1990, 76-83쪽.

192) 재미있는 것은, 이 기원 폐쇄 이전에 한 기원주를 인터뷰한 기사는, 기원주가 사악한 이미지로 그려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기자가 기원은 곧 문을 닫아야 하며, 그것은 단지 시간문제일 뿐이라고 말하자) 그는 감개무량한 듯, 흐느끼며 말했다. “결국은 문을 닫는 수밖에 없으니, 머리를 굴려서 다른 생활 방식을 찾아야겠다.” (중략) “陶陶”의 지배인인 張美榮은 “종업원들의 생활이 곤란하니 그들도 좀 더 잘 돌봐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文彙報》1949.11.27. 기사)

이 기사의 기원주는 다른 종업원들을 걱정하는 선량한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그려진다.

어제(27일) 오후 通州路의 부녀교양소에서는 ‘기원주인’의 죄행을 공소하는 대회가 열렸다. 이 대회는 중대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첫째, 대회는 생생한 사실로, 화난 자매들의 분노가 담긴, 글자 하나마다 눈물 방울인 控訴를 통해 모두가 더욱 분명히 반동·봉건적 창기제도의 죄악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여기서 더 나아가 철저히 창기제도를 쓰러뜨리고, 고난을 받은 자매들을 해방하며 ‘기원주’를 진압하는 것이 얼마나 절박하고 중요한 일인지를 알게 되었다. 둘째, 이번의 고소회를 통하여 한 걸음 더 나아가 인민민주전제정치제도의 우월성과 정확성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반동파와 결탁하고 반동 세력의 핑계를 대면서 일관되게 기녀들의 머리에 올라타고 나쁜 짓만 하는 ‘기원 주인’, ‘기생어미’인 그들에게 전제정치를 실행하는 것은 완전히 필요한 것이고, 당연히 그래야만 하는 것이다.¹⁹³⁾

朱華는 눈물을 깨끗이 닦고는 범죄자 張(기원 주인 張菊卿:옴긴이 주)을 가리키며 말했다. “과거에는 너희들의 천하인 듯 너희는 감히 흉포한 짓을 했다. 이제는 인민들의 천하가 되었고 정부는 우리들의 것이다. 더 이상은 너희들 악당 마귀들이 횡행하는 것을 허락할 수 없다. 나는 인민정부가 자매들을 위해 원수를 갚아주길 요구한다. 피 값을 갚아라!”

단 아래 자매들은 이때 분노하여 주먹을 뻗고는 분분히 큰 소리로 외쳤다. “피해를 당한 자매들의 원수를 갚자! 철저히 창기제도를 소멸시키자!” “정부가 우리를 지지하는 것을 감사한다!”¹⁹⁴⁾

기원주들이 ‘자매들의 원수’가 되는 과정에서 창기제도의 문제는 기원주들의 범죄행위로 축소되어 버린다. 고소대회에 나온 업주 다섯 명은 특히나 그 행위가 더욱 잔인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행위에 대한 묘사는 기녀들의 피해를 극명히 드러내게 되고 이로써 창기 제도의 폐해를 분명히 보여주는 효과를 가진다. 그러나 보는 입장에 따라 제도의 문제가 이 몇몇 기원주들의 인격이나 포악성의 문제만으로 읽힐 수도 있다는 위험이 남아있다.

기원주의 악행을 고발하고 널리 알린 것은, 당시 정책 실행자들이 기원이라고

193) 《新民晚報》1951.12.28. 4면, <悲憤控訴“妓院主”血腥罪行>.

194) 《文彙報》1951.12.28. 3면, <婦女教養所舉行控訴大會>.

하는 “여성의 몸을 자본으로 삼아 이윤을 착취하는” 제도적·물질적 장치를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었다.¹⁹⁵⁾ ‘창기제도’가 수천 년 간 이어져 내려오는 사악한 제도라고 명명하면서도, 현재의 창기제도가 단지 과거의 유산이 기만 한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의 발달이라는 근현대의 토양에서 더 발달했다는 점에 공산당은 집중했던 것이다. 따라서 자본주의의 착취적 계급관계가 창기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였다. 사유재산 제도를 철폐하고 노동 계급이 해방되면 창기제도가 사라질 수 있으며, 실제로도 그렇게 창기제도를 소멸시켰다고 하는 공산당의 믿음을 이후 많은 연구자들도 그대로 답습하고 있었다. 공산당이 여성의 몸이나 성까지도 판매될 수 있는 물건처럼 만들어버리는 자본주의의 특성을 포착함으로써, 여성들의 몸을 이용하여 돈을 버는 행위를 착취로서 부각시키고 실제로 포주 행위자들의 행동에 개입했던 것은 당시로서 뿐만이 아니라 현재의 시각에서도 선진적인 조치였다고 볼 수 있다.

창기제도의 바탕에 사유재산 제도가 있다고 하는 이러한 공산당의 논리와 적용 방법은 일관되고 분명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유재산 제도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측면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 II장에서 보았듯이, 창기들 사이에는 상하이의 1등 기녀에서부터 먹고 사는 것조차 힘들어 차라리 수용소 생활이 낫다고 여기는 사창에 이르는 분명한 계급적 차이가 있었다(35-36쪽 기녀들의 일반적 상황에 대한 정부당조의 보고 인용문 참고). 이러한 빈부의 차이는 기원주나 기생어미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여성들의 계급적 차이는 창기가 되기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존재했다.¹⁹⁶⁾ 따라서 생산수단을 가지지 못한 피억압 계급이기 때문에 창기가 된 것이 아니라, 성매매라는 특정한 상황에 처하고 나서야 여성들은 피억압계급·피해자로 불리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왜 창기라는 직업이 여성들에게만 할당되는가에 대한 해답은 당시의 계급적 설명으로는 여전히 대답할 수 없는 것이었다. 기원주들이 여성들의 몸을 자본으로 삼아 이윤을 냈다면, 이러한 ‘장사’가 이윤을 내는

195) 上海市公安局, <關於對屢教不改的私娼主處罰的報告> (1950.12.30.), 上海檔案館編, 앞의 기사 30쪽에서 재인용; 《文彙報》1951.11.27. 5면, <澈底消滅娼妓制度>.

196) 당시 수용된 여성들이 창기가 된 이유가 가난인 경우도 많았으나 유과·사기나 스스로 큰 돈을 벌기 위해 창기가 된 경우의 비율을 합치면 전자의 경우를 넘어섰다(楊潔曾·賀宛男, 1990, 72-73쪽).

이유, 즉 왜 남성들만이 여성들의 몸을 구매하는가에 대한 질문은 끝까지 회피되었고, 이 물음은 계급적 설명으로는 그 답을 구할 수 없는 것이기도 했다.

이 많은 모순점들을 남겨두고, 기원주에 대한 고소대회를 거치며 피해자로서의 창기는 漢代로부터 현재까지 수천 년 간 지속된 반동정권을 상징하는 존재가 되었다. 그녀들의 해방은 “천년의 얼었던 강이 풀리고, 백년 소철에 꽃이 피”는 것으로 표현되었다.¹⁹⁷⁾ 기원주에게 당한 피해가 심하면 심할수록 “인민정부의 영도 하에서는 어떤 것도 못 이룰 것이 없다”는 찬양은 강화되었다.¹⁹⁸⁾ 창기해방의 서사 속에서 인민정부는 수천 년의 억압을 풀어주는 ‘구원의 신’이 되었다.¹⁹⁹⁾

‘기생충’ 같은 삶을 살면서, 동시에 피해자였던 기녀들은 생산노동의 ‘영광’이라는 길을 가게 되었다. 노동할 수 있는 능력은 ‘영광’, ‘햇빛’ 등으로 표현되면서, 국민당의 ‘흑암 통치’, 기원에서의 ‘어두웠던 시절’과 판연히 대비되고 있다. 앞에서 보았듯, 실제로 이들 대부분은 국영 농장이나 공장 노동자로 보내지면서 노동자로서의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개조사업의 담당자들은 정조의 유무와 관계없이 노동의 습관을 가진다면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고 믿었으며, 그러한 신념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여 새로운 삶을 기쁘게 시작한 여성들도 분명히 존재했다.

공산당은 창기들이 성적으로 타락한 존재가 아니라 구사회의 모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들이라고 규정하였다. 이로써 남성의 성욕이나 여성의 정조로 창기제도를 정당화하는 성차별적 편견에서 벗어났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산당의 시각이 얼마나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졌는가는 미지수다. 체국주의의 영향을 받은 부패한 유민의 생활습관을 가지는 동시에, 악독한 기원주라는 착취자에게 심한 피해를 입은 존재라고 하는 창기에 대한 복잡한 정의의 의미를 민간인들이 얼

197) 《現代婦女》 제8기(1950. 7. 1) 영화 『烟花女兒翻身記』 감상문; 《新民晚報》 1951.11.23. 4면 <老閘區妓院‘營業’停止/新生婦女學習生產技能>; 《文彙報》 1951년 11월 23일 3면 <妓女們跳出了千年苦海>. 베이징의 부녀생산 교양소에서도 <千年氷河開了凍>이라는 노래를 만들어 불렀다.(北京市公安局 編, 《北京封閉妓院紀實》, 中國和平出版社, 1988년, 286-287쪽에 가사와 악보가 있음.)

198) 《現代婦女》 제8기(1950. 7. 1) 영화 『烟花女兒翻身記』 감상문.

199) 《文彙報》 1951.11.27. 3면 <昨日封閉全部殘存妓院/公安局執行市府解放妓女的命令>; 《新民晚報》 1951. 12.18. 2면 范烟橋, <妓女新生曲>.

마나 이해할 수 있었을까. 아마도 개조의 대상이 되었던 당사자들은 계급의 언어를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성적인 낙인에서 벗어날 수 있었겠지만, 사회적으로는 부녀의 심신을 심하게 손상시키는 제도라는 ‘기원제도’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정의조차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창기였던 사람들에게 대한 차별적인 시선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 정부의 금창 사업은 창기와 기원주에게만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어, 이 양자가 눈앞에서 사라진다면 성매매 자체가 사라질 것이라는 믿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기녀개조가 마무리 된 이후에도, 기원과 같은 물질적 기반은 사라졌지만 성매매는 여전히 그 모습을 조금씩 드러내고 있었다.²⁰⁰⁾

200) 1962년 福州市에서는 28명의 暗娼을 발견하였다고 하는데, 식량 배급표를 대가로 성매매가 이루어졌다. 간부들은 이 사건을 ‘우발적’인 것이라고 판단했다(林紅, 1997, 60-61쪽).

IV. 결론

이 연구에서는 上海市의 禁娼 과정을 자세히 살펴봄으로써 성매매에 대한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의 태도와 그 바탕에 있는 여성 인식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II장에서 보았듯이 억압받는 부녀를 해방하기 위한 금창은 다른 부녀사업과 어떤 관계도 맺지 않은 채, 공안국과 민정국의 주도로 이루어졌다. 상하이에는 금창 이전 2년 6개월 동안 국민당 정권이 행했던 일종의 공창제도(기원 등록제)와 기원·창기 단속 조치를 이어나가고 있었고, 이 단속에서는 성매매의 원인은 창기라는 시각, 창기를 범죄 집단으로 보는 시각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었다. 이 때의 인민정부는 기녀들의 해방을 표방하면서도, 도시의 미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가장 열악한 조건의 길거리 기녀들을 우선적으로 단속하는 모순적인 모습을 보였다. 국민당과 달리 매춘객이 기원을 찾지 않도록 하는 조치도 취했지만, 공창을 찾는 매춘객은 문제가 되지 않았으며, 이 조치가 엄격하게 일관성을 가지고 이루어졌는지도 알 수 없다.

상하이에서는 1951년부터 1958년까지 8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약 8천명에 이르는 창기들을 대상으로 개조사업을 시행하였고, 이로써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부녀를 모욕하는 야만적인 제도”를 소멸시켰다는 것을 단적으로 증명할 수 있었다. 그러나 금창사업은 실질적으로는 부녀사업이라기보다는 사회 정화사업이자 유민을 신중국의 질서에 편입시키는 사업이었다. 따라서 개조된 창기들은 여성으로서가 아니라 다른 모든 유민들과 마찬가지로 노동력으로서 중국 곳곳의 농장이나 공장에 배치되었다. 이제까지의 연구들은 악습의 철폐라는 측면에서 금창을 설명해왔지만, 금창은 도박이나 아편과 같은 악습을 일소하는 사업과는 달리, 유민이라는 일정한 계급 전체를 개조하고, 기원주와 창기라는 유민 내부의 계급 관계도 타도하는 사업이었다.

이렇게 계급의 관점에서 추진된 금창을 뒷받침하는 인식을 III장에서 살펴보았다. 이들은 유민 계급에 속해 있을 때에는 기생충이었고, 기원주와의 관계에서는 피해자였다. 공산당은 성매매가 남성의 성욕이나 타락할 수밖에 없는 몇몇 여성들

의 본질적인 특성 때문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구성된 것이라고 파악하였지만, ‘유민’에 속해 있을 때 창기들은 그 개개인의 나태함이나 일하기 싫어하는 습성이 더 문제가 되었다. ‘유민’이라고 하는 계급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기녀들은 수용되고, 개조의 대상이 되었다. 이는 공창제 시기에 기녀들의 단속을 정당화해주는 사상이기도 했다. 공산당은 그 이전 시기의 창기 구제기관에서와 비슷한 방식으로 글 읽는 법을 가르치고 노동기술을 가르쳤지만, 이전과는 달리 개조에 ‘성공’을 거두었다. 그 이유는 이 사업이 ‘유민’들을 사회로 재복귀시키는 커다란 계획의 일부분으로서, 개조된 여성들을 노동자라는 신분과 특정한 노동현장으로 배치하였고, 이 사업을 하지 않고서는 도시의 정비를 완수할 수 없었다는 긴박한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 공산당은 창기들이 사회적으로 구성된 제도의 피해자라고 설명했다. 이 인식은 항상 성을 파는 사람은 여성이 되고 사는 사람은 남성이 되는 구조의 구성 방식에 대한 파악은 아니었다. 성별간의 사회적 차이에 대한 질문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매춘객에 대한 미온적인 대책은 바로 여기에 연유하고 있다. 1920년대 이후로 중국 사회에서는 남성들의 축첩과 성구매 행위에 대한 비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950년대에는 국민당 스파이와 같은 계급의 적이 아니라면, 매춘객들에게 단지 ‘부끄러움’을 주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공산당은 기원주라는 착취계급과 기녀라는 피억압자의 계급 관계 및 자본주의 모순으로 성매매를 설명하고자 했다. 기원주와 기녀 양자간의 관계로 창기제도가 설명되면서, 창기에 대한 성적 이미지와 낙인은 사라졌지만, 여성에게는 엄격하고 남성에게는 관용적으로 적용되는 성 관념에는 직접적으로 대면하지 않게 되었다. 성매매를 계급적 문제로 만들면서 중화인민공화국은 가장 비참한 처지의 인민을 구원하고, 기생적인 생활방식을 개조할 수 있는 강력한 근대 국가의 면모를 과시할 수 있게 되었다.

이상에서 본 것처럼 중화인민공화국은 창기제도를 소멸시켰다. 그리고 79년 개혁개방이 이루어지기 이전까지 공식적인 성매매는 사라졌다. 중국의 경제가 재편되면서, 전 국민이 주어진 단위의 노동자나 농민이 되어야 했다. 여전히 여성 노동에 대한 가치평가가 낮았지만,²⁰¹⁾ 전 중국의 인구가 조직화됨에 따라서 1950년

대의 금창이 이루어진 후에 성매매로 인구가 유입되는 것이 차단되었고, 아울러 해외와의 접촉도 줄어들게 되었다.²⁰²⁾ 이것이 한동안 중국 사회에서 제도적인 성매매가 사라질 수 있었던 이유였다.

필자는 이 연구에서 역사적으로 ‘부녀문제’로 취급되었던 창기제도가 계급 문제로 변화하는 과정을 서술하였다. 기녀들은 “타락한 여성”이나 “기생충”의 위치에서 ‘피해자’가 됨으로써 해방될 수 있었다. 여성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된 것이 아니라 피억압계급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된 것이었다. 기녀들의 억압받은 과거에 대한 이야기는 성적 측면이 빠짐으로써 다른 피억압 계급이 당한 착취를 조금 더 극단화시킨 것처럼 되었다. 좀 더 넓게 보면 중화인민공화국의 부녀들도 이러한 방식으로 ‘해방’을 얻었다. 부녀가 해방되기 위해서는 노동자가 되어야 하고, 노동계급의 해방, 조국의 해방에 부녀해방이 종속되어 있다는 것이 공산당의 공식적인 입장이었다. 여성들이 공산당에 조직화 되는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했던 것은 계급의식이었다. 부녀문제는 ‘부녀’만이 처해있는 억압과 갈등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부녀’의 문제이거나 ‘농민부녀’의 문제였다.²⁰³⁾ 여성들은 ‘부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서는 해방을 추구할 수 없었던 것이다. 공산당은 성이 바로 억압의 수단이 되어 가장 남녀간의 권력 차이를 현격하게 보여주는 성매매를 해결할 때조차 성의 문제에 직면하지 않았으니, 거꾸로 다른 ‘부녀해방’의 과제들에서도 양성간의 차이나 차별의 문제가 중시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유추할 수도 있다.²⁰⁴⁾

중화인민공화국의 금창 정책은 성매매가 보여주는 여성 비하적인 인식, 성매매로 이루어지는 성관계의 해악, 여성을 돈을 주고 사는 관습 등의 문제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여성과 남성이 모두 성적으로 같은 기준을 받아들여

201) 클로디 브로이엘, 김주영 옮김, 《하늘의 절반: 중국의 혁명과 여성해방》, 동녘, 1985, 40-43쪽.

202) 금창이 끝난 1958년은 전중국의 호적 체계가 재정비 된 시기와 일치한다(이선이, 2006, 21쪽).

203) Harriet Evans, "The Language of Liberation: Gender and Liberation in Early CCP Discourse", Edited by Jeffrey N. Wasserstorm, *Twentieth-Century China: New Approaches*,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2003.

204) 1952년 상하이시에서 일어난 강간 사건들을 처리하기 위한 공문을 보면, 가해자들은 청년층에서 노인층까지 다양한데, 군중의 심판을 받아야 할 대표적인 가해자들은 대부분 전 국민당 병사나 자본가들이다. 자본가가 공장 직원이 자신의 딸을 강간했다고 주장한 사건들은 모두 허위로 결론 내려졌다(中共上海市委員會〈關於強姦幼女案件處理情況的報告〉(1952.12.22.), 檔號B1-2-46).

야 한다는 인식은 혼인법이라는 금창사업 외부의 요인에 의해 강제되었다. 여성의 몸을 자본으로 이용하는 기원주나 포주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있었고, 기녀들은 문란하며 여성으로서 가치가 없는 여자라는 인식을 불식시키고자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이러한 입장이 전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었다.²⁰⁵⁾ 공산당의 성매매 금지는 금창사업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 일부 사람들에게는 단지 혼외성관계의 엄격한 금지 중 하나처럼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금창은 사생활을 권위적인 국가가 통제하는 것이라고 보는 연구자도 있다.²⁰⁶⁾

이 연구에서는 주로 정부의 입장을 볼 수 있는 자료들을 분석하였기 때문에, 금창이 민간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졌는지에 대해서는 단편적으로만 엿볼 수 있었다. 한 사회의 성별 관계는 제도적으로도 만들어지지만 의식과 일상 생활의 측면에서 더 분명하게 드러나기도 한다. 정부가 아닌 일반인들의 금창과 관련된 의식과 변화에 대한 연구가 아직 필요하다.

중화인민공화국의 금창 정책과 전반적인 여성정책을 연결하는 작업에는 아직도 규명해야 할 많은 과제가 남아있다. 중국의 도시 지역 여성에 대한 역사적 연구가 발전한다면 이 금창정책과의 연계를 명확히 찾아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여기서는 상하이로 대표적 사례로 깊게 다루면서 중화인민공화국 금창정책 전반을 조망하려고 했지만, 다소 무리가 있었을 것이다. 각 도시별 상황이 극히 달랐고, 금창사업이 도시별 자율에 맡겨졌기도 했기 때문이다. 전국적인 금창에 대한 평가는 앞으로의 과제로 남겨둔다.

205) 개조되어 사회로 복귀한 이후에도 주위의 곱지 않은 시선을 받는 여성에 대한 재현은 영화나 문학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이선이, 2006, 22쪽 영화 『紅鹿』에 대한 소개 참조); 1950년대 이후 重慶을 배경으로 한 한 자전적 소설에는 한 마을에 여전히 ‘창기’로 거리를 떠돌아다니며 살고 있는 여성과 개조 이후 주변의 수군거림을 계속 듣고 사는 여성에 대한 묘사가 나온다(虹影, 김태성 옮김, 《굴주린 여자》, 한길사, 2005)

206) 林紅, 2005.3.

참 고 문 헌

I. 자료

신문자료

《文彙報》1939년-1951년(圖文光盤) : 上海圖書館 소재

《新民晚報》1946년-1951년(圖文光盤) : 上海圖書館 소재

上海檔案館자료

-국민당시기

Q1-18-177 上海市警察局統計室 <上海市妓院妓女> 1947.10.

Q1-18-182 上海市警察局統計室 <上海市妓院妓女> 1946.12.

Y3-1-58 三十五年度 上海市警察局統計年報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후

B1-2-46 市府黨組 <關於本市禁娼的方案> 1951.11.16.

B1-2-46 市府黨組 <市委關於本市處置娼妓的計劃> 1951.11.26.

B1-2-46 上海市府黨組 <關於本市禁娼初步情況報告> 1951. 11. 28.

B1-2-46 中共上海市委員會 <關於強姦幼女案件處理情況的報告>1952. 12. 22.

B24-2-124 上海市人民政府民政局 <呈送通州路勞動生產教養所編制表乙份請審核
批覆由> 1951. 1. 27.

B24-2-124 上海市人民政府民政局 <爲成立第三第四勞動生產教養所,請予核准由>,
1951. 4. 21.

B24-2-124 上海市人民政府民政局 <爲本局恢復第四勞動教養所及吸收群眾團體之
有組織人員六十名請示由> 1951. 11. 5.

B24-2-124 上海市人民政府民政局 <爲本局附屬機構三個教養所適當合併調整成立
婦女教養所,並吸收有組織人員五十名請示由> 1951. 11. 14.

B24-2-124 上海市人民政府民政局 <關於三個教養所合併調整成立婦女教養所報告
及上海市人民的批復> 1951.11.05-11.17.

B1-2-877 上海市人民政府民政局 <對釋放妓女出教養所工作之處理>

- B1-2-705 上海市人民政府民政局 <關於新建翻修婦女教養所房屋,經費問題的報告和上海市人民政府的批復> 1951. 9. 24.
- B1-2-705 上海市人民政府民政局 <爲請速指撥婦女所及一所房屋修建費貳拾伍億壹千捌百萬元以利收容改造工作由>1951. 11. 12.
- B2-2-27 上海市人民政府民政局 <遣送女收容人員及改造好的妓女去新疆的初步計劃>1955. 3. 3.
- B2-2-27 上海市人民政府民政局 <一九五五年收容改造游民工作計劃要點>1955. 3.
- B2-2-27 上海市人民政府民政局 <動員教養單位成年婦女就業的訓練方案>1955. 4.
- B2-2-27 上海市人民政府民政局 <動員選送各教養單位婦女去新疆參與生產建設的報告> 1955. 5. 23. : 上海市人民委員會 批復 1955. 6. 30.
- B2-2-27 上海市人民政府民政局 <一九五五年六月至一九五六年六月游民與社會渣滓收容改造方案(草案)> 1955. 7. 2.
- B2-2-27 上海市人民政府民政局 <一九五五年六月至一九五六年六月游民與社會渣滓收容改造方案>
- B2-2-27 上海市人民政府民政局 <爲擬具遣送女收容人員及已改造好的妓女去新疆報請審核由> 안에 <遣送女收容人員及已改造好的妓女去新疆的初步計劃> 포함. 1955. 3. 3.
- B1-2-550 上海市人民政府 <關於處理妓院財產的批示> 1952. 4. 21.
- B1-2-876 上海市人民政府 <關於確定游民改造期的若干具體問題的規定及對妓女的處理方針>1953.

간행물

鮑祖寶,《娼妓問題》,上海女子書店,1935.

李大釗,〈廢娼問題〉,《每週評論》第19號(서명常) 1919.4.27.,《李大釗全集》3,河北教育出版社,1999에 수록.

中華全國婦女聯合會婦女運動歷史研究室 編,《中國婦女運動歷史資料 1945.10-1949.9》,中國婦女出版社,1991.

<上海解放初期禁娼史料一組>,上海檔案館編,《檔案與歷史》,2000年 第4期(上海檔案館자료 檔號 B1-2-46, 549, 550, 876, 877중 일부 수록).

II. 연구논저

단행본

- 小野和子, 李東潤 譯, 《現代中國女性史》, 正宇社, 1984.
- 엘리자베스 크롤, 김미경·이연주 옮김, 《중국여성해방운동》, 사계절, 1985.
- 池田 誠, 韓善模 譯, 《중국현대혁명사》, 靑史, 1985.
- 김충렬·공기두 共著, 《毛澤東思想論》, 일월서각, 1985.
- 클로디 브로이엘, 김주영 옮김, 《하늘의 절반: 중국의 혁명과 여성해방》, 동녘, 1985.
- 마저리 울프, 문옥표 옮김, 《현대 중국의 여성》, 한울, 1988.
- 楊潔曾·賀宛男, 김하림 옮김, 《새로 태어난 여성: 중국 창녀개조사》, 한마당, 1990.
- 중화전국부녀연합회 편, 박지훈·전동현·차경애 공역, 《중국여성운동사(상)(하)》, 한국여성개발원, 1992.
- 캐럴 페이트만, 이충훈·유영근 옮김, 《남과 여, 은폐된 성적 계약》, 이후, 2001.
- 캐슬린 배리, 정금나·김은정 옮김, 《섹슈얼리티의 매춘화》, 삼인, 2002.
- 후지메 유키(藤目ゆき), 김경자·윤경원 옮김, 《성의 역사학: 근대국가는 성을 어떻게 관리하는가》, 삼인, 2004.
- 니키 로버츠, 김지혜 옮김, 《역사 속의 매춘부들》, 책세상, 2004.
- 마츠이 야요리, 정유진·미야우치 아키오 옮김, 《여성이 만드는 아시아》, 들린아침, 2005.
- 정희진, 《페미니즘의 도전: 한국 사회 일상의 성정치학》, 교양인, 2005.
- 레이 초우, 장수현·김우영 옮김, 《디아스포라의 지식인: 현대 문화연구에 있어서 개입의 전술》, 이산, 2005.
- 홍잉(虹影), 김태성 옮김, 《 굶주린 여자 》, 한길사, 2005.
-
- 孫國群 《舊上海娼妓秘史》, 河南人民出版社, 1988.
- 武舟, 《中國妓女生活史》, 湖南文藝出版社, 1990.
- 石方, 《中國性文化史》, 黑龍江人民出版社, 1993.
- 馬維綱, 《禁娼禁毒》, 警官教育出版社, 1993.
- 北京市公安局 編, 《北京封閉妓院紀實》, 中國和平出版社, 1988.
- 談大正, 《性文化與法》, 上海人民出版社, 1998.

熊月之 主編, 陳祖恩, 葉斌, 李天綱, 《上海通史 第11卷 當代政治》, 上海人民出版社, 1999.

熊月之 主編, 承載, 《上海通史 第13卷 當代社會》, 上海人民出版社, 1999.

諸羽 編《割除毒瘤: 共和國首次禁毒禁娼述實》, 中央文獻出版社, 1999.

《上海700年(修訂本)》上海人民出版社, 2000.

[美]賀蕭, 韓敏中·盛寧 譯, 《危險的愉悅:20世紀上海的娼妓問題與現代性》, 江蘇人民出版社, 2003(Gail Hershatte 1999의 중국어 역).

[法]安克強(Christian Henriot), 袁燮銘·夏俊霞 譯, 《上海妓女:19-20世紀中國的賣淫與性》, 上海古籍出版社, 2004(원저는 *Belles de Shanghai:Prostitution et seculité en Chine aux XIXe-XXe siècles*, 1997).

大月愛子/志水紀代子/持田季未子/井桁碧/藤目ゆき, 《フェミニズム的轉回:ジェンダー・クリティークの可能性》, 白澤社, 2001.

中國女性史研究會 編, 《中國女性の一〇〇年:史料にみる歩み》, 青木書店, 2004.

Dymphna Cusack, *Chinese Women Speak*, London: Century Hutchinson Ltd, 1985(초판은 1958년).

Christina K. Gilmartin, Gail Hershatte, Lisa Rofel, Tyrene White ed., *Engendering China: women, culture, and the state*, Cambridge, Mass., & London: Harvard University Press, 1994.

Harriet Evans, *Women and Sexuality in China: Female Sexuality and Gender Since 1949*, New York: Continuum, 1997.

Gail Hershatte, *Dangerous Pleasures: Prostitution and Modernity in Twentieth- Century Shanghai*, Berkeley, Los Angeles & London: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9.

Elaine Jeffreys, *China, Sex and Prostitution*, London & New York: RoutledgeCurzon, 2004.

Tani E. Barlow, *The Question of Women in Chinese Feminism*, Durham and London: Duke University Press, 2004.

연구논문

김염자, 〈중국 혁명과정의 부녀인력동원정책연구: 공산당 부녀정책을 중심으로〉, 《여성학 논집》 제7집,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 1990년 12월.

다이진후아(戴錦華), 〈성과 내러티브 : 현대 중국 영화에서 재현되는 여성〉, 한국여성연구원 편, 《동아시아의 근대성과 성의 정치학》, 푸른사상, 2002.

金泰丞, 〈紀律과 更生 : 1930年代 上海 游民勤習所의 游民管理〉, 《동양사학연구》 제85輯, 동양사학회, 2003.

이선이, 〈延安整風運動에 대한 知識人の 對應: 王實味와 丁玲을 中心으로〉, 《中國史研究》 제24輯, 2003. 6.

辛圭煥, 《1930년대 北平市政府의 衛生行政과 ‘國家醫療’》, 연세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05.

이나영, 〈성매매: 여성주의 성정치학을 위한 시론〉, 《한국여성학》 제21권 1호, 한국여성학회, 2005.

딩 나이페이, 〈축첩제 그늘 속의 성과 성 노동〉, 《서울여성영화제 국제포럼 2005: 아시아 지역 성매매 현실과 비디오 액티비즘》

임우경, 〈그 많던 창녀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1950년대 상하이의 창녀개조사업과 실전의 역설〉, 《여/성이론》 통권 12호, 도서출판 여이연, 2005년 여름.

조세현, 〈가족제도와 국가권력의 법을 넘어서: 근대 중국사회에서의 아나르코 페미니즘의 전개〉, 이화여자대학교 중국여성사연구실 엮음, 《중국 여성, 신화에서 혁명까지》, 서해문집, 2005.

이선이, 〈전후 동아시아의 廢娼운동을 통해 본 근대국민국가의 性관리: 중국의 ‘창기개조사업’과 미군정기 한국의 공창제 폐지 비교분석〉, 《동아시아에 있어서 탈식민적(post colonial) 재편과 문화냉전/냉전문화의 전개(1940년대~1950년대)》, 성공회대학교동아시아연구소 2006년 4월 국제 컨퍼런스 발표문.

張峰, 〈武漢市取締娼妓的鬭爭〉, 《武漢文史資料》, 1999. 1.

振揚, 〈北京改造娼妓秘聞〉, 《湖南檔案》, 2002.11.

孫友安, 〈建國初期武漢市取締娼妓制度簡述〉, 《武漢文史資料》, 2000.6.

陳文聯, 〈五四時期的廢娼呼聲與現實啓迪〉, 《湖南師範大學社會科學學報》第32卷第2期, 2003. 3.

林紅,〈毛澤東時代の廢娼運動: その‘成功’と限界を検證する〉,《愛知大學國際問題研究所紀要》108, 1997.

福士由紀,〈書評 Gail Hershat, *Dangerous Pleasures*〉,《中國-社會と文化》第13號,中國社會文化學會,1998. 6.

林紅,〈1950年代福州市における幹部買春問題に對應する娼妓收容策: 一連の公文書とその背景を分析する〉,《愛知大學國際問題研究所紀要》119, 2002.7.

林紅,〈建國初期の社會再編における賣買春の實態: 中國福州市で逮捕された, ある「台基主」に對する聞き取り調査〉《中國研究月報》57(10), 2003. 10.

林紅・湯山トミ子,〈賣買春-社會主義下の廢絶, 市場經濟下の復活〉,中國女性史研究會 編,《中國女性の一〇〇年: 史料にみる歩み》,青木書店,2004.

林紅,〈1950年代における中國賣春女性の更生:「福州市婦女生產教養院」を中心に〉,《愛知大學國際問題研究所紀要》123, 2004. 9.

林紅,〈2004年1月 報告・總會『福州市婦女生產教養院』にみる賣買春根絶政策の特徴〉《中國女性史研究》14. 2005.

林紅《中國における賣買春根絶政策: 1950年代の福州市の實施過程を中心に》,お茶の水女子大學大學院人間文化研究科博士(社会科學)學位論文, 2005.3.

Richard Gaulton, "Political Mobilization in Shanghai, 1949-1951", Christopher Howe ed., *SHANGHAI: Revolution and Development in an Asian Metropolis*,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1981.

Gail Hershat, "The Hierarchy of Shanghai Prostitution 1870-1949", *Modern China*, Vol. 15 No. 4, October 1989.

Gail Hershat, "Regulating Sex in Shanghai: The Reform of Prostitution in 1920 and 1951", Frederic E. Wakeman, Jr., Wen-hsin Yeh ed., *Shanghai Sojourner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1992.

Christian Henriot, "La Fermeture: The Abolition of Prostitution in Shanghai, 1949-1958," *The China Quarterly*, No. 142. June 1995.

Christian Henriot, "From a Throne of Glory to a Seat of Ignominy: Shanghai Prostitution Revisited(1849-1949)", *Modern China*, Vol. 22 No. 2, April 1996.

Tani E. Barlow, "Theorizing Woman: Funü, Guojia, Jiating(Chinese Women,

Chinese State, Chinese Family)", Joan Wallach Scott ed., *Feminism & History*, Oxford-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6.

Elaine Jeffreys, "The problem of prostitution and sex work in twentieth-century China"(A Review of *Dangerous Pleasures: Prostitution and Modernity in Twentieth-Century Shanghai* by Gail Hershatter), *China Journal*, 39, 1998.

Patricia Stranahan, "Radicalization of Refugees: Communist party Activity in Wartime Shanghai's Displaced Persons Camps", *Modern China*, Vol. 25 No.2, April 2000.

Harriet Evans, "The Language of Liberation: Gender and Liberation in Early CCP Discourse", Jeffrey N. Wasserstorm ed., *Twentieth-Century China: New Approaches*,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2003.

ABSTRACT

Prohibition of Prostitution and Liberation of Prostitutes in Shanghai City in the 1950s

Chang, Soo-ji
Dept. of History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The Chinese Communist Party (CCP) had implemented the nationwide work to prohibit prostitution since the foundation of People's Republic of China in 1949 until the late 1950s. The CCP asserted that this work would destroy the savage institution, which had insulted women and injured their physical and mental health. Local governments in every city closed brothel houses and arrested and punished brothel owners. They also helped prostitutes to return to society after treatment for venereal diseases and labor education.

Works of prostitution prohibition were enforced from 1951 to 1958 in Shanghai city, which had showed the largest number of prostitutes in the world. Shanghai city government operated the licensed prostitution for two years and six months after the liberation and expected to restrict the prostitution business by controlling transactions of women's sex through this public system. The city government declared it would execute such a radical policy as an education of whoremongers and help prostitutes with their job change. Although there is no way to confirm how many of these policies were carried out, it is certain that the city government concentrated more on regulating prostitutes and prostitute houses rather than it executed such radical policies. This operation of public prostitution, which laid stress on control policies, shows that the CCP's policy of

prostitution prohibition was not the one for women but a part of the works of purification of society.

The regulation to prohibit prostitution overall carried out in Shanghai city in November 27th 1951 was applicable only to prostitutes and brothel owners, and such a trend to emphasize the reform of prostitutes continued until 1958. It is understandable that the reform of prostitutes was centered in the business of prostitution prohibition because the CCP saw prostitutes not only parasites which represented bad habits of old society and capitalist society but also their victims.

The CCP as we can see from its experiment in the licenced prostitution, expected to solve the prostitution problem only by transforming 'sellers of sex.' Prostitutes who belonged to the class of drifting people were officially 'liberated' when they became social workers after being educated in relocation camps. Such liberation was possible when the CCP was controlling the whole population and organizing women's labor power.

All the people who had the jobs related with prostitution were defined as the class of drifting people, which was understood as the laziest, parasitic, and breaking public morality. In the socialist country, therefore, it became urgent to correct such bad habits of this class. Moreover, it is because of this very understanding of drifting people that the CCP understood the reform of prostitutes' parasitic habits more important rather than the critique of social habits that made transactions of sex possible.

Prostitutes were seen as the exploited in relation to their masters (brothel owners) who belonged to the same class of drifting people. This recognition of prostitutes as the exploited became clear since the overall enforcement of prostitution prohibition policy in November 1951 and strengthened when prostitutes were publicly complaining about the wrongdoings done by their masters. That is to say, prostitutes were understood as social victims because they became prostitutes to be

exploited by their masters, but it was not understood that they became prostitutes because they were the women of the exploited class. In such an official discourse, therefore, not only discussions of the gap between rich and poor or their origins but also the critique of prostitutes'sufferings from transactions of sex or men's habits to buy women's sex were missed. The CCP could avoid the fundamental critique of contradictory recognition of sex, which was too strict about women and generous to men, although it destroyed the social habit of prostitution.

The CCP's definition of prostitutes as parasites and victims transformed the question of prostitution from women's problem to the class issue. This transformation took away the sexual image of prostitutes by employing more vocabularies of class and weakened a social habit to evaluate women's behavior by their chastity. People still criticized prostitutes for their 'sexual decadency,' however, while sexually discriminatory recognition was not fundamentally criticized. This example of the CCP's prostitution prohibition policy tells that the work of 'emancipation of women' avoided the fundamental critique of and transformation of sexually discriminatory society.

Key words: prostitution, prohibition of prostitution, prostitute(Changji or Jinü), class-consciousness, drifting people, parasite, victim, emancipation of women, brothel owner, whoremonger